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漢語口語習用語 研究

— 어법, 의미, 화용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 紅

2012年 2月



漢語口語習用語 研究

— 어법, 의미, 화용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李 滢 鎬

文 紅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12月

文紅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1年 12月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circular emblem. It features a stylized flame or torch in the center, with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around the top and 'JEJU 1952' at the bottom. The Korean text '제주대학교' is also visible.

A study on the Chinese Oral Idiom

— Focused on the Grammar, Semantics, and Pragmatics —

Hong Wen

(Supervised by Professor Yeong-ho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Arts

2011.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Jae-cheol Ahn

Eun-ju Kim

Jung-seop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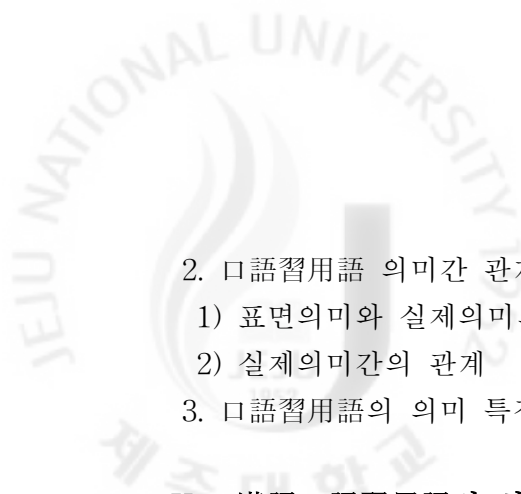
Hong-sun Cho

Thesis director, Yeong-ho Lee, Prof. of Literatur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I. 緒論	1
1. 研究現況	3
2. 研究目的	6
3. 研究範圍와 方法	7
II. 漢語口語習用語의 범주	9
1. 漢語口語習用語의 定義	9
2. 口語習用語의 地位	11
3. 口語習用語의 區分	14
1) 口語習用語와 단어	14
2) 口語習用語와 일반구	16
3) 口語習用語와 기타 熟語	21
III. 漢語口語習用語의 어법적 분석	34
1. 문장 성분	34
1) 술어	37
2) 목적어	39
3) 관형어	41
4) 부사어	42
5) 보어	43
2. 복문의 구성 성분	45
1) 節	46
2) 의미관계의 일부	47
3. 口語習用語의 語法化 現象	48
1) 어법화가 강한 경우	48
2) 어법화가 중간 단계인 경우	51
3) 어법화가 약한 경우	56
IV. 漢語口語習用語의 의미적 분석	59
1. 口語習用語 의미 構成	59
1) 표면의 의미와 實際 의미	59
2) 실제의 의미의 分化	61



2. 口語習用語 의미간 관계	68
1) 표면의미와 실제의미의 관계	68
2) 실제의미간의 관계	72
3. 口語習用語의 의미 특징	78
V. 漢語口語習用語의 화용적 분석	88
1. 사용 조건	88
1) 언어환경	88
2) 어휘의 선택	93
3) 固定格式	96
2. 표현 방식	98
1) 語氣	98
2) 語調	104
3. 화용적 기능	110
1) 인간관계의 유지	110
2) 완곡한 표현	112
3) 유창성 강화	114
4) 경제적 효과	118
5) 評價 기능	123
6) 文化 공감 기능	126
4. 삼입어로 사용될 때의 화용적 기능	129
VI. 結論	137
參考文獻	142
부록	151



漢語口語習用語 研究

— 어법, 의미, 화용을 중심으로 —

文 紅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指導教授：李 滢 鎬)

【 국문요약 】

본 논문은 漢語口語習用語에 관한 연구로, 口語習用語를 어법, 의미, 화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논문 중의 口語習用語의 예는 常玉鐘의 《口語習用語功能詞典》의 예를 기본으로 하고 劉德聯, 劉曉雨의 《漢語口語常用句式例解》의 예로 보충하였다. 또한 魯迅, 曹禺, 老舍, 賈平凹 등 근·현대 저명 작가의 작품에서 직접 예문을 발췌하고 정리하였고, 北京大學에서 개발한 語料庫의 언어 자료도 이용하여 예문으로 삼았다.

필자가 내린 口語習用語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口語習用語는 漢語 어휘 속에서 독립적인 언어 단위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고정어이다. 사용하는 글자가 간단하고, 종종 하나의 고정적이며, 完整한 단위로 사용된다. 어떤 언어환경에서 특수한 의미를 표현하며, 그 의미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있고, 형식과 언어환경, 의미가 고정된 언어 단위이다.

口語習用語는 어휘 중 成語, 歇后語, 諺語, 慣用語와 지위가 동등하며, 熟語의 하위에 분류될 수 있다.

口語習用語는 통사 분석 상 最小單位라고 할 수 있다. 口語習用語는 기본적으로

문장 속에 체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용언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으며 문장에서 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보어 등의 성분으로 충당될 수 있다. 이 외에도 口語習用語는 복문에 사용될 때 節과 의미관계의 일부로 충당될 수 있다.

더불어 일부 口語習用語는 단어로 변하는 어법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법화 과정에 있는 口語習用語는 구(短語)와 단어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口語習用語는 표면의미의 단순한 합이 아닌 실제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의미에는 기본의미와 부가의미가 있다. 口語習用語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표면의미는 은유, 환유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의미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口語習用語의 가장 두드러진 의미특징은 바로 의미의 融合性이다. 그 의미는 각 성분이 표시하는 의미의 기계적 합이 아니라, 어떤 언어환경 속에서 장기간 사용되어 형성되고 아울러 사회적으로 약속된 특정 함의를 담고 있다.

口語習用語는 특정한 언어환경에서 사용되며, 대명사, 의문사, 어기조사 등 특정한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블록형과 격자형 두 가지 고정된 형식을 통해 표현하는데, 그 구조는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의문문 형식의 口語習用語는 주로 반문을 나타낸다. 또한 口語習用語에는 특정한 어조(語調)가 사용되기도 하며, 휴지와 중음(重音), 억양(句調)으로 의미를 달리할 수도 있다.

口語習用語는 인간관계의 유지, 완곡한 표현, 유창성 강화, 경제적 효과, 평가 기능, 문화 공감 기능 등 다양한 화용적 기능이 있으며, 삽입어로 사용되는 口語習用語도 있는데 이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며 문장의 뜻을 원활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의사소통의 보조적 기능을 한다.

口語習用語의 어법 및 의미 특징을 파악하고 화용상의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좀 더 정확하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漢語口語習用語, 어법화, 표면의미, 실제의미, 의미의 융합성, 사용조건, 표현방식, 어기, 어조, 화용적 기능

I. 緒論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상의 담화과정에서 대화의 소통 도구로 어떤 구(短語)나 문장(句子)을 자주 사용한다. 이런 언어 단위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결합체의 하나로,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태도를 나타낸다.

老舍의 劇本 《茶館》에 쓰인 문장을 살펴보자.

① (원문) 常四爷 : 甬锁, 我跑不了。

宋恩子 : 量你也跑不了! (对松二爷) 你也走一趟, 到堂上实话实说,
没你的事。 —— 老舍 《茶館》

(번역문) 창 대인 : 수갑 채우지 마시오, 난 도망갈 수 없으니.

송언즈 : 도망은 못 칠 것도 같은! (송 대인에게) 당신도 한번 가야
하오. 관청에 가서 이실직고하면 **별 일 없을 거요.**

② (원문) 松二爷 : 这号生意又不小吧?

刘麻子 : **甜不到哪儿去**, 弄好了, 赚个元宝! —— 老舍 《茶館》

(번역문) 송 대인 : 이번 장사도 적지 않게 벌었겠군?

류마즈 : **신통치는 않아요**, 잘 하면 원보(元寶) 몇 푼 버는 거죠!

예문 ①의 ‘沒你的事’는 송언즈가 창 대인을 안심시켜주는 말로, 창 대인이 이 일은 당신과 관계가 없으니 연루될까봐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이며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語氣가 들어 있다.

예문 ②의 ‘甜不到哪儿去(신통치는 않다)’의 의미는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돈을 엄청 많이 벌수는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정도가 그리 높지는 못할 것임을 나타낸다.

위의 예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문 ① 속의 ‘沒你的事’의 의미는 ‘沒+你的事’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다. 즉 ‘당신의 일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예문 ② 속의 ‘甜不到哪儿去’의 의미도 ‘A+不到+哪儿+去’의 의미와 같지 않다. 즉 ‘A가 어디에 안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표면의미로만 이해한다면 우스꽝스러워 진다.

上述한 예처럼 중국어 구어 대화 속에는 이런 종류의 말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그러한 말은 그 구조와 의미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사용하는 글자가 소박하고 꾸밈이 없으며, 종종 일정한 언어환경(語境)¹⁾ 속에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와 평가를 나타낸다. 중국인들은 어떤 언어환경 속에서 이렇게 특정한 의미가 고정(凝結)되어있고 감추어져(隱含) 있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나타내는 표면적인 의미 이외의 함의를 해석하지 않아도 명백하게 이해한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예를 더 들어 보자. ‘哪里哪里’는 A가 B에게 아름답다고 칭찬하면 B가 ‘哪里哪里’라고 말한다. 이때 B는 A에게 어디가 아름다운지 묻는 것이 아니라 B가 겸손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 방식은 중국인들의 일상 대화에서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 ‘話是這麼說(말이 그렇다)’, ‘不見得(알 수 없다)’, ‘話又說回來(처음 주제로 다시 돌아가다)’²⁾, ‘不像話(말도 안 돼)’, ‘說話不算數(말에 책임지지 않는다)’, ‘愛理不理(본체만체 하다)’, ‘沒事找事(일을 만들다)’, ‘美得你(꿈도 크다)’ 등등이 있다. 이런 종류의 구를 사람들은 의사소통 시 임시로 결합할 필요 없이 전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런 구들은 오랜 시간동안 사용되면서 점차 특수한 고정어(固定短語)로 변하게 되었는데, 현재 중국 언어학계에서는 이런 종류의 고정어를 ‘漢語口語習用語’³⁾라고 일컫는다.

만약 우리가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러한 고정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도록 지도한다면, 중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现代汉语词典》에서 語境의 定义는, “使用语言的环境。内部语境指一定的言语片断和一定的上下文之间的关系, 外部语境指存在于语言片断之外的语言的社会环境(언어를 사용하는 환경. 内部语境은 일정한 언어 단락과 일정한 언어환경 간의 관계를 가리키며, 外部语境은 언어 단락 밖의 언어의 사회적 환경을 가리킨다.)” 《现代汉语词典》商务印书局, 2005, p.1665, 본 논문에서 가리키는 語境은 内部语境과 外部语境을 둘 다 포함한다. 이에 대해서는 第五章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2) 본 논문에서 예로 든 口語習用語의 한국어 의미는 언어환경과 의미 항목에 따라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다. ‘话说回来’는 第二章에 나온 예문에서는 ‘한편으로는’이라고 번역했고, 第五章에서는 ‘그런데’라고 번역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중국어와 한국어 사이에 의미의 비대칭성, 즉 일대 일의 의미 연결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중국에서 처음으로 口語習用語의 개념을 제기한 사람은 常玉钟이다. 常玉钟, 〈口语习用语略析〉, 《语言教学与研究》第二期, 1989

1. 研究現況

1989년 常玉鐘은 <口語習用語略析>⁴⁾에서 먼저 口語習用語의 어법, 의미, 수사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것과 다른 숙어(熟語)와의 경계를 밝혔다. ‘口語習用語’의 개념을 제기하면 적지 않은 熟語의 경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993년 北京語言學院出版社에서는 常玉鐘이 편집을 주관한 <口語習用語功能詞典>이 출판되었다. 常玉鐘은 최초로 口語習用語에 대해 체계적이고 폭넓게 연구하여 그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常玉鐘은 비록 처음으로 口語習用語라는 개념을 제기했지만 그가 더욱 강조한 것은 화용적 의미였으며 그 의미의 구성과 관계 및 화용적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없었다.

張風格은 <口語習用語的基本特征及其教學>⁵⁾에서 口語習用語의 형식상의 특징을 논했다. 또한 對外漢語教學에서 口語習用語를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教學法의 각도에서 유효한 제안을 했다. 그 후 口語習用語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張風格은 또 <口語習用語研究的兩個問題>에서 口語習用語를 成語, 諺語, 歇后語, 慣用語 등과 같이 모두 熟語의 한 종류라고 논증하였다. 張風格의 口語習用語 연구는 常玉鐘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張風格은 口語習用語의 분류 문제를 해결했지만 주로 口語習用語의 형식, 내부구조, 情態의미에만 치중하여, 口語習用語의 통사적 기능, 의미, 화용 기능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王勤은 <論慣用語>⁶⁾에서 ‘可不是(왜 아니겠어)’, ‘差不离(별 차이 없다)’, ‘恨不得(간절히 바라다)’, ‘什么的(같은 것)’, ‘巴不得(간절히 바라다)’, ‘眼見得(즉시)’, ‘大不了(별거 아니다)’, ‘不見得(알 수 없다)’, ‘了不得(예사롭지 않다)’ 같은 고정어를 제기하

4) 常玉鐘, <口語習用語略析>, 《語言教學與研究》第二期, 1989

5) 張風格, <口語習用語的基本特征及其教學>, 《漢語研究與應用》第二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7

6) 王勤, <論慣用語>, 《語文研究》第一輯, 1982, p.142

였다. 그는 이런 고정어가 비록 사회적으로 약속된 표현법이지만 구조(結構) 및 기능 등의 방면에서는 모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慣用語’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구성면에서 보자면 그것들은 ‘不’, ‘得’, ‘的’ 등과 같은 허사(虛詞)를 많이 사용하여 구성 요소로 삼고 구조적으로는 보충관계(補充關係)를 이룬다. 또한 지배(支配)와 수사관계(修辭關係)는 적으며 성분 사이에 의사 표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임의로 다른 성분을 삽입할 수 없다. 문장에서는 주로 일정한 어법 작용을 하며, 구성 요소에 이상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성(形象性)이 결여되어 있고, 생동감과 유머러스함(風趣)이 부족하며, 선명한 정태적 색채(情態色彩)는 더욱 없는 일종의 어법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慣用語와는 다른 口語習用語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王勤은 慣用語와 다른 口語習用語 개념으로 진일보한 연구에 이르지 못하였다.

劉叔新은 《漢語描寫詞匯學》에서 준고정어(准固定語)⁷⁾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汉语 중 일반적인 固定語는 成語, 慣用語 및 歇後語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학자들과 일반인들로부터 줄곧 등한시되어 왔다. 또는 부적절하게 成語나 慣用語 속에 편입되었다. 그것들은 사실 하나의 또 다른 종류로서 成語, 慣用語 등과 서로 병렬하는 준고정어(准固定語)인 것이다. 예를 들어, ‘小意思(별 거 아니다)’, ‘不消说(말할 필요 없다)’, ‘不象话(말도 안 된다)’, ‘不得了(굉장하다)’, ‘不是味儿(뭔가 아니다)’…… 등이 그것이다.’⁸⁾

사실 劉叔新은 실제로는 口語習用語의 특징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준고정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7) “准固定語有一定的完整性, 又具有同其他固定語一样的意义特征和结构形式特征, 是具备固定語的基本条件的。不妨把它看作固定語中不成熟的或处于边缘的类别。无疑, 由于已有一定的(虽然还不充分的)完整定型性而在构造上大于词却小于句子, 准固定語具有和其它固定語一样的相当于实词的功能。这就决定了, 把它看作固定語的一个类别远比与自由词组的范围合理, 也比定做固定語和自由词组之间的某种中介单位而排斥于固定語之外适当一些。” 劉叔新, 《漢語描寫詞匯學》(重排本), 商務印書館, 2005.10 第二版, p.171

8) ‘汉语中普通的固定語, 除去成語、慣用語和歇後語之外, 还有相当大的一部分一向被学者和一般人所忽略, 或者被不适当地轨道成語或慣用語中去。它们其实另成一类, 同成語、慣用語等相并列, 就是准固定語。如: 小意思、不消说、不象话、不得了、不是味儿……’ 劉叔新, 《漢語描寫詞匯學》(重排本), 商務印書館, 2005.10 第二版, p.169

丁洁(2006)은 <留學生漢語口語習用語塊習得研究>⁹⁾에서 口語習用語를 ‘한어의 미리 만들어진 말뭉치(漢語預制語塊)’의 한 종류로 보고 이러한 말뭉치로서의 口語習用語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논했다. 첫째, 최근 이십 여 년 동안 서양의 대규모 자연어 통계 분석에서 나타내는 바로는, 자연어 표현 중 70%는 언어의 ‘굳어진 표현 구조(板塊結構)’에 의지하여 실현되지, 어휘를 사용하여 어법에 따라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관습적 말뭉치(習用語塊)’의 습득에 대해 학생들이 의사소통 중 보다 정확하게 상대방의 의미를 이해하여 의사소통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중국어 표현도 더욱 유창하고 중국어다운 표현 습관에 한층 더 부합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丁洁은 口語習用語를 주로 教學의 각도에서만 연구하여 전반적인 口語習用語의 특징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粟甜(2007)은 <對外漢語教學中的口語習用語理解研究>¹⁰⁾에서 口語習用語의 언어 환경 및 透明度¹¹⁾에 대한 영향을 토론했다. 언어환경과 透明度를 이용하여 口語習用語 교학과 연구에 기여해야 하며, 표면의미와 함의간의 관계 밀접도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口語習用語에 대한 학습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粟甜은 口語習用語가 漢語 구어 속에서 중요한 지위가 있음을 주목하고 주로 教學의 각도에서만 연구하여 비체계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학자들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口語習用語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했지만 아직 단편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으며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 특히 口語習用語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기능, 의미 구성, 의미 관계, 화용적 기능 등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9) 丁洁《留學生漢語口語習用語語塊習得研究》，暨南大學碩士論文，2006.5

10) 粟甜《對外漢語教學中的口語習用語理解研究》，陝西師範大學碩士論文，2007.4

11) 粟甜은 구성된 각 형태소의 의미로부터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정도를 투명도라고 하였다. 口語習用語의 투명도란 口語習用語의 표면의미와 특수한 의미 간의 밀접한 정도를 가리킨다. 만약 口語習用語의 표면의미가 특수한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 “高透明度 口語習用語”라고 하고, 그 밀접도가 낮으면 “低透明度 口語習用語”라고 했다. 粟甜,《對外漢語教學中的口語習用語理解研究》，陝西師範大學碩士論文，2007.4, p.10

2. 研究目的

漢語口語習用語는 중국인의 일상 대화 속에 빈번하게 출현하고, 사용하는 글자는 대부분 사용빈도가 높은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인 話者는 자주 보아서 습관이 된 표현 형식이다. 그러나 외국 학생들은 오히려 습득하기가 어려워 口語習用語에 대한 이해와 운용에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중국어 학습자들이 중국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영화나 텔레비전을 볼 때, 어떤 단어(詞)는 개별 글자는 모두 아는 것인데 구로 구성되어 사용되면 무슨 뜻인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치 않고 사전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어, 중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이는 漢語口語習用語의 뜻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일정한 언어환경 아래에서 특정한 함의가 있고, 어떤 것은 하나에 여러 의미가 있으며 또 어떤 것은 語氣와 감정색채 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일정한 언어환경에서 이렇게 고정되고 특정한 함의가 있는 구를 해석할 필요 없이 그 고정적인 함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외국 학생들이 口語習用語를 배우는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사회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뗄 수 없는 것이 구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어 표현은 인류의 가장 직접적인 소통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구어 표현은 마치 사람들 사이의 원활유와 같다.

口語習用語는 독특한 표현색채와 효과가 있어 구어의 풍격과 특징이 두드러지고, 중국의 문화 및 지식 정보를 전달해 왔다. 그에 대한 숙달과 습득은 우리의 의사소통이나 漢語教學에 모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학계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漢語口語習用語의 定義와 범주를 설정하여, 漢語口語習用語의 기본적인 특징 설명과 口語習用語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연구하여, 중국어 학습자들의 구어 표현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한국 학생들이 漢語口語習用語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운용하여 의사소통상의 실수를 감소시키는 데 一助하고자 한다.

3. 研究範圍와 方法

본 논문은 이전의 학계 연구의 기초 위에, 통사적(句法), 의미적(語義), 화용적(語用) 세 가지 측면에서 漢語口語習用語를 연구한다. 즉 漢語口語習用語의 定義와 그것이 언어학 체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논하고, 그것과 단어, 일반구(一般詞組搭配) 및 다른 熟語와의 경계를 정한다. 아울러 口語習用語의 통사(句法)상의 관련 규칙을 분석하고, 의미(語義)와 화용(語用)상의 특징 및 기능을 설명한다.

본 논문 중의 口語習用語의 예는 常玉鐘 主編의 《口語習用語功能詞典》(北京語言出版社)와 劉德聯, 劉曉雨 編著的 《漢語口語常用句式例解》(北京大學出版社)에서 引用하였다. 또한 魯迅, 曹禺, 老舍, 賈平凹 등 근·현대 저명 작가의 작품에서 직접 예문을 발췌하고 정리하였고, 北京大學에서 개발한 語料庫의 언어 자료도 이용하여 예문으로 삼았다.

본 논문은 전체 六章으로 나뉘며, 第一章은 緒論 부분으로 口語習用語의 研究現況 및 그간의 연구 성과를 설명한다. 이어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을 밝힌다.

본 논문의 第二章은 우선 口語習用語의 定義를 명확히 한 뒤, 漢語口語習用語와 熟語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어휘 계통중의 地位를 확정한 다음 口語習用語를 단어, 일반구 및 成語, 諺語, 歇后語, 慣用語와의 비교를 통해 상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口語習用語만의 性質을 귀납하고 더 나아가 口語習用語의 경계를 정하고자 한다.

第三章은 口語習用語의 語法 기능으로, 口語習用語의 문장 구조 속에서의 어법 지위, 문장 중 기능할 수 있는 語法作用의 분석, 다시 말하면, 口語習用語 단위가 문장 속에서 어떤 성분으로 충당될 수 있는지, 어떤 성분으로 충당될 수 없는지, 다른 단어와 관계가 발생할 때, 어떤 단위와 결합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의 문장 속에 사용 가능한지 등의 분석을 통해, 口語習用語의 어법 특징을 고찰해 보고 語法化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第四章은 口語習用語의 표면의미와 실제의미 등 의미의 구성을 먼저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의미 관계와 의미상의 특징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각종 실례를 통해 비록 口語習用語가 단지 몇 개의 간단한 글자로 구성된 고정어로, 의미상

분할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이면서 각각의 단어를 단순하게 합한 의미는 아니지만 일반구로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은유나 환유로 寫像(mapping)되고 점차 고정되어 제3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또한 口語習用語로도 사용되고 일반구로도 사용되는 형태와, 口語習用語로만 사용되는 형태 등을 비교하여 口語習用語의 의미 특징을 살펴보았다.

第五章은 漢語口語習用語의 사용 조건과 표현 방식 및 화용적 기능을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口語習用語의 사용 조건에서는 언어환경과 어휘의 선택, 고정격식 등을 논하여 口語習用語가 어떠한 사용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표현 방식에서는 어기와 어조에 따라 口語習用語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각종 예문을 통해 口語習用語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유지, 완곡한 표현, 유창성 강화, 경제적 효과, 평가 기능, 문화 공감 기능 등도 분석할 것이다. 그 외에 삽입어로 사용되는 口語習用語의 화용적 기능도 분석할 것이다.

第六章은 결론 부분으로 본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I. 漢語口語習用語의 범주

1. 漢語口語習用語의 定義

常玉鐘은 〈口語習用語略析〉에서 처음으로 ‘口語習用語’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형식이 정해져 있고, 언어환경이 정해져 있으며, 의미가 정해져 있으며, 구성 성분과 어순이 고정적인 경향이 있다. 어떠한 언어환경에 사용하는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이미 언어 행위를 하는 중에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것들은 의사소통 중 임시적이고 자유로운 구에서 정형적이고 고정된 구로 변하면서 熟語의 성질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것은 成語, 諺語, 歇後語, 慣用語와는 또 다른 점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口語習用語라 부른다.¹²⁾

예를 들어 극본 《雷雨》第二幕 중에 나온 “誰知道(누가 알겠어)”, “你看你(이거 봐라)”, “就這樣(이렇게)”, “頂好(가장 좋은 것은)”, “告訴你(경고하다)”, “(A) 也好, (B) 也好(~도 괜찮고, ~도 괜찮다)”¹³⁾, “對了(맞아)”, “不敢說(말도 못 꺼내)”, “說是(~라 말하다)”, “有一天(언젠가)”, “放(A) 点(~좀 해라)” 등이 있다.

符淮青은 《現代漢語詞匯》에서 固定語 중의 ‘관습적 구(習用詞組)’를 언급했다. 예를 들어, “總的來說(전반적으로 말해서)”, “不是滋味(별로다)”, “又好气又好笑(화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다)”, “說什麼也不(뭐라 말해도 아니다)” 등등인데, “그것들은 일반구와 다르며, 그것들의 구성 성분과 결합 순서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보통 전체를 사용한다.”¹⁴⁾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들을 熟語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崔希亮이 《中國人文世界与漢語熟語》에서 熟語에 대해 내린 다음의 定義를 보면

12) “具有定形式、定语境、定语义的特点, 构成成分和语序趋于固定, 用在何种语言环境、表达何种语义已在话语实践中约定成俗, 它们在口语交际中, 由临时的自由的组合, 演变成了定型的现成的语句, 具有了熟语的性质, 而它们与成语、谚语、歇后语、惯用语又有所不同, 我们称它们为口语习用语。” 常玉钟, 〈口语习用语略析〉, 《语言教学与研究》, 1989 第二期, p.151

13) 하나의 口語習用語에서 가변적인 부분은 (A), (B) 등으로 표시하였다.

14) “它不同于自由组合的词组, 它们的构成成分和组合次序一般稳定, 一般整体使用。” 符淮青, 《现代汉语词汇》, 北京大学出版社, 2004, p.11

口語習用語의 특성도 일부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熟語란 가공되고 정련된 언어 형식을 가리키며, 그것들은 고정적인 표현 형식이다. 그것들은 비록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내용이 다르고, 사용범위도 다르지만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중에 천천히 고정되어 온 것이다. 각 熟語마다 모두 특정한 의미가 있는데, 종종 글자만 보고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없다. 구조면에서 그것들은 모두 자신의 특징이 있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예를 들면, 만약 말을 하는 것을 집이라고 한다면 단어는 집을 짓는 벽돌과 기와이며, 형태소(語素)는 벽돌과 기와를 만드는 재료이며, 어법은 집을 짓는 설계도이다. 그리고 熟語는 바로 프리캐스트 패널(預制板)¹⁵⁾이다. 그것들은 모양이 정해진 1차 제품이다. 熟語는 어휘 형식을 포함하며, 문장 형식도 포함한다.”¹⁶⁾

上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口語習用語에 熟語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종의 가공되고 정련된 언어 형식이자 고정된 표현 형식으로서, 비록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내용도 다르고, 사용범위도 다르지만 모두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중 천천히 고정되어 온 것들이다. 또한 口語習用語는 모두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종종 글자만 보고서는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없다. 구조면에서도 모두 독특한 특징이 있으며 임의로 변동시킬 수도 없다.

또한 符淮靑이 언급한 固定語 중 ‘관습적 구(習用詞組)’의 일부분은 口語習用語의 성질이 있으며 熟語에도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口語習用語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口語習用語는 漢語 어휘 속에서 독립적인 언어 단위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고정어이다. 사용하는 글자가 간단하고, 종종 하나의 고정적이며, 完整的 단위로 사용된다. 어떤 언어환경에서 특수한 의미를 표현하며, 그 의미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있고, 형식과 언어환경, 의미가 고정된 언어 단위이다.

口語習用語는 成語, 歇后語, 諺語, 慣用語 등과 지위가 동등하며, 똑 같이 熟語에

15) 미리 틀에 맞추어 조립한 부품.

16) “所谓熟语, 就是指加工提炼过了的语言形式, 它们是固定的说法。它们虽然长短不一, 内容不同, 使用范围不同, 但是它们都是在人们的长期习用中慢慢地固定下来的, 每一个熟语都表达一个特定的意思, 往往不能望文生义, 在结构上它们都有自己的特点, 不能随意改动。打一个比方, 如果说语言是一所房子, 那么词就是盖房子的砖瓦, 语素是制作砖瓦的原料, 语法是盖房子的图纸, 而熟语就是预制板, 它们是定型了的初级产品。熟语包括词汇形式, 也包括句子形式。” 崔希亮, 《中国人文世界与汉语熟语》,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1997, p.1

포함시킬 수 있다.

최근 십 몇 년 동안 중국 학계는 口語習用語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 학계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漢語口語習用語’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거의 없고, ‘漢語口語習用語’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잘못된 것도 아주 많다. 심지어 아직 통일된 명칭이 없고, 수많은 교재나 서적에서 일부 口語習用語를 ‘구어체’, ‘관용적 표현’¹⁷⁾, ‘관용어’ 또는 ‘관용구’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국에서 ‘관용어’나 ‘관용구’의 표면의미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이다. 그 예로 ‘발이 넓다’는 ‘사교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를 뜻하는 것 등이 있다.¹⁸⁾ 이 정의에 따르면 한국어의 ‘관용어’나 ‘관용구’는 중국어의 ‘口語習用語’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慣用語’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歇后語 같은 固定語도 포함한다. 하지만 漢語 言語學에서 慣用語는 ‘口語習用語’와는 다른 것이다. 각자의 지칭과 범위가 있으므로, 만약 ‘口語習用語’를 ‘관용어’ 또는 ‘관용구’라 부르면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常玉鐘이 제기한 ‘口語習用語’라는 용어를 원용하기로 한다.

2. 口語習用語의 地位

口語習用語가 그 定義에서 熟語에 속한다고 했으므로, 漢語 언어학 계통 속의 地位를 확정하려면 우선 熟語의 개념에 대해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으며, 口語習用語와 熟語의 관계를 이해해야 漢語 언어학 계통 속의 그 地位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符淮青은 《現代漢語詞匯》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7) 宋之賢, 《중국어실력 Upgrade》, 문제와연구사, 1998. p.120

18) 국립국어원 제공 네이버국어사전.

어휘(詞匯)는 언어 중의 단어와 고정어(固定語)를 포함한다.¹⁹⁾

固定語란 언어 속에서 단어를 구성 성분으로 할 수 있으며 단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체로서 운용하는 언어 단위를 가리킨다. 그것은 구조, 의미, 작용 상 자체의 특징이 있다. 固定語에는 대량의 전문 용어와 熟語가 포함되며, 일부의 '관습적 구(習用詞組)'도 固定語에 포함시킬 수 있다.²⁰⁾

符淮青의 서술을 통해 우리는 熟語가 固定語에 포함되고, 固定語는 또한 어휘 계통 안에 포함되어, 어휘 계통의 중요한 구성 부분임을 알 수 있다.

胡裕樹는 《現代漢語》에서 熟語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어휘 속에는 수많은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단어 외에도 이미 만들어진 구(詞組)들도 있다. 이것들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며, 언어의 건축 재료와 어휘의 구성 부분이 된다. 이것들을 熟語라고 총칭한다.²¹⁾

黃伯榮과 廖序東은 《現代漢語》에서 熟語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熟語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定型化된 고정어로, 일종의 특수한 어휘 단위이다. 따라서 熟語의 작용은 단어와 같은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언어 단위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어휘학 연구 대상이기도 하며 일반 어휘에 속한다.²²⁾

《語言學引論》에서는 “熟語는 언어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成語, 諺語, 慣用語 등등을 포함한다.”²³⁾ 라고 했다. 武占坤과 王勤은 《現代漢語詞匯概要》에서 熟語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언어 속의 熟語(成語, 諺語, 歇後語, 慣用語 등 포함)도 언어의 건축 재료이다. 그것의 문장 구성 기능은 단어와 같다. 그 형식과 구조상의 固定性, 사용상의 편리성(現成性)도 단어와 같다. 그것은 단어의 등가물(等價物)이며, 구조상 단어의 전체적인 문장 구성 부품보다는 크다. 따라서 熟語도 어휘 성분의 일종으로, 그것을 어휘 체계 밖으로 배제시킬 수 없다.²⁴⁾

19) “词汇包括语言中的词和固定语。” 符淮青, 《现代汉语词汇》, 北京大学出版社, 2004, p.9

20) “固定语是指语言中可以把词作为构成成分的、同词一样作为一个整体来运用的语言单位;它在结构、意义、作用上有自己的特点。固定语包括大量的专门用语和熟语, 一些习用词组也可归入固定语。” 符淮青, 앞의 책, p.9

21) “词汇当中, 除了许多独立运用的词以外, 还有一些固定词组为一般人所经常使用的, 也作为语言的建筑材料和词汇的组成部分, 这些总称熟语。” 胡裕树, 《现代汉语》, 上海教育出版社, 1981, p.298

22) “熟语是人们常用的定型化了的固定短语, 是一种特殊的词汇单位。由于熟语的造句作用相当于词, 人们把它当作一个语言单位来用, 因而, 也是词汇学研究的对象, 属于一般词汇。” 黃伯榮、廖序東, 《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社, 2007.6 第四版, p.266

23) 晁继周, <二十世纪的现代汉语词汇学> 《二十世纪的中国语言学》, 北京大学出版社, 2004.8, p.408 재인용

孫維張은 《漢語熟語學》에서 熟語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熟語의 각 종류들, 成語, 慣用語, 歇后語든지 아니면 諺語나 格言 등은 그 구조적 특성과 化용적 특성은 모두 단어의 固定組合과 일치한다. 따라서 그 언어적 성질로 보면 熟語는 의심할 것 없이 단어의 固定組合에 속하는 언어 단위로, 단어의 固定組合의 일종이다.²⁵⁾

孫維張은 또 《漢語熟語學》에서 熟語를 屬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成語, 慣用語, 歇后語, 諺語(諺語), 格言은 서로 본질적인 특징에서 상이한 면이 있다. 따라서 각자 한 종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서로 동등한 본질적 특징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큰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큰 부류에 대해 熟語라고 명명한다.²⁶⁾

張風格은 <口語習用語研究的兩個問題>²⁷⁾에서 熟語를 固定語에 포함시키고, 口語習用語를 熟語에 포함시켜, 成語, 諺語, 歇后語 및 慣用語 등과 같이 모두 熟語의 한 종류라고 상세하게 논증했다.

위에서 서술한 바를 종합하면, 熟語는 어휘의 일종이고, 固定語에 포함되며, 成語, 諺語, 歇后語, 慣用語 등의 상위에 있으며, 成語, 諺語, 歇后語, 慣用語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口語習用語도 熟語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4) “语言中的熟语(包括成语、谚语、歇后语、惯用语等)也是语言的建筑材料,它的造句功能相当于词,其形式、结构的固定性、使用的现成性,也同于词。它是词的等价物,是结构上大于词的整体性的造句部件。所以,熟语也是词汇成分的一种,不能把它排斥于词汇体系之外” 晁继周, <二十世纪的现代汉语词汇学>《二十世纪的中国语言学》,北京大学出版社, 2004.8, p.405 재인용

25) “熟语的每一个小类,无论是成语、惯用语、歇后语,还是谚语、格言,其结构特点和语用特点都与词的固定组合一致,因而就其语言性质来看,熟语无疑是属于词的固定组合一类的语言单位,是词的固定组合的一种。” 孙维张,《汉语熟语学》,吉林教育出版社, 1989.5, p.8

26) “成语、惯用语、歇后语、谚语、格言,彼此在本质特征上有不同之处,因此可以各自成为一类,但它们之间还有相同的本质特征,所以可以划为一个大类。我们对这个大类就用熟语来命名,.....” 孙维张,《汉语熟语学》,吉林教育出版社, 1989.5, p.

27) 张风格, <口语习用语研究的两个问题>,《语言文字应用第二期》, 2005.5. p.50

3. 口語習用語의 區分

口語習用語와 熟語의 種屬 關係를 분명히 한 뒤, 더 나아가 口語習用語의 境界를 구분 지어야 한다. 어떻게 漢語口語習用語를 식별하며, 口語習用語는 어떤 성질의 언어 단위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려면 口語習用語와 동등하거나 비슷한 단위로부터 口語習用語를 구별해내야 한다. 즉 그것들의 공통점과 서로간의 境界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필자는 口語習用語를 단어, 일반구 및 成語, 諺語, 歇後語, 慣用語 등과의 비교를 통해 口語習用語의 운용 특징 및 성질을 밝혀 口語習用語의 境界를 분명히 하려 한다.

1) 口語習用語와 단어

口語習用語는 固定語로서 구조가 고정적이며 대단히 안정적인 어음 형식과 의미를 갖추고 있다. 어휘 계통 중에는 단어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완전한 정형적인 언어 재료 단위들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하나의 전체로 사람들에게 의해 이해되고 파악된다. 또한 독립적인 구(短語)로 나타나며,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된 口語習用語와 단어는 통사 분석에서 모두 최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모두 통사 분석의 최소 단위인 것이다. 왜냐하면 口語習用語가 비록 단어들로 구성되어 어떤 口語習用語 속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일정한 구조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런 구조 관계는 그 내부 구조로서, 그것에 통사 구조를 도입하면 오히려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사 구조를 분석 할 때 그것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문장에서 口語習用語의 역할이 대체로 단어에 상응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口語習用語는 문장 속에서 충당하는 성분의 능력이 일반적인 단어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口語習用語와 단어는 위에서 말한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도 많이 있다.

첫째, 口語習用語와 단어의 구성 성분이 다르다는 점이다. 단어의 구성 성분은 형태소(語素)인데, “형태소는 언어 속에서 최소의 어법 단위로 의미상 더 이상 분석

할 수 없는 단위다.”²⁸⁾ 형태소 자체는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단지 단어의 구성 성분만 되지만 단어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최소의 의미 단위이다. 劉叔新은 《漢語描寫詞匯學》에서 단어의 범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단어는 반드시 일종의 최소의 완전한 정형적인 재료 단위여야 한다. 소위 ‘최소’란 그 자체로 더 이상 두 개 또는 더 많이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하고 정형적인 언어 재료 단위이다.”²⁹⁾

口語習用語의 구성 성분은 비록 단어라고 하더라도 주로 허사로 구성되며 일부만 실사인데, 이 점도 다른 熟語와 현저하게 다른 점이다. 또한 그 단위 자체도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단어를 포함하므로 구조적으로 단어보다는 크다.

둘째, 단어는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규칙성(規律性)이 강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모두 일정한 어법 규범에 따라 분석이 가능하지만, 口語習用語의 내부 구조는 비교적 복잡하고 형태론 규칙에 맞지 않는 것도 존재하여, 일반적인 형태론 규칙을 사용하면 분석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不好意思(겸연쩍다)’, ‘活該(고소하다)’, ‘話說回來(처음 주제로 돌아가다)’ 등은 구조 분석을 할 방법이 없다.

셋째, 口語習用語와 비교해서 단어는 의미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이다. 각각의 의미 항목(義項)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口語習用語의 의미 구조와 내용은 복잡한 편이며, 일반적인 단어의 범위를 뛰어 넘는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口語習用語와 단어는 언어의 재료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많은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즉, 이들은 성질이 서로 다른 어휘 단위라고 설명할 수 있다.

28) “语素是语言中最小的语法单位, 是意义上不能再分析的单位” 房玉清, 《实用汉语语法》, 北京大学出版社, 2001.7, p.17

29) “词必须是一种最小的完整定型材料单位。所谓“最小”, 就是本身不能再分出两个或更多个完整定型语言建筑材料单位” 刘叔新《汉语描写词汇学》, 商务印书馆, 2005, p.33

2) 口語習用語와 일반구

다음으로는 口語習用語와 일반구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아래의 두 예문을 비교해 보자.

① (원문) 第三天, 她竟然又来了。和第二天一样, 她让我给她画了肖像后又走了。

-- 北大语料库

(번역문) 셋째 날 그녀가 뜻밖에도 또 왔다. 둘째 날과 같이 그녀는 나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한 후 또 갔다.

② (원문) 陈白露：你很相信你自己的聪明。

方达生：竹均, 你又来了。不, 我不聪明。但是我相信你的聪明。

-- 曹禺, 《日出》

(번역문) 천바이루 : 자신의 똑똑하다는 것을 당신은 무척 신뢰하는군요.

팡다성 : 주권, 당신 또 시작이군. 그렇지 않소, 난 똑똑하지 않소, 하지만 난 당신의 똑똑함을 믿어요.

예문 ①의 “又来了”는 수식구조(偏正结构)의 일반구이다. 여기서는 표면의미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뜻은 그가 이번 이전에 온 적이 있고, 지금 또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문 ②의 “又来了”는 口語習用語로 固定組合이다. 천바이루는 항상 팡다성이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팡다성은 이를 부정한다. 상대방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하거나 행동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 또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아래의 두 예문을 다시 비교해보자.

③ (원문) 我告诉你一个好消息, 小张和小王要结婚啦!

(번역문)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 줄게, 샤오장과 샤오왕이 결혼할거래!

④ (원문) **告訴你**, 老爷子, 好好的日子可别自找不顺序, 我可没招谁惹谁, 凭什么没人要? --老舍 《骆驼祥子》

(번역문) **잘 들으시오** 영감, 잘 살다가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내가 누굴 건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요?

예문 ③과 예문 ④ 속의 “告訴你”는 모두 술보관계이다. 하지만 예문 ③ 속의 “告訴你”는 일반구로 표면의미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즉 “~에 대해서 알려 주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예문 ④에서는 口語習用語로 고정어이다. 언외의 뜻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경고, 훈계를 표시하며, 위협의 語氣가 있다.

위에서 비교한 것으로부터 필자는 아래의 몇 가지 면에서 口語習用語와 일반구와의 차이점을 구분하였다.

첫째, 임시성(臨時性)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일반구는 일종의 임시적인 결합이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사 전달 필요에 근거하여 임시로 단어들을 결합해 함께 둔 것이다. 문장에 들어갈 때 함께 결합되어 일정한 언어 단위로 형성되나 문장에서 벗어날 때는 서로 흩어진다. 또한 일반구 속의 단어는 다른 의사 전달 요구에 근거하여 각자 다른 단어들과 임시로 결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又”는 “又大又高(크기도 하고 높기도 하다)”, “又上去了(또 올라갔다)”, “又變了(또 변했다)” 등등으로 결합될 수 있다. 또 “來”도 “回來(돌아오다)”, “上來(올라오다)”, “買來了(사 왔다)” 등으로 결합될 수 있다. 의미 항목은 여전히 각각 다른 것과 결합할 수 있어 일반구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단위가 아니라 임시적인 결합인 것이다.

그러나 口語習用語는 일반구와 다르다. 口語習用語는 임시적인 결합이 아니라 언어계통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고정 단위이다. 문장 구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완전히 결합된 단위이다. 말하는 사람은 의사 전달의 필요에 근거해서 직접적으로 口語習用語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다시 결합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둘째, 자유성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대부분의 일반구 속에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 자유롭다. 소위 자유롭다는 것은 운용할 때 단어와 단어 간에 서로 의존 관계(依附關係)가 없다는 것이다. 각각의 단어는 자신의 운용상의 독립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 만약 단어와 단어의 결합 관계가 해제되어도 그 단어들은 여전히 원래의 의미를 보유한다. 예를 들어 예문 ① 속의 “又來了”는 “又” + “來” + “了”의 세 개의 단어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들이 함께 결합된 것은 말하는 사람이 그러한 표현의 필요와 표현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 결코 “又”가 반드시 “來”, “了”와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일반구는 의사 전달의 필요에 근거하여 결합 성분 간의 관계를 바꾼다. 예를 들어 “我去過北京(나는 북경에 가 보았다)”은 “北京我去過(북경은 내가 가 보았다)”로 바꿀 수 있다. 대상 목적어(受事賓語) “北京”이 대상 주어(受事主語)로 변했다. 문장도 술목술어구(述賓謂語句)에서 주술술어구(主謂謂語句)로 바뀌었다. 하지만 관계는 변해도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의사소통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외에도, 일반구 속에는 말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몇몇 성분들을 임시로 첨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의미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문 ①의 문장은 “她又來看你了”로 바꿀 수 있으며, 예문 ③의 문장도 “他告訴我一個好消息”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일반구는 의미를 제대로 결합하고, 어법 관계가 부합되기만 하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그 중의 성분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口語習用語 속의 단어와 단어의 결합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들은 서로 간에 대단히 큰 의뢰관계(依附關係)가 존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口語習用語는 일반구와 비슷하게 보이는데, 구조적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 또는 글자(字)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 사이의 단어들이 일단 熟語로 결합되고 나면 그것들의 구조는 바로 고정되어 버린다. 일반적으로 문형(句型)이나 단어에 변형 및 이동이 불가능하다. 마치 형태소(詞素)와 형태소(詞素)가 결합되어 단어가 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일반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口語習用語는 말하는 사람이 그 속의 성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비록 의미 결합(詞

義搭配)과 어법 관계(語法關係)가 모두 허락되는 상황일지라도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그 속의 어떤 단어를 없애버리거나 어떤 격식을 벗어난다면 원래의 의미는 소실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문 ② 속에 있는 성분을 첨가하거나 바꾸기는 아주 어렵다. 또한 예문 ④도 “我告訴老爺子”로 바꿀 수 없다. 그 속의 각 성분들은 모두 마음대로 변동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口語習用語에 있는 이 固定組합은 일상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이 전체를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나타내는 의미가 표면의미의 단순한 합인가의 여부이다.

일반구가 나타내는 의미는 표면의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일반구에서 단어와 단어는 비록 일종의 제약 관계에 놓여 있지만 각 단어들이 모두 자신의 의미 및 운용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서로 간에 정상적인 어법 관계를 발생시킬 뿐 다른 관계는 없다. 그래서 결합이 비교적 느슨하고 자유롭다. 만약 그들 사이의 결합 관계를 제거해도 각 단어들은 여전히 문장 속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口語習用語가 표현하는 의미는 표면의미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그것은 종종 표면의미 이외의 뜻을 나타내므로, 단어와 단어들이 일종의 긴밀하게 연결된 고리처럼 놓여 있어 각 단어들이 운용상의 독립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또한 의미상 어떤 口語習用語는 근본적으로 독립성을 잃어버렸으며, 어떤 것은 겨우 半獨立性 또는 상대적인 獨立性만 있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어법 관계 외에도 습관적인 사회적 약속 관계도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口語習用語는 표면적으로는 어법 규칙에 부합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표면의미 이외의 의미일 때가 많다. 아래의 예문을 비교해 보자.

⑤ (원문) 胡四：去你的，谁问你啦？ —— 曹禺《日出》

(번역문) 胡四：저리 꺼져，누가 너한테 물었대?

⑥ (원문) 去你的学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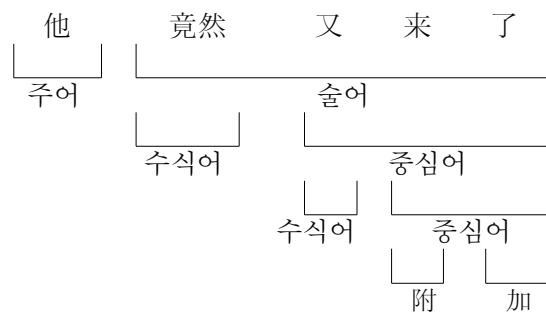
(번역문) 너의 학교에 가라。

예문 ⑤ 안에 있는 口語習用語 “去你的”는 “저리 가”라는 의미로, 반대와 제지를 표시한다. 언어환경에 따라 친한 사람에게 애교 섞인 나무람의 語氣가 있다. 만약 이 세 글자의 결합을 해체시킨다면 이런 의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예문 ⑥에 있는 “去+你的+學校”는 일반구로, 그 의미는 표면의미의 단순한 합이다. 즉 “너의 학교에 가라”라는 의미가 되는데, 단어들의 결합 관계를 해체시킨다 하더라도 각각의 단어들은 여전히 문장 속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넷째, 통사 分析의 최종 단위이나 여부이다.

일반구는 비록 문장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지만, 통사 分析의 최종 단위는 아니다. 문장에 대해 통사 分析을 할 때, 문장 성분이 되는 단어의 자유로운 결합에 대해 여전히 통사 分析을 할 수 있으며, 단어에 이를 때까지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문 ①의 “他竟然又來了”는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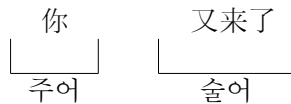
이렇게 문장을 분석하면 우리는 이 문장의 각기 다른 층차의 단어와 단어의 통사 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떤 口語習用語의 固定組合은 완전히 습관에 근거하여 조성된 것으로, 일반적인 어법 관계를 사용해서 분석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것들은 문장의 직접적인 구성 성분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통사 分析의 최종 단위로 문장 구조(句子結構) 속의 기능이 하나의 단어와 같다. 그것은 하나의 독립적이고 완전한 최소의



의미 단위 신분으로 문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문 ②의 “你又來了”의 통사구조 분석은 아래와 같다.

<그림 2>



위의 통사 分析 중, “又來了”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 비록 그 내부에 일정한 통사 관계가 존재하며,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분석은 문장의 의미와 어법 관계를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내부 구조는 일반구처럼 그렇게 문장의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보편성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이다.

口語習用語의 수량은 아주 유한하여 대부분 일반적인 일상 대화 속에서만 출현한다. 반면에 일반구는 일상생활에서 정치, 경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보편성이 있고,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吃飯睡覺”, “首腦會議”, “電影明星” 등은 각종 修辭나 서면어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구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3) 口語習用語와 기타 熟語

口語習用語가 成語, 諺語, 歇后語, 慣用語와 함께 熟語에 속하므로, 우리는 口語習用語를 다른 熟語 중에서 成語, 諺語, 歇后語, 慣用語와 음절, 유래, 수사 수법, 구조 및 구성 성분의 차이를 비교하여, 口語習用語의 특징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口語習用語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먼저 成語, 諺語, 歇后語, 慣用語의 상황을 보자.

첫째, 成語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現代漢語詞典》의 해석에서 成語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람들이 장시간동안 습관적으로 사용한 간결하고 정밀한 정형적인 구이다. 漢語의 成語는 대부분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두 출처가 있다. 어떤 成語는 표면적인 이해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小題大做(사소한 일을 떠들썩하게 굴다)”, “後來居上(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다)” 등이다. 어떤 成語는 반드시 유래나 典故를 알아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朝三暮四(조삼모사)”, “杯弓蛇影(괘히 놀라거나 두려워하다)” 등이다.³⁰⁾

馬國凡과 高歌東은 《慣用語》에서 成語의 고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成語는 각종 고정어 중 定型性이 가장 강하다. 成語는 의미가 정형적일뿐만 아니라 구조에 있어서도 정형성이 대단히 강하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예를 들어 수사상의 필요) 구조의 성분 또는 구조의 관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³¹⁾

成語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典故로부터 유래했으며, 의미가 간결하고, 書面語의 색채가 비교적 짙다. 또한 비유적 역할도 있다. 예를 들어 “叶公好龍”은 어떤 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그 사물과 맞닥뜨렸을 때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위축된다는 것을 비유한다.

成語는 외형상 비교적 고정적이며, 글자의 수에 있어서 대다수가 네 글자로 구성된 언어 단위이다. 문장에서 보통 전체를 통째로만 사용할 수 있지 그 속의 일부 성분을 변동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胸有成竹(일을 하기 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을 “胸有成樹” 또는 “腦有成竹”라고 말할 수 없다. 또 “刻舟求劍(각주구검)”도 “刻舟求刀”나 “刻木求劍”이라고 말할 수 없다. “守株待兔(수주대토)”도 “守株待猪”나 “守竹待兔”라고 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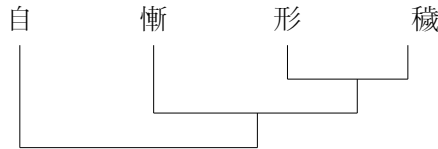
또한 구조면에서 보면 成語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결합이 어법 규칙에 부합된다. 그것은 주술구조(主謂結構)를 포함하는데 “身臨其境(어떤 입장에 서다)”이 그 예가 되며, 술목구조(述賓結構)로는 “不知所措(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있으며, 술보구조(述補結構)로는 “迫在眉睫(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등이 있다.

30) 成語：人们长期以来习用的、简洁精辟的定性词组或短语。汉语的成語大多由四个字组成，一般都有出处。有些成語从字面上不难理解，如“小題大做”、“後來居上”等。有些成語必須知道来源或典故才能懂得意思，如“朝三暮四”、“杯弓蛇影”等。《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2005，p.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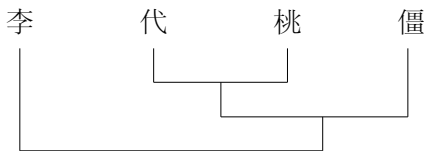
31) “成語的定型性是各類固定詞組里最強的。成語不僅意義定型，結構上定型也極嚴。除在特殊情況下（如修辭上的需要）不能任意改動結構成分或結構關係。”馬國凡·高歌東，《慣用語》，內蒙古人民出版社，2000.10，p.121

어떤 成語는 구조 관계가 비교적 복잡하다. 네 음절 단음 성분으로 이루어진 成語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삼층 관계이다. 예를 들면,³²⁾

<그림 3>



<그림 4>



成語의 유래는 다양한데, 歷史典故 분야로는 “狡兔三窟(교활한 토끼는 굴 세 개를 파 놓는다)”, “四面楚歌(사면초가)”, “退避三舍(남에게 양보하고 다투지 않다)”, “草木皆兵(매우 놀라서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등이 있으며, 寓言故事 분야는 “刻舟求劍(각주구검)”, “畫蛇添足(사족을 달다)”, “拔苗助長(일을 급하게 이루려다 오히려 그르치다)” 등이 있다.

두 번째, 諺語에 대해 살펴보자.

‘諺語’는 ‘俗語’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구두로 전해오는 말의 일종이며, 지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사람들의 장기간에 걸친 경험의 총결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路遙知馬力, 日久見人心(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은 하나의 지식을 전하고 있으며,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장시간의 검증을 통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32) 馬國凡·高歌東, 《慣用語》, 內蒙古人民出版社, 2000.10, p.125

《現代漢語詞典》에서는 ‘諺語’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군중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고정어로, 간단하고 통속적인 말로 심오한 이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三个臭皮匠, 赛过诸葛亮(갓바치 셋이면 제갈량보다 낫다)”, “三百六十行, 行行出状元(직업마다 전문가가 있다)”, “天下无难事, 只怕有心人(세상에 어려운 일은 없다, 마음먹은 사람이 무서울 뿐이다)”³³⁾

馬國凡과 高歌東은 《慣用語》에서 諺語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諺語’는 외형적으로 비교적 고정적인데, 일반적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종종 나란하게 대칭을 이룬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결합은 비교적 합리적이며 통사 규칙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畫虎畫皮難畫骨, 知人知面不知心”은 한 사람을 알기는 쉽지만 한 사람의 내심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비유한다. 또 “冰凍三尺, 非一日之寒”은 사태의 심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형성된 것임을 비유한다. 이는 모두 사물의 이치와 관련된 뜻을 담고 있다. 그 외에 ‘諺語’는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문장 속에서 종종 단독으로 문장을 이룬다. ³⁴⁾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只听见檐外老鸦“呱呱”的叫了几声, 便飞向东南去。宝玉道: “不知主何凶吉?” 黛玉道: “人有吉凶事, 不在鸟音中。”

-- 《紅樓夢》第九十一回

“人有吉凶事, 不在鳥音中(사람의 길흉은 새 우는 소리에 달려있지 않다)”는 대옥이 諺語 한 구절을 사용하여 보옥의 질문에 대답한 것으로 諺語 한 마디가 바로 하나의 문장인 것이다.

33) 諺語在群众中间流传的固定语句, 用简单通俗的话反映出深刻的道理。如“三个臭皮匠, 赛过诸葛亮”、“三百六十行, 行行出状元”、“天下无难事, 只怕有心人”。《现代汉语词典》, 商务印书馆, 2005, p.1573

34) “俗语的外形上较固定, 一般由两个句子组成, 前一句和后一句的句式往往整齐对称, 词与词之间的搭配较合理, 符合语法规则, 如, “画虎画皮难画骨, 知人知面不知心”, 比喻认识一个人容易, 了解一个人的内心却难。又如“冰冻三尺, 非一日之寒”, 比喻事态的严重不是一时所致而是长期形成的。这都有事理意义。另外, 俗语多为短句, 在句中使用时往往单独成句。”马国凡、高歌东, 《惯用语》, 内蒙古人民出版社, 2000.10, p.144

溫端政은 《漢語語匯學教程》에서 諺語의 성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諺語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첨가하거나 변동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殺鷄焉用宰牛刀(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있나)”를 “殺鷄焉用宰猪刀”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일부는 약간의 변동이 가능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心急吃不了熱豆腐(마음이 급하면 뜨거운 두부를 먹을 수 없다)”는 “心急吃不得熱粥(마음이 급하면 뜨거운 죽을 먹을 수 없다)”나 “心急吃不上熱饅頭(마음이 급하면 뜨거운 만두를 먹을 수 없다)” 등으로 바꿀 수 있다.³⁵⁾

또한 武占坤은 《漢語熟語通論》에서 諺語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諺語는 사람들이 생산 활동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경험으로 얻은 것으로, 사물 자체에 내재해 있는 실질적인 것이나 사물 간의 필연적인 연결성을 반영하며, 스스로 발전하고 운동하는 규범성도 반영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과 생산에 가르침을 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³⁶⁾

諺語의 기원은 다양한데, 농사 방면에서 온 것으로 “谷雨前后, 种瓜点豆(곡우 전우는 참외와 콩을 심는다)”가 있다. 이 諺語는 中國 華北 지역의 파종 시기의 규범을 반영한다.

또한 기상 방면에서 온 것으로는 “冷在三九, 熱在中伏(삼구가 제일 춥고, 삼복이 제일 덥다)”이 있다. 이는 일 년 중 춥고 더운 일반 기후의 규범을 과학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 밖에 사회, 정치, 생활 방면에서 온 것도 있다. 예를 들어 “疾風知勁草, 烈炎識眞金(세찬 바람이 불어야 억센 풀을 알 수 있고, 맹렬한 불속에서야 순금을 알 수 있다)”은 사람들의 인품의 진위와 선악은 엄격한 시험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상이 드러난다는 것으로 생활의 지혜를 담고 있다.

35) “俗语的成分一般不加以随意变动, 如“杀鸡焉用宰牛刀”不能说成“杀鸡焉用宰猪刀”, 但也有少数可以有稍微的变动, 如, “心急吃不了热豆腐”可以说成“心急吃不得热粥”或“心急吃不上热馒头。” 溫端政, 《汉语语汇学教程》, 商务印书馆, pp.161-162

36) “俗语是人们在生产或社会生活中总结经验得来的。它们反映了事物本身内在的实质, 反映了事物之间的必然联系性, 及自身发展运动的规律性。故而对指导人们的生活和生产实践都具有重要意义。” 武占坤, 《汉语熟语通论》, 河北大学出版社, 2007.6, p.63

셋째, 慣用語에 대해 살펴보자.

《現代漢語詞典》의 해석에 따르면 慣用語는 熟語의 일종으로 대부분 口語色彩가 농후한 固定語로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며, 비유적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開夜車(밤새다)”, “扯后腿(발목 잡다)”, “賣關子(뜸을 들이다)” 등이다.

慣用語도 口語에서 주로 사용하며, 비유적 기능이 있고 어떤 것은 고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烏紗帽”는 고대에 관원이 쓰던 관모를 가리키는데, 오늘날의 관원들은 더 이상 “烏紗帽”를 쓰지 않지만 여전히 “戴烏紗帽”를 사용하여 관리가 되는 것을 비유한다.

대부분의 慣用語의 字數는 세 글자로 “烏紗帽(관모)”, “走后門(연줄을 대다)”, “搖錢樹(돈줄)”, “炒魷魚(해고하다)” 등이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은 네 글자 혹은 네 글자 이상인 것도 있다. 예를 들어 “戴高帽子(비행기를 태우다)”, “唱對台戲(각을 세우다)” 등이 있다.

내부 구조 관계상 慣用語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결합은 어법 규칙에 부합된다. 예를 들어, “烏紗帽”는 수식관계(定中關係)로 한정(偏正) 구조이다. “走后門”은 술목(述賓) 구조이다. 慣用語는 상대적으로 定型性이 있으며, 동목(動賓) 구조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穿小鞋(골탕 먹이다)”는 “穿了很長時間小鞋(오랫동안 골탕 먹었다)”, “穿了一輩子小鞋(평생 괴롭힘을 당했다)” 등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慣用語 속의 성분을 다른 단어로 마음대로 변환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碰釘子(퇴짜맞다)”는 “敲釘子(못을 두드리다)”라고 바꿀 수 없으며, “炒魷魚(해고하다)”를 “炒帶魚(갈치를 볶다)”로 바꿀 수 없다.

기원으로 말하자면 慣用語의 범위는 아주 넓은데, 일상생활에서 유래한 것으로 “吃現成飯”은 본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가리키는데, 지금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앉아서 그 성과를 누리는 것을 비유한다.

典故나 傳說에서 유래한 것으로는 “空城計”는 《三國演義》에서 유래되었다. 먼저 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역량이 부족함을 감춘다는 것을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방언에서 유래된 것으로는 “窩囊廢”는 북방 방언으로 비겁하고 무능한 사람을 가리킨다.

넷째, 歇后語에 관해서 알아보자.

《現代漢語詞典》에서 歇后語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歇后語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앞부분은 수수께끼의 문제와 같고, 뒷부분은 수수께끼의 답과 같다. 통상적으로 앞부분만 말하지만, 본뜻은 뒷부분에 있다. 예를 들어 “泥菩薩過江——自身難保(진흙 보살이 강을 건너다—자신을 보존하기 어렵다)”, “外甥点灯笼——照旧(舅)(조카가 초롱을 켜다—원래대로)” 등이 있다.³⁷⁾

崔希亮은 《中國人文世界与漢語熟語》에서 歇后語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歇后語는 앞과 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歇面’이라 부르고 뒷부분은 ‘歇底’라 부른다. ‘歇面’ 부분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정서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말하는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의 중점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의 중점은 ‘歇底’ 부분에 있다. 즉, 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뒷부분의 의미인 것이다. 단지 말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을 뿐이다. 먼저 비유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이 비유와 ‘歇底’ 사이의 관계를 연상해 내게 한다. 그리하여 일종의 특수한 표현 효과를 실현하는 것이다.³⁸⁾

歇后語는 口語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며, 언어가 유머러스하고 이미지화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물을 빌어 다른 사물을 풍자하며, 비유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黃鼠狼給鷄拜年——沒安好心”은 표면적으로는 친하고 선량하나 실제 마음속에는 악의를 품고 있음을 비유한다.

歇后語도 구조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이지만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앞부분은 비유이며 뒷부분은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啞巴吃黃連——有苦說不出(병어리가 황련을 먹다—괴로워도 말을 못하다)”, “黃鼠狼給鷄拜年——沒安好心(죽제비가 닭에게 세배하다—좋은 마음이 없다)” 등이다. 일부 상용되는 歇后語의 뒷부분은 생략할 수 있는데, 이는 누구나 ‘歇底’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豬八戒照鏡子——(里外不是人)(저팔계가 거울을

37) “歇后语有两个部分组成的一句话，前一部分像谜面，后一部分像谜底，通常只说前一部分，而本意在后一部分。如“泥菩薩過江——自身難保”、“外甥点灯笼——照旧(舅)”。”《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2005，p.1505

38) “歇后语由前后两个部分构成，前一部分叫做歇面，后一部分叫做歇底。歇面部分给人一个具体的意象，但是它们并不是说话人表意的重点，说话人的表意重点在歇底部分，也就是说，说话人真正想说的是后面的意思，只不过说话人不直接把它说出来，而是先设一个比喻，让人联想到这个比喻与歇底之间的联系，从而实现一种特殊的表达效果。”崔希亮(1997)， 앞의 책， p.227

보다--안팎으로 사람이 아니다”, “黃鼠狼給鷄拜年--(沒安好心)” 등이다.

내부 구조면에서 보자면 歇后語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결합은 어법 규칙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啞巴吃黃連”은 주술목(主謂賓)의 기본 구조에 속한다.

慣用語, 成語, 諺語, 歇后語 등과 비교해서 口語習用語는 형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³⁹⁾

첫째, 口語習用語의 音節은 일정하지 않다. 어떤 것은 두 音節이며, 어떤 것은 세 音節, 심지어 그 이상인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① (원문) 女：小董，你看小刘来了。

男：他可真行，现在才来。

(번역문) 여：샤오둥, 봐라 샤오리우 왔어.

남：정말 잘 났어, 이제 서야 오다니.

② (원문) 男：我真不明白冬天去海边的人的心理， 夏天去才好玩呢。

女：那可不见得。

(번역문) 남：겨울에 해변에 가는 사람들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여름에 가야 재미있지 않나?

여：그건 꼭 그런 건 아냐.

③ (원문) 女：你不是说在这儿买的東西可以換嗎？怎么说话不算数呢？

男：您別生氣，等賣您運動衣的那個人來了就給您換。

(번역문) 여：여기서 산 물건은 바꿀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말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남：화내지 마세요, 손님한테 운동복을 판 그 사람이 오면 바로 바꿔드릴 겁니다.

39) 拙稿〈试析口语习用语〉, 《中国人文科学》第41辑, 2009, p.151

둘째, 기원과 수사 수법 측면에서 본다면 口語習用語는 典故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다. 그 자체는 지식을 전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하나의 사물을 빌어 다른 사물을 비유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④ (원문) 都是多年的朋友, 你这样对待他**不是回事儿**。

(번역문) 모두가 오랜 친구인데, 네가 이렇게 그를 대하면 안 되는 거야.

⑤ (원문) **依我看来**, 这个问题不难解决。

(번역문)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아.

예문 ④속의 口語習用語 “不是回事儿”은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이 맞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여긴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문 ⑤ 속의 口語習用語 “依我看来”는 보통 插入語로 사용되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으로부터 사건을 판단함을 나타내며, 뒤 문장에서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장, 견해 또는 추측을 말한다.⁴⁰⁾ 위의 두 예문을 보더라도 口語習用語가 다른 熟語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口語習用語는 典故로부터 유래되지 않았으며 지식을 전하지도 않는다.

셋째, 통사구조 면에서 보자면 口語習用語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블록형’이며, 다른 하나는 ‘격자형’이다.

블록형이란 몇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중간에 다른 성분을 교체하지 않고 전체를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블록형 중에서 어떤 것은 전체 구조와 구성 성분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不像話”, “巴不得” 등이다.

어떤 형식은 固定化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다. 일부 성분을 제한적으로 유사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이는 아래의 몇 가지 상황에서 나타난다.

① 어떤 口語習用語의 기본적인 고정어 형식은 확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不

40) 常玉钟, 《口语习用语功能词典》,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3, p.225

是時候(때가 아니다)”는 “還不是下結論的時候(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다)”로 말할 수 있으며, “放在心上(마음에 두다)”은 “放在我心上(내 마음에 두다)”, “別放在心上(마음에 두지 마)” 등으로 말할 수 있다.

② 또 어떤 口語習用語의 구성 성분은 변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少說几句(그만 해라)”는 “少說一句”로 바꿀 수 있으며, “真是的(정말)”는 “真是”로 생략하여 표현할 수 있다. 어떤 것은 이합사(離合詞)적인 특징이 있다. “何苦呢(무슨 고생이냐)”→“何苦這樣呢(왜 이런 고생을 하나)”, “倒霉(재수 없다)”→“倒了X輩子的霉(평생 재수 없다)”.

격자형의 口語習用語는 격자 틀 전체는 고정적이지만 부분적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이다. 교체 후에는 형식과 격자 의미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교체는 일정한 격식의 제한을 받는다. 만약 이 격식을 벗어나면 원래 지니고 있던 의미 범주도 소실된다. 예를 들어 “不X白不X”는 “不去白不去”, “不吃白不吃” 등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모두 ‘어떤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공연히 놓침’ 나타낸다. 비록 그 속의 X는 임의로 “去”, “吃” 또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지만, 원래부터 있는 의미는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또 “愛A不A”를 보면, 이 격식 속의 A를 “听”이나 “吃”로 바꾸거나 다른 동사나 형용사로 바꿀 수 있지만, 모두가 공통의 의미 범주가 있다. 즉, ‘어떤 행위나 상황에 대해 좋을 대로 내맡기거나 용인하지만 그 행위를 하기를 바람’을 나타낸다.

상술한 상황으로 볼 때, 비록 口語習用語가 구조적으로 형식상의 고정이 상대적이어서, 어떤 부분은 변환, 생략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확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口語習用語 특유의 함의와 형식의 이탈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또한 그 의미의 고정성을 파괴하지도 않는다.

넷째, 구어적 성격과 관습적 성격이 있다. 口語習用語의 口語色彩와 관습적 성격은 대단히 강하여 書面語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일상 대화에서 자주 나타나며 여러 가지 감정과 語氣를 전달하는데, 이는 다른 熟語와 구별되는 점이다. 동시에, 口語習用語는 중국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어의 구어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다.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만약 이런 口語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뭉치를 잘 배우지 않는다면 말하기와 듣기에 모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⁴¹⁾ 예를 들어,

⑥ (원문) 他对你发火是不对, 但话说回来, 他也是为了你好。

(번역문) 그가 너에게 화를 낸 것은 잘 못 된 거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도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위의 예문에 있는 口語習用語 “話說回來”는 어떤 면을 강조한 뒤 또 다른 면에서 분석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는 종종 의미상 상반되어, 후자는 종종 화자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다. 외국인이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이해하지 못하여, ‘말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또한 口語에서 자주 사용하는 삽입어로, 語氣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대부분 常用字를 사용한다. 口語習用語는 사용하는 글자가 간단하고 僻字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다수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를 사용하는데, 필자의 통계에 따르면 常玉鐘의 《口語習用語功能詞典》 속에는 254개의 한자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口語習用語功能詞典》에는 254개의 글자만으로 270조의 口語習用語가 만들어졌으며, 만약 과생 및 확장된 口語習用語를 포함하면 5백 여조나 된다.

崔建新도 <五百个基础汉字造出的句子可以覆盖多少个語法点>에서 口語習用語 같은 고정 표현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漢語 口語 중의 수많은 고정 표현법은 모두 간단하게 적고, 기억하기 쉬운 가장 기본적인 상용한자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것은 단독으로 문장을 이루며, 어떤 것은 전체 문장의 뼈대로 구성된다. 단지 그 속에 어떤 종류의 글자를 첨가하기만 하면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 격식은 상술한 어법 항목⁴²⁾ 중의 일부분이며, 학생들이 특히 흥미로워 하는 내용이다.⁴³⁾

41) 罗庆, 《汉语口语常用语块的特点及其对第二语言教学的启示》, 湖北大学成人教育学院学报, 2008年12月, P.43

42) 崔建新이 가리키는 语法项目은 中国国家汉办的 《高等学校外国留学生汉语教学大纲》에서 나온 것이다.

43) “汉语口语中的许多固定表达法都是用那些书写简单、记忆容易的最基本的常用汉字组成的, 有的可独立成句, 有的则构成全句的骨架, 只需要往里加某一类字就可用来交际了。这些表达格式, 是上述语法项目中的一部分, 也是学生尤感兴趣的内容。” 崔建新, <五百个基础汉字造出的句子可以覆盖多少个语法点—关于初级汉语水平留学生汉字学习与口语表达的一个试验>, 《汉语研究与应用 第四辑》, 2006.6, p.137

우리는 많은 口語習用語가 이러한 어법 항목 속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不用說(말할 필요도 없이)”, “哪有你這麼X的(너처럼 이렇게 ~한 경우가 어디 있니)”, “(沒)有什麼(好)+動詞+(의) (뭐 ~할 게 있어)”, “你給我+X(~해 줘) : 你給我走開(제발 가 줘)”, “看把N高興/美得(좋아하는 거 봐라) : 看把他高興的(그 사람 좋아하는 거 봐)” 등등이 그러하다. 이는 口語習用語가 간단한 글자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여섯째, 口語習用語는 포핌(褒貶)의 색채가 선명하지 않다. 慣用語, 成語, 일반 단어 등과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좋은 뜻(褒義)	나쁜 뜻(貶義)
慣用語	熱心腸(열성)	母老虎(심술궂은 여자), 鐵公鷄(구두쇠), 拍馬屁(아첨하다), 挖牆脚(궁지에 빠트리다), 假傳聖旨(날조된 상급 기관의 지시를 전달하다)
成語	兢兢業業(근면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다), 善始善終(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잘 하다), 克勤克儉(근검절약하다), 不驕不躁(교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다)	三心二意(마음속으로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다), 狐假虎威(호가호위), 拔苗助長(일을 급하게 이루려고 하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치다), 嘩衆取寵(사람들을 웃겨 환심을 사다), 道貌岸然(도학군자인 것처럼 점잔빼다), 出爾反爾(이랬다저랬다하다)
일반 단어	英雄(영웅), 善良(선량하다)	強盜(강도), 奸詐(간사하다), 肮臟(불결하다)
口語習用語	眞行(대단하다), 沒說的(나무랄 것이 없다), 眞有兩下子(능력이 좋다), 够朋友(친구답다), 好樣的(대단하다), 够意思(의리 있다)	臉往哪儿擱(얼굴을 들고 다닐수가 있나), 現在可好(인제 어떡할래), 眞是的(정말), 不像話(말도 안 돼), 又來了(또 시작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慣用語, 成語, 일반 단어 등에서는 선명하게 포핍(褒貶)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많이 있다. 하지만 口語習用語는 그 정도가 약하다. 口語習用語에도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서 포핍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誰跟誰”는 화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아,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상대방에게 남처럼 대하거나 사양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말이다. “給(A) 面子”의 의미는 개인적인 인정 때문에 어떤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어 이 사람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搞什麼名堂”은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 의혹, 불만 또는 질책을 나타낸다. “放在心上”은 어떤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 매우 걱정하고, 아주 중시하며, 진지하게 대한다는 의미이다. “到頭來”는 한 번의 노력을 했는데도 끝에 가서는 노력한 결과가 실망스러움을 나타낸다. 불만이나 감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Ⅲ. 漢語口語習用語의 어법적 분석

1. 문장 성분

하나의 口語習用語가 문장(句子) 안에 들어간 뒤에는, 반드시 다른 어휘와 어법 및 의미의 연결 관계가 발생하며, 문장 구조 속에서 일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일정한 어법 기능이 작용한다. 어법 기능이란 무엇인가? 狄化夷는 《現代漢語鑒別語法》에서 어법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각 급 어법 단위는 모두 어법 기능의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어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단어의 어법 기능은 통상 단어와 단어를 서로 결합하는 능력 및 문장 성분의 능력을 가리킨다. 즉 어떤 단어가 다른 어떤 단어와 결합할 수 있으며, 결합하여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어떤 단어는 어떤 단어와 결합할 수 없는지, 어떤 단어는 어떤 종류의 문장 성분으로 총당될 수 있는지 등이다. 이러한 성질의 종합이 그 어법 기능을 구성한다.

固定語는 갈라놓을 수 없으며, 그것의 내부 구조는 가장 긴밀하다. 固定語는 몇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형식이 고정적인 구이며 그 어법 기능은 하나의 단어에 해당 한다.⁴⁴⁾

孫維張은 일찍이 《漢語熟語學》에서 단어와 固定語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단어와 固定語 하나하나는 어휘 계통의 각종 유형들이 집합된 기본적인 요소이며, 어휘 계통의 기본 단위이다. 어휘 계통의 기본 단위로서 단어와 固定語는 공통의 특징이 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언어 속에서 형식이 일정하고 의미가 일정한 단위이다. 즉, 모두 고정적인 구조 형식과 완전하며 확정적인 어휘 의미가 있다. 통사 분석에 있어서 모두가 최종적인 특징이 있다. 즉, 모두가 통사 분석의 최소 단위이다. 상술한 특징들은 단어와 固定語 양자의 기본 屬性의 一致性를 결정한다. 따라서 모두가 어휘 계통의 기본 요소이다.⁴⁵⁾

44) “各级语法单位可以说都有语法功能的问题。就词而言，词的语法功能通常指词和词相结合的能力以及充当句子成分的能力，即哪些词可以跟哪些词结合，结合起来表示什么关系，哪些词不能和哪些词结合，哪些词可以充任那种句子成分。这些性质的综合就构成其语法功能。”，“固定短语是不能拆开的，它的内部结构最紧密。固定短语是由几个固定的语素组成的形式固定的短语，其语法功能相当于一个词。” 狄化夷，《现代汉语鉴别语法》，云南教育出版社，1996，p.19

45) “一条条词、固定语是词汇系统的各种类聚的基本成员，是词汇系统的基本单位。作为词汇系统的基本单位来说，词、固定语有着共同的特点。它们都是语言中的定型定义单位，即都有固定的结构形式和完整的、确定的词汇意义；在句法分析上都具有终极性的特点，即都是句法分析的最小单位。上述特点决定了词、固定语二者基本属性的一致性，因而都是词汇系统的基本成员。” 孙维张，《汉语熟语学》吉林教育出版社，1989，p.14

黃伯榮과 廖序東은 《現代漢語》에서 熟語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熟語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정형화된 固定語로, 일종의 특수한 어휘 單位이다. 熟語의 문장 구성 기능이 단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언어 단위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 또한 어휘학 연구의 대상이며, 일반 어휘에 속한다.⁴⁶⁾

앞 장에서도 논한 것처럼 口語習用語는 熟語의 일종이고 어휘 계통 속의 固定語의 일종이며, 단어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언어의 구성 요소이며, 문장 속에서 각종 성분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어법 규칙을 사용하여 연결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도에서 본다면 口語習用語도 단어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어법 단위인 것이다.

房玉清도 일찍이 《實用漢語語法》에서 통사 단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단어를 기본 통사 단위로 분석하면 또한 자주 몇 가지 난제에 부딪힌다. 구들을 단위로 결합하는 어법 현상에 대해 종종 해석할 방법이 없다. 만약 우리가 각종 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분명히 하고, 그것들에 대해 과학적인 분류를 하고, 구를 기본적인 통사 단위로 삼는다면, 어법 분석을 간략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⁴⁷⁾

본 장에서는 口語習用語를 하나의 어법단위로 간주하고, 문장 구조 속의 어법 지위와 문장 속에서의 어법 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口語習用語 단위가 문장 속에서 어떤 성분으로 충당될 수 있는지, 어떤 성분으로 충당될 수 없는지, 다른 단어들과 연결될 때 어떤 단위와 결합될 수 있는지, 어떤 단위와 결합될 수 없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 口語習用語의 어법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教學 중에 보다 정확하고 적절하게 口語習用語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통사 구조 분석은 하지만 口語習用語 자체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口語習用語가 비록 단어로 결합되어 만들

46) “熟語是人们常用的定型化的固定短语，是一种特殊的词汇单位。由于熟语的造句作用相当于词，人们把它当作一个语言单位来用，因而，也是词汇学研究的对象，属于一般词汇。”黃伯榮、廖序東，《現代漢語》，高等教育出版社，2007.6 第四版，p.266

47) “把词作为基本的句法单位进行分析，又是常常碰到一些难题，对于那些以短语为单位进行搭配的语法现象，往往无法解释。如果我们弄清了各种短语的结构和功能，对它们做出了科学的分类，把短语作为基本的句法单位，无疑可简化语法分析。”房玉清，《實用漢語語法》，北京大學出版社，2001.7，p.53

어진 것이며, 일부 口語習用語 속의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일정한 구조 관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조 관계는 그 내부의 구조로, 그것에 대해 통사 구조로 들어간다면 더 이상 口語習用語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또한 口語習用語가 문장 속에서 대체로 단어와 같이 기능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口語習用語는 문장 속에서 성분으로 충당될 때 일반적인 단어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이미 第二章에서 口語習用語와 단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할 때 제기한 바 있다.

房玉清은 《實用漢語語法》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단어의 어법 기능이란 단어와 단어의 결합 능력과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성분으로 충당되는 능력을 가리킨다. 언어 속의 단어와 단어의 결합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단어들은 일정한 단어와 결합 능력이 있다. 동시에 또한 다른 단어들과의 결합은 배제한다. 어떤 단어들은 문장 속에서 단지 한 성분으로 충당되지만, 다른 성분으로 충당될 수는 없다.⁴⁸⁾

房玉清은 단어의 서로 다른 어법 기능에 근거하여 단어의 품사를 확정하고, 名詞, 處所詞, 時間詞, 方位詞, 數詞, 量詞 및 대다수의 대명사(指代詞) 등은 主語나 목적어(賓語)가 될 수 있고, 形容詞性 단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단어를 통칭 체언(體詞)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動詞와 形容詞 등은 술어(謂語)가 될 수 있고, 副詞性 단어의 수식을 받는 단어를 통칭 용언(謂詞)이라고 하였다.

孫維張은 熟語의 어법 기능을 분석할 때 熟語를 체언성(體詞性) 熟語와 용언성(謂詞性) 熟語로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체언성(體詞性) 熟語는 그 어법 기능이 하나의 名詞나 하나의 名詞性的 일반구에 상당한다. 의미면에서 보면, 체언성(體詞性) 熟語가 나타내는 것은 일종의 사물이거나 사물의 성질을 갖춘 것이다. 예를 들어 일종의 사람, 하나의 사건 또는 하나의 물건 등으로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다. 체언성(體詞性) 熟語의 주요 기능은 문장 구조 속에서 종종 主語, 목적어(賓語)로 충당되는데, 이 또한 일반 名詞가 갖추고 있는 기능이다.

용언성(謂詞性) 熟語의 어법 기능은 動詞, 形容詞 또는 動詞性, 形容詞性的 일반구(自由詞組)에 상당한다. 의미면에서 보자면 용언성(謂詞性) 熟語는 동작, 행위, 변화, 성질, 상황, 방식 등을 나타낸다. 그 어법 기능은 비교적 강하여, 의사 소통 속에서의 작용이 크며, 또한 능동적인 편이다. 문장에서 종종 술어(謂語), 補語, 부사어(狀語), 관형어(定語)로 충당된다.⁴⁹⁾

48) “词的语法功能是指词与词的组合能力和词在句子中充当某种成分的能力。语言中词与词的组合不是毫无条件的：某些词与一定的词有组合能力，同时又排除与另外一些词组合；某些词在句中只能充当这种成分，而不能充当另一种成分。” 房玉清, 《实用汉语语法》, 北京大学出版社, 2001.7, p.38

필자가 口語習用語의 어법 기능을 분석할 때 발견한 것은, 口語習用語 중 체언성(体詞性)이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사물화 경향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의 어떤 부분은 문장 중 主語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和B過不去(A가 B를 못살게 굴다)” 중의 “A”, “誰知道(누가 알겠어)” 중의 “誰”, “這是從何說起(어디서부터 말할지)” 중의 “這”, “這叫什麼事(무슨 일이야)” 중의 “這” 등은 단독으로 문장 속에서 主語로 충당될 수 있다. 하지만 口語習用語가 문장 구조 속에서 통째로 문장 성분으로 충당될 때는 일반 名詞의 기능이 거의 발휘되지 않는다. 口語習用語는 전체가 主語나 名詞性 목적어(賓語)가 될 수 없으며 形容詞性 단어의 수식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口語習用語에서는 체언성(体詞性) 口語習用語를 분류해 낼 수 없다. 이 또한 口語習用語가 成語, 慣用語, 歇后語, 諺語 등 다른 熟語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용언성(謂詞性)으로서의 口語習用語는 그 어법 기능이 비교적 강하며, 동작, 행위, 변화, 성질, 상황, 방향 등을 나타낸다. 의사소통에서의 작용 또한 크고, 비교적 능동적이어서 문장에서는 술어(謂語), 목적어(賓語), 관형어(定語), 부사어(狀語), 보어(補語) 등으로 충당될 수 있다. 아래에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한다.

1) 술어

口語習用語는 문장안에서 술어가 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① (원문) “你看你，你看你那眼直瞪瞪的，喝得糊里糊涂的样子！ 我，我真有点 看不下去。”
——曹禺《日出》第一幕

(번역문) “이것 봐요, 눈을 멍하게 뜨고, 술 마시고 어리멍멍한 모습을 봐!
나, 난 정말 좀 못 봐 주겠어.”

49) “体詞性熟語, 其語法功能相當於一個名詞或一個名詞性的自由詞組。從語義上看, 体詞性熟語所表示的是一種事物或具有事物性的, 如一種人、一件事或一件東西, 既可以是抽象的, 也可以是具體的。体詞性熟語的主要功能是在句子結構中經常充當主語、賓語, 這也是一般名詞所具有的功能。謂詞性熟語, 語法功能相當於動詞、形容詞或動詞性、形容詞性的自由詞組。從語義上看, 謂詞性熟語表示動作、行為、變化、性質、狀況、方式等, 其語法功能較強, 在語言交際中作用大, 也比較活躍, 在句子中經常充當謂語、補語、狀語、定語。” 孫維張, 《漢語熟語學》, 吉林教育出版社, 1989, p.40

예문 ① 중의 口語習用語 “看不下去”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현상이나 행위에 대해 정확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으며 그것이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看不下去”는 動補구조로 이 문장에서는 술어(謂語) 성분으로 충당되며, 정도를 나타내는 副詞 “有点”의 수식을 받는다.

② (원문) 妈的，我跟你回去！今天我就跟你回去！回去咱们就散，这日子还有什么
过头？ ——曹禺《日出》第三幕

(번역문) 빌어먹을, 내가 당신과 돌아가요! 오늘 내가 당신과 돌아간다고 해요! 돌아가자마자 우리가 헤어지면 이런 생활이 또 무슨 살 맛이
있겠어요?

위의 예문에 나온 口語習用語 “有什么过头”는 반문 語氣로 살아갈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화자는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무 소득이나 효과가 없어 가치 없다고 여감을 나타낸다. “有什么过头”는 동목적어(動賓) 구조로, 이 문장 속에서 술어(謂語) 성분으로 충당된다. 그 외에, “有什么过头”는 격자형 口語習用語 “有什么A頭”에서 나온 것으로, “A”는 대부분 목적어(賓語)를 가질 수 있는 單音節 動詞이다. 앞 문장에서 출현했던 指称, 動作, 對象의 名詞와 함께 이루어진 동목적어(動賓短語)이며, 어떤 일을 하는데 소득이 없고, 가치가 없음을 나타내는데 주로 중점을 둔다.⁵⁰⁾

③ (원문) 你很漂亮，很拿得出去，在这个地方一定行得通。

——曹禺《日出》第二幕

(번역문) 너는 예뻐서, 남 앞에 내 보일만 하지, 이 바닥에서 분명히 통할
거야.

예문 ③ 속에는 두 개의 口語習用語 “拿得出去”와 “行得通”이 출현한다.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본인의 ‘아름다움’을 자본으로 삼아 ‘남 앞에 내 보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상당한 이익을 얻거나 상당한 지위를 얻을 수 있음을 나

50) 常玉钟(1993), 앞의 책, p.246

타낸다. 이렇게 하면 이 지방에서 반드시 ‘통할 것’이다. 즉 반드시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다. “行得通”은 動補 구조로 이 문장에서 문장의 술어 성분으로 충당되며, 副詞 “一定”의 수식을 받는다.

④ (원문) 他两天两夜没睡觉, 现在刚睡着, 你再怎么叫, 他也是醒不过来的。⁵¹⁾

(번역문) 그는 이틀 밤낮을 못 자다가 이제야 막 잠이 들어서, 네가 아무리 불러도 그는 깨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문 ④ 속의 口語習用語 “醒不過來”는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을 때, 장애를 극복하고 깨어나 어떤 동작을 완성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醒不過來”는 動補 구조로, 이 문장에서 강조를 나타내는 “是…的” 문형과 함께 술어(謂語) 성분으로 충당된다. 그 외에 “醒不過來”는 격자형 口語習用語 “A不過來”에서 왔으며, A는 대부분 動詞로 충당된다.

2) 목적어

술어성(謂詞性) 口語習用語는 문장 속에서 목적어(賓語) 역할을 한다.

⑤ (원문) 王镜在日记中写道：我看到垃圾站里有许多不该扔掉的粮食，感到不是滋味。
--北大現代漢語語料庫

(번역문) 왕징이 일기에 쓰길, 나는 쓰레기통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양식을 많이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예문 ⑤ 속의 口語習用語 “不是滋味”의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괴롭고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른 언어 환경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부끄럽다고 느끼는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不是滋味”은 “感到”의 목적어(賓語) 성분으로 충당된다. “不是滋味”은 문장에서 形容詞 성분이 있으며, 정도를 나타내는 副詞 “很”의 수식을 받는다.

51) 常玉钟(1993), 앞의 책, p.61

⑥ (원문) 我理解你, 为了引滦工程, 你不惜牺牲个人幸福, 你是好样的。

——計紅緒 《決策》

(번역문) 난 너를 이해해, 인란(引滦) 공정을 위해, 너는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니, 넌 장한 사람이야.

예문 ⑥의 口語習用語 “好樣的”는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담이 크고, 공헌하는 바가 있으며, 희생정신이 있고, 그의 행동, 능력, 업적에 대해 지지하고 칭찬함을 나타낸다. “好樣的”는 이 문장 속에서 목적어 성분으로 충당된다.

⑦ (원문) 你是存心和爸爸过不去, 要败坏严家的门风是不是?

——《北京晚報》

(번역문) 너는 일부러 아빠를 못살게 굴어서, 엄가(嚴家)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거지?

예문 ⑦의 口語習用語 “A和B过不去”의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이(A측) 아빠와(B측) 맞서서 아빠를 곤경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和B过不去”는 전치사(介詞) 구조로 문장에서 “是”의 목적어로 충당되며, 부사어(狀語) “存心”의 수식을 받고, A는 주어가 된다.

⑧ (원문) “这个人忽然是怎么回事?”

——曹禺《日出》

(번역문) “이 사람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예문 ⑧의 口語習用語 “怎么回事”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행동거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그 동기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함을 나타낸다. “怎么回事”는 이 문장에서 목적어(賓語) 성분으로 충당되며, “是”와 함께 술목(述賓) 구조가 되며, 副詞 “忽然”의 수식을 받는다.

3) 관형어

문장에서 관형어(定語)가 되는 口語習用語의 예를 보자.

- ⑨ (원문) 这个地方不像话的事情多得很。这一次，我要请你多瞧瞧，把你这幅古板眼镜打破了，多看看就像话了。 ——曹禺《日出》

(번역문) 이 바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 제가 당신에게 많이 보여드려서, 그 고루한 안경을 깨 버릴 거예요. 많이 보게 되면 말이 된다고 여길 거예요.

예문 ⑨의 口語習用語 “不像話”는 말하는 사람이 판단하기에 어떤 일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거나, 어떤 일이 합당하지 않으며 상식에 벗어난다고 여겨, 만족할 수 없거나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불만이나 질책의 語氣를 담고 있다. “不像話”는 이 문장에서 관형어(定語) 성분으로 충당되며, 主語 “事情”을 수식하는 작용을 한다.

예문 중의 또 다른 口語習用語 “像話”는 “不像話”의 긍정형식으로, 화자의 의미는 불합리한 일을 많이 보게 되면 마음에 들게 되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풍자의 語氣를 담고 있다. “像話”는 문장 속에서 술어(謂語) 성분으로 충당되며, 副詞 “就”의 수식을 받는다.

- ⑩ (원문) “竹均，我看你的眼，我就知道你厌恶他们，而你天天装出满不在意的样子，天天自己骗自己。” ——曹禺《日出》

(번역문) “주권아, 네 눈을 보면 네가 그들을 혐오한다는 걸 난 알아, 하지만 넌 날마다 거짓으로 전혀 개의치 않는 척 하며, 날마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예문 ⑩의 口語習用語 “滿不在意”는 어떤 일에 대해 중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며, 아무래도 괜찮다는 태도로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화자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대단히 아쉬워함을 표현했다. “滿不在意”는 문장 속에서 관형어(定語) 성분으로 충당되며, 목적어(賓語) “樣子”를 수식하는 작용을 한다.

⑪ (원문) 我也不比他的将来有希望, 并且我做过许多见不得人的事。

— 曹禺 《雷雨》

(번역문) 나도 그 사람의 미래보다 더 희망적이지는 않아, 게다가 난 납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 봤다.

예문 ⑪의 口語習用語 “見不得人”의 의미는 화자가 자신이 해 보았던 일이 영예롭지 않다고 여겨,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알게 되는 것을 꺼린다는 의미이다. “見不得人”은 문장 속에서 관형어(定語) 성분으로 충당되며, 목적어(賓語) 성분 “事”를 수식한다.

⑫ (원문) 是呀, 上趟法国确是不易, 倘能带回家一个惊喜, 也算得上是够意思的表示了!

(번역문) 그래, 프랑스에 한 번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 만약 뜻밖의 기쁨을 집에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면 훌륭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예문 ⑫의 口語習用語 “够意思”의 의미는 어떤 일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够意思”는 문장 속에서 한정어(定語) 성분으로 충당되며, 목적어(賓語) “表示”를 수식한다.

4) 부사어

문장 속에서 부사어(狀語)가 되는 口語習用語의 예를 살펴 보자.

⑬ (원문) 兔二爷霎霎眼皮, 满不在乎地吐了口唾沫。

— 《張天翼小說選集》 52)

(번역문) 투 영감은 눈꺼풀을 깜빡거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침을 뱉었다.

예문 ⑬의 口語習用語 “满不在乎”는 예문 ⑩의 “满不在意”와 같은 의미로, 모두 어떤 일에 대해 중시하지 않고 진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의치 않는 태도로 전혀

52) 常玉钟(1993), 앞의 책, p.126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의미의 “滿不在乎”는 본 예문에서 문장의 부사어(狀語) 성분으로 충당되며, 술어(謂語) “吐”를 수식한다.

⑭ (원문) 最近有一天, 我匆匆忙忙地去药店买阿斯匹林。营业员爱理不理地瞥了我一眼, 就掉过头去继续往架子上摆洗发药。 --北大語料庫

(번역문) 최근 어느 날, 나는 바쁘게 약국으로 아스피린을 사러 갔다. 종업원이 본체만체 나를 얼핏 보고는, 선반에 샴푸를 계속 진열하러 머리를 바로 돌렸다.

예문 ⑭의 口語習用語 “愛理不理”의 의미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는 태도를 가리킨다. “愛理不理”는 본 문장에서 부사어(狀語) 성분이 되며, 술어 “瞥”를 수식한다.

⑮ (원문) 听说记者刚在旅游塔拍到了刘翔的照片, 她不好意思地问能否发一张给她。 --北大語料庫

(번역문) 듣자하니 기자가 막 여행 탑에서 리우샹(劉翔)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녀는 미안해하면서 그녀에게 한 장 부쳐줄 수 있는지 물었다.

예문 ⑮의 口語習用語 “不好意思”는 문장 속에서 부사어(狀語)로 충당되고, 술어(謂語) “問”을 수식한다. 마음속의 불안이나 부끄러움으로 인해 어떤 일을 하기가 불편함을 나타낸다.

5) 보어

口語習用語가 補語가 될 때, 대부분 구조 조사 “得”과 연결된다.

⑯ (원문) “你整天说解放妇女。就不给我买一台好洗衣机!” 马平旺被夫人呛得没话可说。 -- 劉學強 《深圳城的女强人》

(번역문) “당신은 온종일 여성 해방을 떠들어 대더니 세탁기 한 대를 안 사 주겠다는 거예요?” 마평왕은 부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예문 ⑬의 口語習用語 “沒話可說”의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해 변명할 마땅한 이유가 없음을 뜻한다. “沒話可說”은 문장 속에서 “噲”의 程度補語 역할을 한다.

⑰ (원문) 樓下小商店的東西比大商店的也便宜不了多少。所以我還是寧願去大商店，至少環境好，質量也有保證。 --劉德聯，劉曉雨，《漢語口語常用句式例解》

(번역문) 아래층 작은 상점의 물건은 큰 상점의 물건에 비해서도 그리 싸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큰 상점에 가고 싶다. 최소한 환경도 좋고, 질도 보장되잖아.

예문 ⑰의 口語習用語 “不了多少”는 주로 비교문에서 사용되며, 의미는 만약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상대방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語氣를 포함하고 있다. “不了多少”는 문장 속에서 “便宜”의 補語가 되어, “便宜”와 動補 구조로 구성되며 副詞 “也”의 수식을 받는다. 또한 “不了多少”는 격자형 口語習用語 “A不了多少”에서 유래되었으며, A가 形容詞일 때 어떤 일이 만약 어떤 상황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단지 조금 높을 뿐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A가 動詞일 때 이 動詞가 미치는 양이 많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⑱ (원문) 這次事我幫您做得不算不漂亮。 --曹禺《日出》第四幕

(번역문) 이번 일은 제가 당신을 도와드린 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문 ⑱ 속의 口語習用語 “不算”은 어떤 상황을 특정한 성질을 가진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이중 부정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잘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不算”은 문장 속에서 “不漂亮”과 함께 술목구(述賓短語)로 구성되어, “做”의 程度補語가 된다.

①9 (원문) 她被我盯得不好意思, 扑哧一声笑了起来。 --北大語料庫

(번역문) 그녀는 내가 응시하여 부끄러워서, 킁 하며 웃기 시작했다.

예문 ①9 속의 口語習用語 “不好意思”의 의미는 부끄러워하고, 난처하다는 뜻이다. 문장 속에서 “盯”의 程度補語가 되며, “盯”과 함께 動補 구조로 구성된다.

이상 종합해 볼 때, 口語習用語는 문장 속에서 원형대로 사용되며, 용언성(謂詞性) 어법 기능이 비교적 강하며, 動作, 行爲, 變化, 性質, 狀況, 方式 등을 나타낸다. 또한 의사소통 중에 그 작용이 크며, 비교적 활발하게 대화에서 사용되고 있다. 문장에서는 술어(謂語), 목적어(賓語), 관형어(定語), 부사어(狀語), 補語 등으로 충당될 수 있으며 같은 口語習用語가 다른 문장 성분으로도 충당될 수 있다. 위의 예문 중의 “滿不在乎/意”는 문장의 관형어(定語)와 부사어(狀語) 성분으로 충당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문장에서는 다른 성분으로 충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對我的虛偽他滿不在乎, 呈上一沓子書稿。”라는 문장에서는 술어(謂語)로 충당된다.

이상과 같이 口語習用語가 문장 속에서 원형 그대로 각종 성분으로 충당되는 상황을 고찰했다. 다음으로 口語習用語가 문장 속에서 표현하는 여러 특징을 더 살펴 보기 위해 복문 및 각종 문류(句類)에 사용될 때의 상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복문의 구성 성분

黃伯榮과 廖序東은 主編한 《現代漢語》에서 복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복문(複句)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의미상 관련이 있고 구조적으로 서로 통사 成分이 되지 않는 단문(分句)에 전체 문장을 관통하는 어조를 더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복문의 전후에는 단절성 휴지(停頓)가 있고, 문어에서는 마침표(句號)나 물음표(問號), 느낌표(嘆號)로 표시한다. ‘分句’은 구조적으로 ‘單句’와 같으나, 완전하고 독립적인 어조가 없다. 복문의 각 단문 간에는 일반적으로 문장 중에 휴지가 있고, 문어에서는 쉼표(逗號), 세미콜론(分號) 또는 콜론(冒號)으로 표시한다.⁵³⁾

연구를 통해 口語習用語가 복문 중에도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1) 節

口語習用語는 복문 중 단독으로 단문으로 충당된다. 예를 들어,

① (원문) 我現在是山窮水盡, 看在老朋友的份上, 你快幫我一把!

--劉德聯、劉曉雨, 《漢語口語常用句式例解》

(번역문)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네, 옛 친구의 정을 봐서, 날 한번 도와주게!

② (원문) A: 你不是说对你的工作不太满意吗? 为什么不换个工作呢?

B: 虽说不满意, 可现在工作这么不好找, 换工作多难哪, 事到如今, 也只好继续干下去了。

--劉德聯、劉曉雨, 《漢語口語常用句式例解》

(번역문) A: 너는 네 일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직업을 바꾸지 않는 거야?

B: 비록 만족하진 않지만, 지금은 일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직업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할 수 없이 계속 하는 수밖에.

예문 ① 중의 口語習用語 “看在老朋友的份上”은 복문 중 독립적으로 단문이 된다. 그것의 원형은 “看在A的份上” 형식으로, “A”는 다른 인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老同學(동창)”, “老鄰居(친한 이웃)” 등인데, 주로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다. 의미는 상대방이 서로간의 인정을 생각해서 자신을 도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예문 ② 중의 口語習用語 “事到如今”은 복문 중 독립적으로 단문이 된다. 다음 문장과 인과 관계를 구성하며, 일이 여의치 않게 전개되었으므로 할 수 없이

53) “复句是由两个或两个以上在意义上相关、结构上互不做句法成分的分句加上贯通全句的句调构成的。复句前后有个隔离性停顿, 书面用句号或问号、叹号表示。分句在结构上跟单句相同, 但没有完整而独立的句调。复句各分句间一般有句中停顿, 书面上用逗号、分号或冒号表示。” 黄伯荣、廖序东, 《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社, 2007.6 第四版, p.266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어쩔 수 없음의 語氣가 있다.

2) 의미관계의 일부

口語習用語는 복문 중 각종 의미 관계의 일부로 충당된다. 예를 들면,

③ (원문) 每天都要记住几十个生词, 真让人头疼。

--劉德聯, 劉曉雨 《漢語口語常用句式例解》

(번역문) 날마다 새 단어 십 여 개를 외워야 하니, 정말 머리 아프다.

④ (원문) 如果能发现特尔在搞什么阴谋, 那就再好不过了。 --北大語料庫

(번역문) 만약 투얼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 만큼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을 거야.

⑤ (원문) 丢了市场不说, 还要面临破产的險境。 --北大語料庫

(번역문) 시장을 잃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파산의 위험에까지 직면했다.

⑥ (원문) 疲惫不堪的干警们一听, 哭也不是, 笑也不是。 --北大語料庫

(번역문) 피로가 극에 달한 경찰 간부들이 듣고서, 울지도 못 하고, 웃지도 못 했다.

예문 ③의 口語習用語 “讓人頭疼”은 어떤 일에 대해 좋은 해결 방법을 내지 못하여 곤란함을 느낀다는 의미로, 본 예문에서 하나의 단문이 되어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 속에 사용된다. 예문 ④의 口語習用語 “再好不過了”는 격자형 口語習用語 “再A不過了”에서 나왔으며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 “如果.....那就.....”와 사용되었다. 의미는 만약 상술한 상황이 나타난다면 이와 비교할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뜻으로, 정도가 극에 달했음을 표시한다.

예문 ⑤의 口語習用語 “A不說, 還B”의 의미는 A 상황 외에 B 상황도 있다는 뜻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점진 관계를 표시하는 복문이다.

예문 ⑥의 口語習用語 “哭也不是, 笑也不是”의 의미는 이렇게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뜻이다. “哭也不是, 笑也不是”는 격자형 口語習用語 “A也不是, B也不是”에서 나왔다. 그 자체로 하나의 병렬 관계를 표시하는 복문이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복문 속에서 사용된 것이다.

3. 口語習用語의 語法化 현상

江藍生은 〈語法化語音程度的表現〉에서 어법화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어법화는 두 가지 방향의 내용을 포함한다. 하나는 실사가 점차 虛化되어 실제 의미가 없는 어법 성분이 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구(短語)가 점차 하나의 단어로 고정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각각 어휘의 虛化와 구(短語)의 어휘화로 약칭한다.⁵⁴⁾

어법화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어법화 정도가 강한 口語習用語로 사전에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품사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어법화 정도가 중간 단계인 口語習用語로, 사전에 수록되어 있으나 품사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법화 정도가 약한 口語習用語인데 사전에 수록되지는 않았으나 어법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다.⁵⁵⁾

1) 어법화가 강한 경우

어법화 정도가 강한 口語習用語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단어의 구성과 관련하여

54) “语法化包括两个方面的内容, 一是指实词逐渐虚化为没有实在意义的语法成分的过程, 二是指短语或词组逐渐凝结为一个单词的过程, 可分别简称为词汇的虚化和短语的词汇化。江藍生, 〈語法化語音程度的表現〉, 《語法化研究》, 北京商務印書館, 2005” 羅榮華, 〈“萬一”的語法化〉, 《宜春學院學報》, 第29卷 第1期, 2007.2, p. 74에서 재인용

55) 常玉鍾의 《口語習用語功能詞典》 한국어의미일람표 부록에서 어법화 정도에 따라 강, 중, 약으로 구분하였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劉叔新은 형태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부 固定語는 사용하는 중에 각 구성 성분들이 긴밀한 결합체로 발전한다. 내부의 의미 결합 관계는 모호하거나 그리 명확하지 않으며, 전체 단위가 본래 복잡한 의미였던 것이 각 성분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덧붙여서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단순한 의미가 된다. 동시에 각 구성 성분의 어음의 성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 사이에 단어와 단어가 결합될 때 생길 수 있는 휴지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때 바로 어법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固定語가 하나의 단어로 전환된다.⁵⁶⁾

口語習用語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구의 의미는 부단히 고정되어, 내부 구조는 점점 더 긴밀해져 분할할 수 없으며, 점차 하나의 단어와 같이 쓰인다. 어떤 것은 副詞의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은 動詞의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은 形容詞 역할을 하며 또 어떤 것은 名詞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好意思”, “說得來/說不來”, “得了”, “好樣儿的” 등이 그러하다. 이런 유의 단어들은 《現代漢語詞典》(第五版)에서 모두 찾을 수 있으며 또한 품사를 표시했다. 이에 필자는 그 품사에 따라 이러한 口語習用語를 <표 2>와 같이 “動詞類 口語習用語”, “形容詞類 口語習用語”, “副詞類 口語習用語”, “語氣助詞類 口語習用語”, “名詞類 口語習用語” 등으로 나누었다.

<표 2>

종류	語法化 정도가 강한 口語習用語
動詞類 口語習用語	不在乎(개의치 않다), 吃得/不消(감당해낼 수 있다/없다), 吃得/不住(견딜 수 있다/없다), 說得/不來(말이 통하다/통하지 않다), 過獎了(과찬이십니다), 來得/不及(시간에 미칠 수 있다/없다), 過得/不去(그럭저럭 지낼 만하다/지낼 수 없다), 好說(문제 없어요)...
形容詞類 口語習用語	够受的(견디기 힘들다), 够瞧的(대단히 나쁘다), 有/沒勁(재미 있다/없다), 了不起(대단하다), 吃得/不開(통하다/통하지 않다)...
副詞類 口語習用語	不得不(어쩔수 없이), 巴不得(간절히), 恨不能/得(간절히), 大不了(굉장하게), 怪不得(어쩐지), 動不動(걸핏하면)...
語氣助詞類 口語習用語	得了(됐어), 就是了(~하면 그만이다)
名詞類 口語習用語	好樣儿的(대단한 사람)

56) “一部分固定语, 在使用中各组成成分的组合发展为紧密凝结, 内部的意义组合关系变为模糊或不大明晰, 整个单位本来复杂的意思成了一个不能按成分意义机械相加来理解的单纯意义, 同时各组成成分的语音性是紧紧接合, 其间不再能存在词与词组合时所能有的小停顿. 这时, 就是词化型转化的实际运用, 把一个固定语转化为一个词.” 刘叔新, 《汉语描写词汇学》, 商务印书馆, 2005, p.113

위에서 口語習用語의 어법화란 원래 구(短語)였으나 단어로 변한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법화 된 口語習用語는 더 이상 구(短語)라고 볼 수 없는가? 이에 대해 口語習用語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구(短語)였으나 나중에 단어로 변한 것으로 보이는 離合詞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離合詞는 두 개의 형태소로 만들어진 단어임에도 중간이 분리되어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있는 구(短語)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担心’, ‘帮忙’, ‘睡覺’ 등이 있는데, 각각 ‘担心什么?’, ‘帮忙一下’, ‘睡覺了’ 등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担了很長時間的心’, ‘帮我的忙’, ‘睡了一覺’ 등으로 분리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黃伯榮과 廖旭東은 《現代漢語》에서 단어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단어(詞)란 ‘언어 속에서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최소의 품과 뜻을 가진 단위’를 가리키며, 여기서 ‘최소의’라는 말은 ‘단어는 확장할 수 없는 것, 즉 단어 사이에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없으며, 만약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라 해도 분리할 수 없다.’⁵⁷⁾

그러나 위에 예로 든 ‘担心’, ‘帮忙’, ‘睡覺’ 등의 離合詞는 분명 단어임에도 분리되어 중간에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있다. 呂叔湘은 이를 ‘短語詞’라고도 불렀고, 단어와 구(短語) 사이의 변화 과정에 있는 것을 ‘中間狀態’라고도 했다.⁵⁸⁾

周上之는 〈離合詞是不是詞〉에서 離合詞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離合詞는 단어와 구(短語)가 함께 있는 언어단위이다. 따라서 그것이 구(短語)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성질을 겸비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이 단어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短語)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양자는 한쪽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離合詞를 단어에 포함시킬 수 없다.⁵⁹⁾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離合詞가 단어인지 구(短語)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이유는 분명히 사전에서는 단어로 품사 표시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短語)의 성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7) “词是语言中最小的能够独立运用的有音有义单位。...“最小的”是说词是不能扩展的，即在词中间一般不能再插入别的成分，即使两个成词语素组成的词也不能分开” 黃伯榮·廖旭東,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2007 第四版, P.218

58) 周翠兰, 〈关于动宾式“离合词”的句法功能〉, 《중국어언어연구》, 한국중국어학회, 1999

59) “离合词是集词和短语于一身的语言单位，因此，既不能因为它具有短语的功能就否定它兼有词的性质，也不能因为它具有词的性质就否定它兼有的短语的功能。两者不可偏废，所以我们不能把离合词归入词。” 周上之, 〈离合词是不是词〉, 《暨南大学华文学院学报》, 2001. 第四期, p.41

우리는 여기서 일부 口語習用語가 어법화 되어 품사가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短語)의 성질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사로 표시된 口語習用語 ‘不在乎’는 ‘不太在乎’, ‘不怎么在乎’, ‘不那么在乎’ 등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또 형용사로 표시된 口語習用語 ‘够受的’도 ‘够他受的’로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어법화 정도가 강한 口語習用語라 할지라도 여전히 구(短語)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口語習用語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어법화가 중간 단계인 경우

어법화 정도가 중간 단계인 口語習用語에 대해 살펴보자.

어떤 口語習用語는 《現代漢語詞典》(第五版)에서 찾을 수 있으나, 사전에서는 그 품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필자는 이러한 口語習用語들이 문장 중에서 성격이 아주 분명하며, 구에서 단어로의 어법화 과정에 있는 것들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不好意思”⁶⁰⁾는 용법이 단순히 “好意思”의 부정형에 제한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尤業鳳은 《助動詞“好意思”及其否定形式初探》에서 “好意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好意思”는 朱德熙가 총괄한 助動詞의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고 판단했다. 술어성 목적어(謂詞賓語)만 가질 수 있으며, 중첩할 수 없고, 조사 “了”, “着”, “過”를 가질 수 없고, “~不~” 격식에 넣을 수 있으며, 단독으로 말할 수 있는 것 등이다. 따라서 그것을 助動詞로 확정하며, 그 부정 형식은 “不/沒好意思”이다.⁶¹⁾

呂叔湘은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에서 “好意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好意思”는 단독으로 술어(謂語)가 될 수 있으나 助動詞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문과 부정문에서만 사용한다.⁶²⁾

60) 《現代漢語詞典》中：“不好意思①害羞；難為情②碍於情面而不便或不肯” 《現代漢語詞典》(第五版)，商務印書館，2005，p.112

61) “只能帶謂詞賓語，不能重疊，不能帶後綴“了”、“着”、“過”，可以放在“~不~”的格式里，可以單說等，因此確定其為助動詞，而“不/沒好意思”是其否定式。” 尤業鳳，《助動詞“好意思”及其否定形式初探》，社會科學研究，2006 第18卷 第3期，p.52

62) ““好意思”可單獨作謂語，但更多的用法類似助動詞。只用於反問句和否定句。” 呂叔湘，《現代漢語八百詞》，商

그러나 필자는 그들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現代漢語詞典(第五版)》에서 “好意思”는 動詞로, 그 의미는 ‘부끄러워하지 않다’, ‘겸연쩍어 하지 않다’는 뜻으로, 반문에서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做了這種事, 亏他還好意思說呢!(이런 짓을 해 놓고도 무슨 염치로 지껄이냐)”에서 “好意思”는 “염치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점에서 助動詞와는 구별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助動詞의 주요 어법 기능은 반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好意思”를 動詞라고 한다면 《現代漢語詞典(第五版)》에서 따로 動詞의 부정형을 실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不好意思”는 《現代漢語詞典(第五版)》에 실려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不好意思”의 의미 범위가 이미 “好意思”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단지 “好意思”의 부정형에 제한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① (원문) “白露, 我们是好姊妹, 你在四爷面前替我跟他说说, 我真有点不好意思再多麻烦他啦。”
——曹禺《日出》第二幕

(번역문) “바이루야, 우리는 친한 자매잖아, 네가 넷째 나리한테 나 대신 말 좀 해 줘. 난 다시 그를 번거롭게 하기가 정말 좀 미안해.”

예문 ① 속의 “不好意思”가 가리키는 것은 화자가 미안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또 다시 상대방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거나 귀찮게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不好意思”의 사용 빈도는 “好意思”보다 훨씬 높다. 필자가 北大語料庫에서 “不好意思”를 사용한 용례를 2530개 찾았지만, “好意思”는 309개 밖에 없었다.

넷째, “不好意思”는 문장 중에서 작용하는 어법 기능이 단지 動詞나 助動詞의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务印书馆, 2000, p.262

“不好意思”는 程度補語로 충당될 수 있다. 예를 들면, “他被大伙儿說得不好意思了(그는 모두에게 부끄러움을 당했다)”가 있다. 또는 “不好意思+地” 형식에서 사용되어 문장에서 부사어로 충당되어 다른 동사를 수식한다. 동시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他很不好意思地告訴記者(그는 쑥스러운 듯이 기자에게 알렸다)”가 있다. 이는 모두 動詞나 助動詞와는 다른 점이다. “不好意思”의 용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단지 “好意思”의 부정형에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口語習用語의 성질도 있어,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용사류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形容詞 단계로 어법화 된 口語習用語인 것이다.

일부 口語習用語는 문장에서 품사의 성격이 비교적 강렬하다. 일부 어법 책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馬眞은 《現代漢語虛詞研究方法論》에서 “好了”는 語氣詞로, “不介意(개의치 않다)、不在乎(상관하지 않다)、盡管放心(얼마든지 안심하다)”의 어법 의미를 나타낸다⁶³⁾고 지적했다. 이 어법 의미란 “好了”를 포함하는 문장을 “好了”를 사용하지 않은 문장과 비교를 통해 분석하여 얻은 것이다. 예를 들어,

② (원문) a組 沒米飯吃麵條好了。

b組 沒米飯吃麵條。

(번역문) a組 쌀밥이 없으면 국수를 먹으면 되지 뭐.

b組 쌀밥이 없어서 국수를 먹는다.

③ (원문) a組 你拿去看好了。

b組 你拿去看。

(번역문) a組 네가 가져가서 보면 되지.

b組 네가 가져가서 보아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의 예문 ②와 예문 ③의 a組의 “好了”는 명확하게 口語習用語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인 언어환경에서 화자의 태도를

63) ““好了”是语气词, 表示“不介意、不在乎、尽管放心”的语法意义” 馬眞, 《現代漢語虛詞研究方法論》, 商務印書館, 2004.12, p.179

나타내었다. 즉 어떤 일을 어떤 방법대로 하고, 처리하면 되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다시 비교해 보자.

④ (원문) 饭吃好了。

(번역문) 밥 다 먹었어요.

⑤ (원문) 作业做好了。

(번역문) 숙제 다 했어요.

예문 ④와 예문 ⑤의 “好了”는 단지 일반적인 단어를 문장에 넣었을 뿐이다. 각각 “吃”와 “做”의 結果補語이며, 완성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口語習用語는 아니다.

상술한 “口語習用語” 이외에도 수많은 口語習用語를 《現代漢語詞典》(第五版)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有的是(얼마든지 있다)”, “够意思(충중하다)”, “硬着頭皮(마지못해)” 등인데 이들은 모두 품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구들이 문장에서 어떤 품사 성격이 아주 강하다고 판단하며, 구에서 단어로의 어법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張天雪는 〈“不像話”的語法化〉에서 어법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不像話”는 부정 형식의 동목적구(動賓短語)로 나타나, 발전 과정에서 그 어법화의 고정을 체현한다. 동사 성분으로 충당될 때, 술어로부터 목적어, 보어로까지 충당된다. 문형 분포에 있어서 “不像話”는 부정 형식이 제일 먼저 나타난 뒤에 “像話”로 구성되는 의문 형식과 긍정 형식이 나타나고, “像”과 “話” 중간에 다른 성분이 삽입되는 형식이 나타난다. 묘사 대상은 ‘뻔한 말’에서부터 사람, 사물, 현상 또는 상태 등까지 확장된다. “像”과 “話”의 의미는 구체적인 의미에서부터 고정된 전체 의미로까지 발전하며, 다시 虛化되어 정도의 개념이나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⁶⁴⁾

64) “不像話”作为否定形式的动宾短语出现, 在发展过程中体现了其语法化的历程。在充当句法成分上, 从充当谓语发展到充当宾语、补语。在句型分布上, “不像話”以否定形式最先出现, 而后出现了“像話”构成的疑问形式和肯定形式, 以及在“像”和“話”中间插入其他成分的形式。描述的对象从“说出的话”扩展到人、事物、现象或状态等。“像”和“話”的意义从表示实在的具体意义发展为高定的整体意义, 再虚化为表示程度的概念或者说话人的态度。 張天雪, 〈“不像話”的語法化〉, 《語文學習》, 2011 第2期, p.105

房玉清은 《實用漢語語法》에서 품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품사는 단어의 어법 기능의 종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漢語에서 품사 구분은 주로 단어의 어법 기능에 따라야 한다.⁶⁵⁾

이에 필자는 이런 유의 口語習用語를 그 문장 속에서의 다른 단어와의 결합 능력 및 문장 중 충당되는 어떤 성분 능력, 즉 그 상이한 어법 기능에 따라서 “准語氣助詞類 口語習用語”, “准動詞類 口語習用語”, “准形容詞類 口語習用語”, “准副詞類 口語習用語”로 분류하였다. <표 3>을 보자.⁶⁶⁾

<표 3>

종류	어법화 정도가 중간 단계인 口語習用語
准語氣助詞類 口語習用語	好了(됐다)...
准動詞類 口語習用語	看上(마음에 들다), 看不上(마음에 들지 않다), 看得/不慣(마음에 들다/들지 않다), 豁出去(죽기살기로 하다), 顧得/不上(신경 쓸 수 있다/없다), 算是(그렇다 치자)...
准形容詞類 口語習用語	够意思(의리 있다), 不够意思(의리 없다), 有的是(얼마든지 있다), 過意不去(마음이 불편하다), 好說話(부탁을 잘 들어준다), 不像話(말도 안 돼), 大不了(대단치 않다), 不好意思(겸연쩍다)...
准副詞類 口語習用語	大不了(기껏해야), 有/沒把握(자신 있게/없게), 成(一)天到晚(하루 종일)...

65) “词类是反映词的语法功能的类别，汉语划分词类的主要依据应当是词的语法功能” 房玉清, 《实用汉语语法》, 北京大学出版社, 2001.7, p.38

66) 표 속의 “准語氣助詞類口語習用語”는 문미에 붙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의 어법 작용은 화자의 여러 가지 정서(語氣) 표현을 돕는다.
“准動詞類口語習用語”가 가리키는 것은 문장에서 謂語가 될 수 있으며, 뒤에 賓語나 類似賓語의 품사(詞性) 성분이 올 수 있다.
“准形容詞類口語習用語”가 가리키는 것은 대다수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名詞를 수식할 수 있으며(定語가 됨), 어떤 것은 動詞를 수식할 수 있고(狀語가 됨) 혹은 動詞를 보충한다(補語가 됨).
“准副詞類口語習用語”가 가리키는 것은 動詞, 形容詞 또는 모든 문장을 수식하는 기능이 있는 口語習用語이다. 이상 필자의 기준에 따름.

3) 어법화가 약한 경우

어법화 정도가 약한 口語習用語에 대해 살펴보자.

어떤 口語習用語는 사전에 단어로 수록되지 못했으나 어법화 되고 있다고 간주된 것들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의 口語習用語 어법화 과정에 있는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武建明와 盛愛萍는 〈“甬說”的語法化与主觀化〉에서 口語習用語 “甬說”의 어법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甬說”는 현대 한어 북방 방언의 한 단어이다. 발생 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비록 길지 않지만 수식구(狀中短語)에서 접속구(關聯短語)로 다시 독립어로 어법화 과정을 거쳤다.⁶⁷⁾

彭琴는 〈“眞是的”的語法化及相關問題探析〉에서 口語習用語 “眞是的”의 어법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眞是的”가 어법화 되어 책망, 원망, 불만 등을 나타내는 어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⁶⁸⁾

鄭綺와 蒲霏도 “怎么說”의 어법화 과정을 분석했으며⁶⁹⁾, 王凱之와 聶建芝는 “有的是”의 어법화에 대해 논했다.⁷⁰⁾

Hopper와 Traugott는 다음과 같이 어법화를 정의하고 있다.

실사성 단어(lexical items)와 구조(constructions)가 특정 언어환경 속에서 어법 기능을 얻는 것으로, 일단 어법화 된 뒤에는 또 계속 새로운 어법 기능이 발생한다.⁷¹⁾

여기서 ‘구조’가 가리키는 것은 “有什么A的(뭐 ~할 게 있어)” 같은 형식의 口語習用語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필자가 第二章에서 논한 ‘격자형’ 口語習用語 형식과 일치한다.

67) ““甬说”是现代汉语北方方言中的一个词，从产生到现在，虽然历时不长，却经历了从状中短语到关联短语再到独立语的语法化过程。” 武建明/盛爱萍，〈“甬说”的语法化与主观化〉，《语文学刊》，2009 第6期，p.95

68) ““真是的”是现代汉语话语交际中高频使用的一个语气标记，从历史的平面来看，它经历了“真是”的韵律成词到独立结构语气标记“真是的”的语法化过程，从共时平面来看，它的句法位置灵活，具有传信表义、焦点表述、主观评价等多种语用功能，可表达责备、埋怨、遗憾、不满等多种消极性情绪语气。” 彭琴，〈“真是的”的语法化及相关问题探析〉，《语言应用研究》，2011.5，p.37

69) 郑绮/蒲霏，〈“怎么说”的语法化历程〉，《语言应用研究》，2009.10，pp.36-38

70) ““有的是”被收进《现代汉语词典》，未标注词性，意为强调很多（不怕没有）。它经历了“有的”和“是”到短语化“有的+是”再到词汇化“有的是”的过程。“有的是”在虚化过程中表现出不同的语法属性，在非完全虚化的阶段上，呈现动形两种属性，在完全虚化后，只有形容词的属性。” 王凯之/聂建芝，〈“有的是”的语法化条件〉，《渤海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0 第2期，p.132

71) Hopper&Traugott将语法化定义为：“实词性词项(lexical items)和构式(constructions)在特定语境里获得语法功能，而且一旦语法化，又会继续产生新的语法功能” 雷冬平，〈极度构式“最/再+x+不过”的构成及语法化研究〉，《湘潭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1. 01期，p.113

雷冬平은 〈极度构式“最/再+x+不過”的构成及語法化研究〉에서 口語習用語 “最/再+x+不過”의 어법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最/再+x+不過”의 의미는 최고 단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 “极其” 등에 해당한다. “x가 가지고 있는 성질의 정도가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높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他總把自己当作最普通不過的人。(그는 항상 자신을 가장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의 구조 “最/再+x+不過” 속의 x는 명사, 동사, 형용사 및 구(短語)일 수도 있고 심지어 문형(句式)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화된 구조 형식은 전체 어법화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⁷²⁾

李文浩는 〈“愛v不v”的构式分析〉에서 어법화의 각도에서 口語習用語 “愛v不v” 구조의 고정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 있다.

“愛v不v” 구조는 “선택에 따름”의 의미와 “불만”의 감정색채를 나타낸다. “v 하든 (혹은) 하지 않든 나는 상관없다. 네 자신의 일이다”에서 축소와 생략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또한 그 구조의 성분 중 하나인 “愛理不理”는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형식과 의미가 이미 어휘화되었다.⁷³⁾

필자는 어법화 정도가 약한 口語習用語를 그 내부 구조에 따라 〈표 4〉와 같이 분류했다.

<표 4>

종류	어법화 정도가 약한 口語習用語
주술 구조 (主謂式結構)	你/我知道(내가/내가 알듯이), 我說呢(어쩐지), 我敢說(틀림없이), 天曉得(하늘만 안다), 說話算數(말을 책임지다), 心里有/沒有底儿(마음속으로 자신이 있다/없다), 誰說不是(누가 아니래), 話又說回來(그런데 말이지), 實話告訴你(솔직히 말하면), 臉往哪儿攔(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나), 誰跟誰(어떤 사이인데), 二話沒說(두 말도 않고)...

72) “最/再+x+ 不過”의 語義相當於最高級別的極性程度副詞“極其”等，表達“x所具有的性狀程度高到不可超越”的意義。如，他總把自己當作最普通不過的人。構式“最/再+x+ 不過”中的x可以是名詞、動詞、形容詞以及詞組甚至是句式。而它的這種多樣化的構成形狀是在整個語法化的過程中形成的。雷冬平，〈極度構式“最/再+x+ 不過”的構成及語法化研究〉，《湘潭大學學報》，哲學社會學科版，2011. 01期，p.113

73) “愛v不v”構式表達“聽憑選擇”的語義和“不滿”的感情色彩，是由“愛v (或) 不v，我無所謂，是你自己的事”經過緊縮和省略而成。而其構式的成員之一“愛理不理”由於高頻使用，形式和語義已經詞匯化。李文浩，〈“愛v不v”的構式分析〉，《現代外語》第32卷 第3期，2009.8，p.232

술보 구조 (述補式結構)	想得倒美(꿈도 크셔), 想得到好(김치국 마시기는), 弄不好(잘못하면), 說得/不出來(말을 꺼낼 수 있다/없다), 管得/不着(간섭할 수 있다/없다)
술목 구조 (述賓式結構)	凭什么(뭘 믿고), 看笑話(웃음거리로 삼다), 有兩下子(재간이 있다), 有我哪(내가 있잖아), 有什么意思(무슨 소용 있어), 有一天(언젠가), 告訴你(잘 들어), 搞什么名堂(무슨 꿩꿩이야), 打招呼(알리다), 都是你(너 때문이야), 碍你什么事(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放在心上(마음에 두다), 放在眼里(안중에 두다), 說心里話(속마음을 털어놓다), 不是話(말이 안 된다), 不是玩儿的(장난이 아니다), 不是味儿(뭔가 아니다).....
중첩 구조 (重疊結構)	彼此彼此(피차 마찬가지로입니다), 意思意思(성의를 좀 보이다)...
부가 구조 (附加結構)	怎么搞的(어떻게 된 건지), 有了(생각났다), 行了(됐다), 有你的(대단해), 什么呀(뭐야)...
연동 구조 (連動結構)	看着辦(알아서 해), 不瞞你說(솔직히 말하면), 替你着想(다 너를 위해서야), 按理說(원칙대로 말하자면)...
겸어 구조 (兼語結構)	讓我說你什么好(너한테 뭐라 얘기해야 할지)
연합 구조 (聯合結構)	愛理不理(본체만체하다), 不冷不熱(미적지근하다), 千不該万不該(천부당만부당하다), 有完沒完(끝이 없어)...
其它	沒的說(두 말할 거 없다), 活該(고소하다), A跟B過不去(A가 B를 못 살게 하다), 給你添麻煩(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看把你美的(좋아하는 거 봐)...
격자형 구조 (框架式結構)	有什么A的(뭐 A 할 거 있겠어), 愛v不v(v 하든 말든)...

IV. 漢語口語習用語의 의미적 분석

1. 口語習用語 의미 構成

1) 표면의미와 實際 의미

孫維張은 《漢語熟語學》에서 成語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語表意義”와 “語位意義”를 제기하고 있다.

語表意義는 바로 成語의 표면의미로, 즉 成語의 표면적인 含義이다. 語表意義는 成語의 구성 성분인 단어의 의미에 성분 간의 결합 관계 의미가 더해져 공동으로 구성된 것이다.

語位意義는 成語의 진정한 含義로 成語가 공시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 그것은 成語의 형성 과정 중 수많은 의미의 작용 하에 다양한 요소가 융합되어 형성된 현실적인 의미로, 成語의 언어적 가치를 가지는 의미이다.⁷⁴⁾

成語 “猫鼠同眠”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猫鼠同眠

구성 성분 의미: 猫, 집에서 기르는 쥐를 잘 잡는 동물. 鼠, 쥐, 同, 한 덩어리, 함께.
眠, 잠자다.

결합 의미 관계: 주어(병렬) + 술어(수식)

語表意義: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자다.

語位意義: 법 집행자가 범법자와 함께 어울려 나쁜 짓을 함을 비유

溫端政은 《漢語語匯學教程》에서 成語 등의 熟語를 분석할 때 “표면의미(字面意義)”와 “실제의미(實際意義)”를 제기하고 있다.⁷⁵⁾

74) “语表意义就是成语的表面意义，亦即一个成语字面上的含义。语表意义是由成语的构成成分——词的意义加上成分之间的组合关系意义共同构成的。”，“语位意义即成语的真正含义，是成语在共时这个平面上所具有的意义。它是成语在形成过程中，在许多语义的作用下，融合多种因素而形成的现实的意义，是成语的有语言价值的意义。” 孙维张，《汉语熟语学》，吉林教育出版社，1989，pp.120-123

成語, 慣用語, 諺語 등 다른 熟語와 마찬가지로 口語習用語의 의미는 표면의 의미와 실제의 의미 두 부분으로 나뉜다. 표면의 의미란 口語習用語의 각 구성 성분이 직접 가리키는 의미이다. 실제의 의미란 표면의 의미 외에 口語習用語가 전달하는 전체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음 두 쌍의 예문을 비교해 보자.

A組：你看你

① (원문) 支局长捋起老人的裤管，抚着膝盖上那发热红肿的地方，说：“你看你这腿。”
--北大語料庫

(번역문) 지국장은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올리고, 무릎 위의 그 열나고 벌겋게 부은 곳을 감싸면서 말했다. “당신의 이 다리를 보세요.”

② (원문) “你父母肯定不会接受我！他们要门当户对的！我一个老百姓的儿子，会辱没他们的尊严！”加林又突然暴躁地喊着说。亚萍用极温柔的音调说：“你看你，又发脾气了。其实，我父母倒不一定是那样的人，关键是他们认为我已经和克南时间长了，全城都知道，两家的关系又很深了，怕……”
--路遙《人生》第十八章

(번역문) “당신 부모님은 분명히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그분들은 집안이 어울리길 바라실 거야! 난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라서 그들의 체면을 손상시킬 거야!” 자런이 또 갑자기 불 같이 소리치며 말했다. 야핑이 대단히 부드러운 어투로 말했다. “이 보세요, 또 성질이네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꼭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관건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미 커난과의 시간이 오래되어, 온 도시가 다 알고 두 집안의 관계가 깊어서, 걱정이……”

B組：誰跟誰

③ (원문) 同时几个人嘴里叫着，嚷着，笑着，闹着，也听不清谁跟谁说了些什么话。
--北大語料庫

(번역문) 몇 사람이 동시에 부르고, 소리치고, 웃고, 떠들어서 누가 누구와 무슨 말들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

75) 温端政, 《汉语语汇学教程》, 商务印书馆, 2006, pp.213-214

④ (원문) 过老太太说：“我有话对你说，先行个大礼。”紫云说：“咱姐俩谁跟谁呢？”
 --北大語料庫

(번역문) 께 할머니가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문안드립니다.”
 즈윈이 말했다. “우리 자매가 남입니까?”

A組 예문 ①의 “你看你”는 일반구로 나타내는 의미는 표면의미로, 지국장이 노인에게 열이 나고 벌겋게 부은 무릎을 보라는 것이다. 예문 ②의 “你看你”는 口語習用語로서 나타내는 의미는 실제의미이다. 즉 야핑이 자린의 말과 태도에 대해 책망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어떤 대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보세요”라는 뜻이다.

B組 예문 ③의 “誰跟誰”가 전달하는 것은 표면의미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말을 하는 것으로, “누가 누구와”라는 뜻이다. 이에 반해 예문 ④의 “誰跟誰”가 전달하는 의미는 口語習用語로 실제의미이다. 즉 즈윈이 께 할머니와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며, 피차를 구분하지 않으니 남처럼 대하지 말고, 예의를 차리지 말 것을 부탁하는 말로, “아주 가까운 사이”가 실제의미이다.

위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표면의미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일반구가 나타내는 직접적인 뜻이다. 그러나 일반구가 일단 口語習用語로 바뀐 뒤에는 원래의 일반구가 나타내는 의미는 잃게 되어 새로운 뜻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2) 실제의미의 分化

溫端政은 《漢語語匯學教程》에서 慣用語, 成語, 歇后語 등 熟語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그것들의 실제의미에는 기본 의미와 色彩 의미가 있으며, 色彩 의미는 이미지색채, 감정색채, 문체색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慣用語는 感情色彩에서 중요한 특징이 바로 貶義(貶義)적이라는 것이다. “碰了一鼻子灰”는 거절이나 좌절을 당하여 무안하게 된 것을 비유하는데, 주로 부정적인 면에서 사람들의 경험, 이미지 또는 동작 행위를 묘사한다.⁷⁶⁾

76) “它们的实际意义除了基本意义以外，还有色彩意义，色彩意义包括形象色彩、感情色彩、语体色彩。如惯用语在感情色彩上的一个重要的特点，就是贬义性。如“碰了一鼻子灰”，比喻遭到拒绝或挫折，落得没趣，主要从消极的一面来描绘人的遭遇、形象或动作行为。”溫端政, 《汉语语汇学教程》，商务印书馆，2006, p.212

기본의미와 색채의미에 대해 溫端政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기본의미는 이성(理性)이라고도 부르는데, 말의 가장 주된 핵심작용을 하는 의미이다. 색채의미는 부가(附加)의미라고도 부르는데, 기본(基本)의미 위에 특정한 느낌이나 언어환경이 부여한 특정한 의미가 부착된 것이다.⁷⁷⁾

符淮清은 《現代漢語詞匯》에서 단어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념(概念)의미”와 “부속(附屬)의미”를 제기하고 있다.

개념(概念)의미란 객관적 사물이 일반적인 본질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어의 부속(附屬)의미는 개념(概念)의미에 부착되어, 주로 단어의 이미지(形象)색채, 감정(感情)색채, 문체(文體)색채를 가리킨다.⁷⁸⁾

劉叔新은 《漢語描寫詞匯學》에서 단어와 고정어(固定語)의 의미를 분석할 때 그것들은 이성의(理性)의미와 감성의(感性)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통상 어떠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단어가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지를 아는 것이다. 또한 보통 추상적으로 본질적 특징 혹은 변별적 특징으로부터 대상을 파악한다. 이러한 이해, 앎과 파악은 이성적 인식의 과정이다. 또한 인지되는 의미 자체도 대상을 추상 및 개괄하는 인식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는 이성적인 것이다. 현대 중국어의 고정어와 거의 모든 단어는 모두 이성의(理性)의미가 있다. 단어 중에는 대량의 감성의(感性)부분이 있는데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결코 단어의 의미 주체가 되지 않는다. 단어의 이성의(理性)의미에 부가되어 의미 속에서 부차적인 부수적 지위에 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색채(色彩)를 나타낸 것 혹은 약칭해서 색채(色彩)라고 하는 것이다.⁷⁹⁾

또한 劉叔新도 다음과 같이 色彩에 대해 논하고 있다.

“색채를 표현하는 유형은 보통 교과서에 제시된 서너 종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들이 포함하는 것은 감정(感情)색채, 태도(態度)색채, 평가(評價)색채, 이미지(形象)색채, 문체(文體)색채, 어기(語氣)색채 등이 있다.”⁸⁰⁾

77) “基本义也叫理性义, 是语最主要的起核心作用的意义。色彩义也叫附加义, 它附着在基本义之上表达人的特定感受或语境赋予的特定意义。” 溫端政, 《汉语语汇学教程》, 商务印书馆, 2006, p.121

78) “概念义指客观事物一般本质特点的反映”, “词的附属义附着于概念义, 主要指词的形象色彩、感情色彩、语体色彩。” 符淮清, 《现代汉语词汇》, 北京大学出版社, 2004, p.58

79) “人们通常理解某个词语的意义, 就是知悉这词语指什么样的对象, 而且一般抽象地从本质特点或区别性特点来把握该对象。这种理解、知悉和把握, 是理性认识的过程; 而被认知的意义本身, 也形成在抽象、概括对象的认识基础上。因而这种意义是理性的。现代汉语所有的固定语和几乎所有的词, 都含有理性意义。” “词语中还有大量感性的部分并不独立存在, 并不成为一个词语的意义主体, 而是附着在词语理性意义上, 在词义或语义中处于次要的附属地位。这就是一般说的表达色彩或略称的色彩。” 刘叔新, 《汉语描写词汇学》, 商务印书馆, 2005, p.200

80) “表达色彩的类别远不只一般教科书所提到的三四种。它们包括感情色彩、态度色彩、评价色彩、形象色彩、语体

위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색채별 예를 들 수 있다.

감정색채: 失戀(실연) → 당혹스러움과 고통

拂袖而去(화가 나서 소매를 뿌리치고 감) → 화가 남

태도색채: 嚴詞拒絕(매섭게 거절하다) → 강경한 태도

拜望(찾아뵈다) → 존중의 태도

평가색채: 大公无私(공평무사하다) → 좋은 느낌을 가지는 평가색채

貪官污吏(탐관오리) → 나쁜 느낌을 가지는 평가색채

이미지색채: 狂飲大嚼(폭음하고 폭식하다) → 대상 자체가 직접 나타내는 이미지

문체색채: 視(보다), 觀(보다) → 서면어색채

瞧(보다) → 구어색채

어기색채: 寬容(관용하다), 松一口气(한시름 놓다) → 온화한 어기색채

嚴懲不貸(엄격하게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다) → 위협적인 어기색채

賈彦德은 《漢語語義學》에서 다음과 같이 부가의미를 제기하고 있다.

단어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는 단층적일 수는 있다. 즉, 하나의 의미 항목은 단지 하나의 의미소(意義素)의 기본의미만을 포함하며, 하나의 문장은 단지 하나의 문장 의미의 기본의미만을 포함한다. 하지만 양 층 적일 때도 있고 심지어 양 층 이상일 때도 있다. 즉 의미소(意義素)와 문장 의미는 모두 하나 또는 더 많은 부가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부가의미가 표시하는 의미는 감정, 이미지, 태도 등일 수 있으며, 또 이성 의미일 수도 있다.⁸¹⁾

위의 네 사람의 관점을 종합하면, 溫端政이 제기한 ‘기본의미(基本意义)’, 符淮清이 제기한 ‘개념의미(概念义)’, 刘叔新이 제기한 ‘이성의미(理性意义)’ 및 賈彦德이 제기한 ‘기본의미(基本义)’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즉,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본질적 특징을 반영한다. 필자는 그것들을 통칭하여 ‘기본의미’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 외에 溫端政이 제기한 ‘색채 의미(色彩意义)’, 符淮清이 제기한 “부속의미(附属义)”, 劉叔新이 제기한 ‘감성의미(感性意义)’ 및 賈彦德가 제기한 ‘부가의미(附加义)’는 모두 단어의 기본의미에 부가된 표현색채이다. 필자는 여기서 그것들을 통틀어 ‘부가의미’라고 부르고자 한다.

色彩、风格色彩、格调色彩、語氣色彩等。”刘叔新, 《汉语描写词汇学》, 商务印书馆, 2005, p.203

81) “词义和句子意义固然可以使单层的, 即一个义项只包括一个义位基本义, 一个句子只包括一个句义基本义; 但也可以是两层的, 甚至多于两层, 即义位和句义都可以带一个或更多的附加义。附加义表达有关的意味, 可以是感情、形象、风格等, 也可以是理性意义。”贾彦德, 《汉语语义学》, 北京大学出版社, 2006, P.316

口語習用語의 기본의미는 口語習用語 각각의 구성 성분이 이미 융합된 뒤 전체가 표현하는 추상적인 의미로, 객관적인 사물에 대해 본질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부가의미란 단어의 기본의미에 부착된 색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필자는 劉叔新이 단어에 대한 감정 의미의 분류에 근거하여 口語習用語에 대해 고찰하였다. 口語習用語의 기본 의미에 더해진 부가의미는 대략 여섯 가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⁸²⁾

첫째, 口語習用語의 감정색채로, 口語習用語가 가리키는 대상 자체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 활동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搞什么名堂(무슨 일을 꾸미나) → 분노의 감정
誰跟誰(우리가 어떤 사이냐) → 친근한 감정

둘째, 口語習用語의 태도색채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태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不在乎(개의치 않다), 管它呢(알게 뭐야) → 임의의 태도
愛理不理(본체만체 하다), 不冷不熱(미적지근하다) → 냉담한 태도
請多包涵(널리 양해바랍니다) → 공경과 공손한 태도
哪里哪里(별말씀을요) → 겸손과 공손한 태도

셋째, 口語習用語의 평가색채로, 사람들의 판단에 따른 일정한 평가를 가리키는데, 때론 긍정적이고 때론 부정적이다. 따라서 의도나 감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 모두가 口語習用語의 기본의미에 부가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가의미이다. 그것은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두 가지로 나눈다. 예를 들어,

好樣儿的(대단한 사람), 够意思(의리있다),
够朋友(친구답다), 真有兩下子(정말 대단하다) → 좋은 감정이 담긴 평가의미
不怎麼樣(별로다), 不是个東西(못된 놈),
不好說話(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다) → 나쁜 감정이 담긴 평가의미

82) 여기에서는 일부의 口語習用語만 분류하였다. 常玉钟의 《口語習用語功能词典》에 수록된 口語習用語의 부가의미는 부록에서 따로 표시하였다.

넷째, 口語習用語의 이미지색채로, 口語習用語가 가리키는 대상 자체에 대해 나타내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口語習用語 수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不知如何是好(어쩔 줄을 모르다) → 허둥대는 모양

气不打一處來(분통이 터지다) → 화가 난 모양

다섯째, 口語習用語의 문체색채로, 구어와 문어 두 종류의 문체가 대립되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이다. 구어에서만 사용되거나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구어색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문어색채가 있다.

이러한 예로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口語色彩 (A組)	文語色彩 (B組)
气不打一處來 (분통이 터지다)	怒不可遏 (노여움을 억제하지 못하다)
有什么大不了的 (뭐 대단한 거 있어)	小題大做 (사소한 일을 떠들썩하게 굴다)
不知如何是好 (어쩔 줄을 모르다)	左右爲難 (진퇴양난이다)
摸不着頭腦 (중잡을 수가 없다)	莫名其妙 (영문을 알 수 없다)
說話不算數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言而无信 (말에 신용이 없다)
送上門來 (제 발로 걸려들다)	自投羅網 (화를 자초하다)
活該 (고소하다)	罪有應得 (벌을 받아 마땅하다)
巴不得 (몹시 바라다)	迫不及待 (일각도 지체할 수 없다)
說得容易 (말은 쉽다)	談何容易 (말하기가 어찌 쉽겠는가)
豁出去 (죽기 살기로 하다)	孤注一擲 (승부수를 띄우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A조와 B조의 의미는 비록 비슷하지만, 그것들의 문체 색채는 차이가 있다. A조는 주로 일상 회화에서 사용되고, 확연한 구어색채가 있다. 그러나 B조는 문어 표현에 더 많이 사용되어 확연한 문어색채가 있다.

여섯째, 口語習用語의 어기색채로, 劉叔新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하나의 단어를 누가 사용하든지, 또 어떤 언어환경에서 사용하든지 화자나 시행자가 어휘에 대해 가리키는 대상의 어떤 어기를 표현할 때, 이 어휘는 어기색채가 있다.⁸³⁾

王力은 《中國現代語法》에서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언어는 각종 정서에 대한 표시 방식을 어기라고 부른다.
우리가 말할 때 종종 완전히 객관적으로 하나의 일을 진술할 수 없다. 대다수의 상황에서 말 한 마디에 다소의 정서를 지니고 있다.⁸⁴⁾

어기색채는 口語習用語의 의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어기색채의 예를 제시할 수 있다.

亏你說得出來(어떻게 네가 이런 말을 할 수가), 眞是的(정말), 眞够噲
(큰일이다), 都是你(너 때문이야) → 불만, 책망의 어기
等着瞧(두고 보자), 有你X的時候(네가 ~할 때가 있을 거야), 有你好看的
(네가 망신당할 날이 올 거야) → 위협의 어기
不要緊(괜찮아), 何苦呢(그럴 필요가 있니), 想開点儿(좋게 생각해라), 別
放在心上(마음에 두지 마) → 위안의 어기

이상을 종합하면 口語習用語 의미는 표면의미와 실제의미로 나눌 수 있으며, 실제 의미에는 다시 기본의미와 부가의의미가 있다. 또한 부가의의미에는 감정색채, 태도색채, 평가색채, 이미지색채, 문체색채, 어기색채가 있다. 이를 아래의 <그림 5>로 나

83) “当一个词语不论谁使用, 也不论用于什么样的上下文, 而总表现出说话人或实施者对词语所指对象的某种語氣时, 这词语便帶有語氣色彩。” 刘叔新《汉语描写词汇学》, 商务印书馆, 2005年, p.219

84) “凡语言对于各种情绪的表达方式, 叫做語氣。” “咱们说话的时候, 往往不能纯然客观地陈说一件事情; 在大多数情形之下, 每一句话总帶着多少情緒。” 王力, 《中国现代语法》, 商务印书馆, 1985, p.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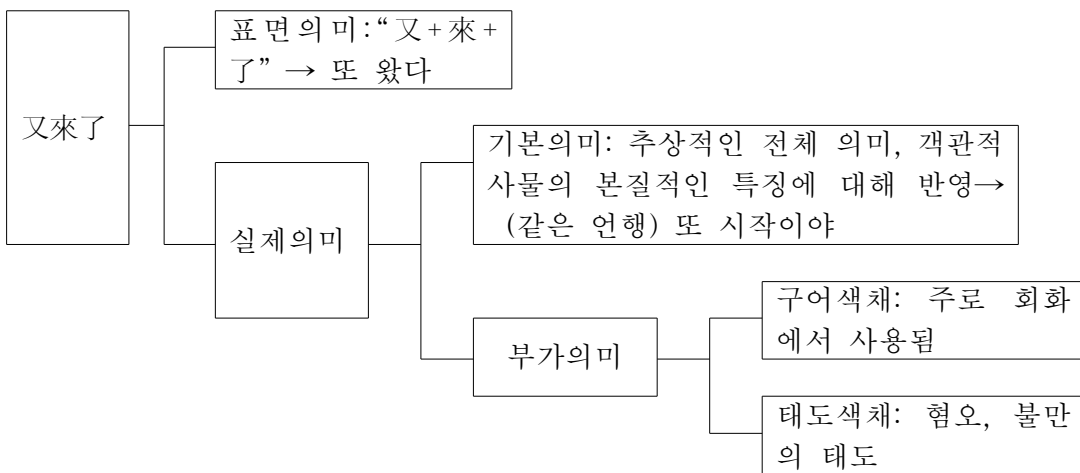
타낼 수 있다.

<그림 5>



위에서 제시한 口語習用語의 의미 구성을 기초로 “又來了”의 의미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



위 그림의 “又來了”는 각각의 단어 “又+來+了”가 포함된 일반구로 표면의미는 “이번 이전에 왔었는데, 지금 또 왔다”이다. 그러나 “又來了”가 口語習用語가 되어 나타내는 실제의미는 두 층이 있다. 하나는 기본의미로 추상적인 전체 의미인데, 객관적 사물에 대한 본질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의미는 “어떤 사람이 같은 행동이나 말을 계속 중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것은 부가의미로 대화 속에서 귀찮음과 불만의 태도를 나타낸다.

2. 口語習用語 의미간 관계

口語習用語는 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그 결합 요소들 각각의 의미의 단순한 합이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口語習用語의 실제의미와 표면의미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일까? 口語習用語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표면의미는 실제의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표면의미와 실제의미의 관계

인지의미론에서 언어의 의미는 언어 사용자의 경험이나 이해와 상관없이 이미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 구조적으로 분석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인지의미론은 인간의 언어능력을, 태어난 후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과 더불어서 형성되어 가는 개념과 인지기능을 표현하는 능력으로 간주한다. 인지의미론에서 개념체계는 기본개념과 기본개념에서 확장되는 추상개념으로 구성되는데, 전자의 개념이 지각능력, 운동능력 같은 것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공간개념, 신체운동의 개념, 사건의 구조, 색깔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면, 추상개념은 경험의 기반 위에서 원형, 은유, 환유, 정신적인 공간 같은 마음의 상상이 가해져서 얻어지게 되는 추상적인 개념체계라고 볼 수 있다.⁸⁵⁾ 인지의미론에서는 “대부분의 개념은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이해된다”⁸⁶⁾고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85) 오예옥, 《형식의미론과 인지의미론에서 본 어휘의미론》, 도서출판 역락, 2004, p.94

86) G. 레이코프/ 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나익주 옮김, 도서출판 박이정, 2006, p.124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들 중 아주 많은 것(정서, 아이디어, 시간 등)이 추상적이거나 경험 속에 명확히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다른 개념(공간 지향성, 대상 등)에 의해 그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필요성이 우리의 개념체계 속의 은유적 정의를 만들어 낸다.⁸⁷⁾

Lakoff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밀접한 모습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 방법의 하나가, 개념 메타퍼(metaphor)라고 했다. 메타퍼(metaphor)는 어떤 영역의 ICM(이상 인지 모델: Idealized Cognitive Model)에서 다른 영역의 ICM에의 경험 기반에 바탕을 둔 寫像(mapping)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이 寫像은 두 영역의 ICM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⁸⁸⁾

口語習用語 “不冷不熱”의 개념을 생각해 보자. 이 口語習用語는 ‘사람이나 일에 대한 태도가 열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냉담하지도 않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이때, ‘온도’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는 ‘冷’과 ‘熱’는 ‘태도’에 대한 개념에 전이되었다. 이는 [사람은 그릇이다], [태도는 열] 은유에 의해 표현되었는데, 중국인은 사람이나 일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것을 ‘熱(뜨겁다)’라고 느끼고, 소극적인 것을 ‘冷(차갑다)’이라고 느낀다. 또한 [사람은 그릇이다] 은유에서 마음을 닫으면 그 속에 있는 ‘열’이 그릇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므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 수 없게 한다. 口語習用語로서 “不冷不熱(뜻뜻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는 부가적 의미가 있지만, 일반구 “不冷不熱(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는 표면의 의미가 있다. 이 둘의 관계는 물리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근거하고 있다. 원래 일반구로서 “不冷不熱”는 온도에 대한 표현 방식이었다.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것을 나타내거나 끓인 물의 온도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음을 표현할 때 “不冷不熱”를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不冷不熱”가 오랜 세월동안 하나의 연어(collocate)로서 사용되다보니 그 구조가 고정되었다. 온도를 나타내는 “不冷不熱”를 “不熱不冷”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수증기나 불꽃같이 뜨거운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지식은 ‘차가움’을 뜻하는 ‘冷’을 앞에 두고, ‘뜨거움’을 나타내는 ‘熱’는 뒤에 놓게 된다. 그러다가 일반구였던 “不冷不熱”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어 연어(collocate)로 굳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평안함 또는 행복함은 위] 와 같은 기본적인

87) G. 레이코프/ M. 존슨, 앞의 책, p.209

88) G. 레이코프, 《인지 의미론》, 이기우 옮김, 한국문화사, 1993, p.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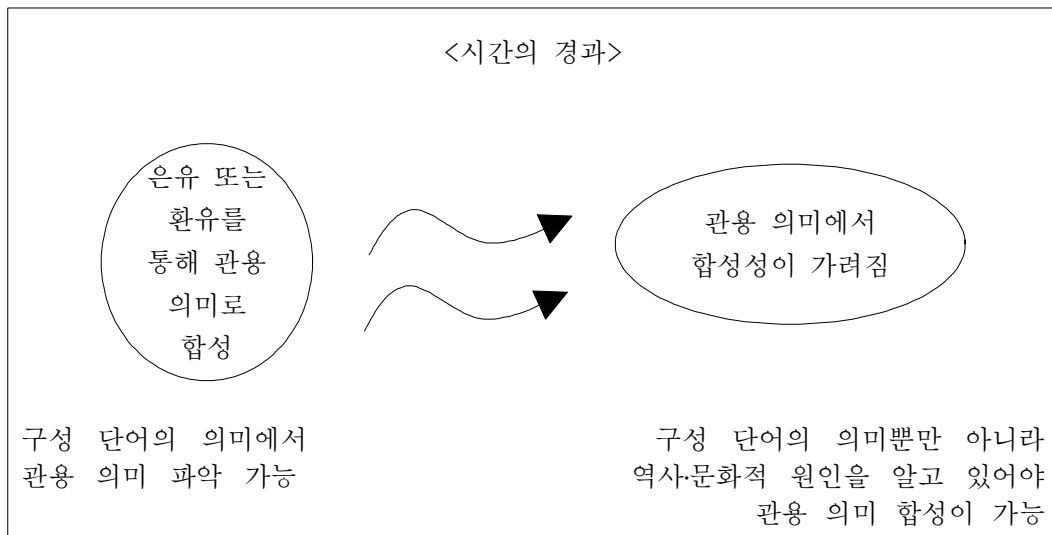
은유적 개념들을 가지게 된다. 따뜻한 음식, 손길의 따뜻함 같은 물리적인 체험에서 부터 어른들이 기분이 좋을 때 아이를 안아 올려주거나, 목소리에서 기분이 좋을 때는 어조가 높아지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는 곧 사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은 ‘熱’라는 의미가 생겨나며, 부정적인 태도는 ‘冷’이라는 은유적 개념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온도에 대해서만 즉, 표면의미로만 사용되던 연어 “不冷不熱”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도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不冷不熱”는 부가적 의미가 있는 口語習用語로도 사용되게 된 것이다.

심지연(2009)은 관용어⁸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관용어는 관련된 역사문화적 내용이 은유나 환유와 같은 인지의미론적인 기제로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가 동기화되어 관용 의미로 합성이 되었기 때문에 관용 의미의 합성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용어가 생성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관용어에서 나타나던 관용 의미의 합성성을 가리게 되었기 때문에, 언중들은 이들 관용어와 관련된 역사문화적 원인을 알지 못하면 관용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에서 관용 의미로 동기화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⁹⁰⁾

심지연은 이를 다음 <그림 7>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7> 역사·문화적 원인으로 동기화된 관용어의 관용 의미 형성 과정



89) 第四章에서 언급한 ‘관용어’는 중국어의 ‘慣用語’와는 다른 개념의 용어로 한국어나 영어의 관용어를 가리키며, 口語習用語 보다는 범위가 훨씬 넓다. 이동혁은 《한국어 관용 표현의 정보화와 전산 처리》에서 ‘관용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문법적 관용 표현’, ‘언어 표현’, ‘숙어 표현’, ‘화용론적 관용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 의하면 口語習用語는 일부의 ‘숙어 표현’과 일부의 ‘화용론적 관용 표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동혁, 《한국어 관용 표현의 정보화와 전산 처리》, 도서출판 역락, 2007

90) 심지연, <국어 관용어의 의미는 합성적인가? 비합성적인가? -인지의미론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 고찰->,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고려대학교, 2009

표면의미는 보통 사전에 수록된 의미를 가리키지만 그 범위는 대단히 모호하다. 원래 단어가 아니었던 구(短語)나 口語習用語도 사전에 실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를 표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원래부터 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들조차도 일차적인 의미 외에 여러 가지 의미 항목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에 수록된 단어들도 더 이상 은유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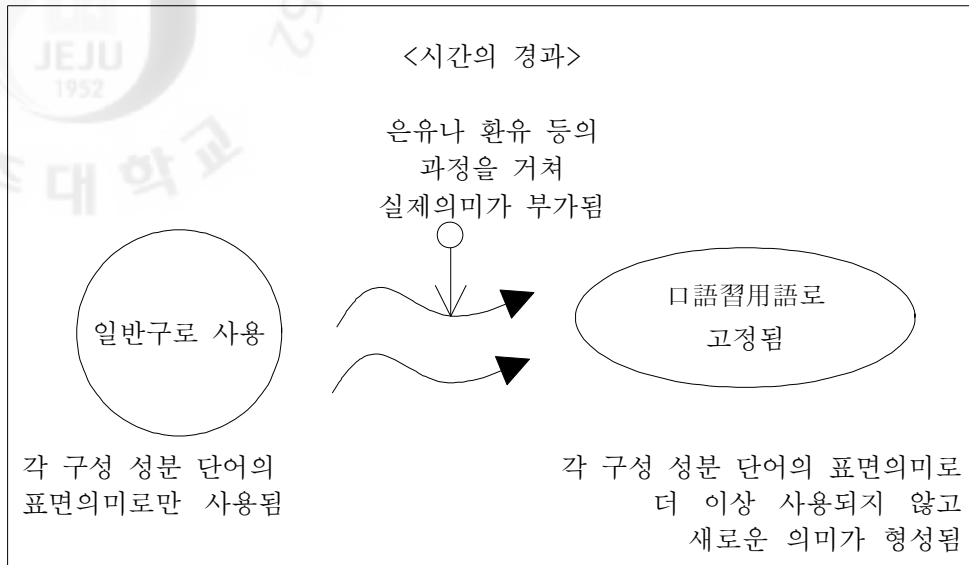
또 다른 예를 통해 口語習用語의 표면의미와 실제의미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체면 손상과 관련된 口語習用語 “臉往哪儿攔”의 표면의미는 ‘얼굴을 어느 쪽으로 둘까?’이며, 실제의미는 ‘체면이 뭐가 되나?’이다. 이 口語習用語는 표면의미로만 사용되는 일반구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 口語習用語는 ‘얼굴’을 ‘체면’에 대신한 환유적 표현이다. ‘攔’는 ‘두다, 놓다(放)’의 표현으로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얼굴’은 ‘체면’을 대표하는 신체 부위인데, 이는 부끄러울 때 얼굴이 붉어지는 생리현상을 관찰한 결과 어렵지 않게 환유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체면’을 상징하는 ‘臉(얼굴)’을 어느 방향에 돌지를 반어적으로 묻는 형식으로 구성된 이 口語習用語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어디 돌 데가 없다’는 이미지를 생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口語習用語 “臉往哪儿攔”라는 말을 들을 때 ‘체면 손상’에 대한 실제의미를 이해하겠지만, 이 이해의 밑바닥에는 ‘얼굴을 어느 쪽으로 둘까?’라는 표면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표면의미는 이미지색채를 보다 두드러지게 하며, 실제의미를 이해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口語習用語를 표면의미의 함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형성 과정에서 표면의미가 기초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張風格도 <口語習用語情態意義的隱喻實現方式>에서 주로 口語習用語에 나타난 신체 기관의 경험과 관련된 은유를 논한 바 있다.⁹¹⁾

上述한 바와 같이 口語習用語가 표면의미에서 실제의미로 융합되는 과정을 위에서 인용한 <그림 7>을 참고하여 아래의 <그림 8>로 나타낼 수 있다.

91) 張風格, 〈口語習用語情態意義的隱喻實現方式〉, 《漢語研究與應用》第六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그림 8> 口語習用語의 발생과 융합 과정



위의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표면의미로만 사용되던 일반구가 은유나 환유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적 의미가 부가된다.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표면의미의 단순한 합’ 이상의 새로운 의미를 가진 口語習用語로 고정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2) 실제의미간의 관계

앞에서 口語習用語의 형성에는 표면의미가 기초가 되었으며, 口語習用語로 굳어진 후에는 실제의미로만 통용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의미에는 기본의미와 부가의미가 있으며, 부가의미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고 논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기본의미와 부가의미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你看你”는 口語習用語로 볼 수도 있고, 일반구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화 속에서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口語習用語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아니면 일반구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앞 절에서 논했듯이 口語習用語는 일반구가 오랜 시간동안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표면의미만 있던 구(短語)가 또 다른 의미도 추가로 가지게 되는 구(短語)로 변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口語習用語를 사용해서 말할 때나 口語習用語를 들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일까? 다음의 예를 통해 알아보자.

① (원문) **你看你**, 早晨刚穿的衣服, 没一会儿就弄得这么脏。

(번역문) **이거 봐**, 아침에 막 입었던 옷이 벌써 이렇게 더러워졌잖아.

예문 ①의 口語習用語 “你看你”의 의미는 “너는 옷을 이렇게 더럽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기분이 나빠”라는 뜻이다. 화자는 상대방에 대해 야단치며 불만의 語氣를 표시한다. 그러나 단지 “你看你” 이 세 개의 평범한 글자만 사용해서 책망과 불만의 語氣를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你看你”는 중국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한 사람 사이에서만 사용하며, 어느 정도는 애정 어린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다. “你看你”는 “너를 봐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관용적 의미는 상대방의 어떤 행위나 표현에 대한 관심어린 질책 또는 상대방의 행위나 과실에 대한 책망을 나타낸다. “你看你”는 일종의 환유에 의한 표현인데, ‘보다’라는 부분적인 동작으로 ‘살피다’, ‘관찰한 뒤에 판단하다’라는 또 다른 부분적인 의미를 부각시킨다. 동시에 육안으로 보는 동작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Gibb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관용어들은 비(非)관용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때보다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훨씬 더 빨리 이해된다.⁹²⁾ 口語習用語도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들리는 표현 형식이므로 일반구로 사용될 때보다 더 빨리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어 口語習用語 “够受的”의 표면의 의미는 ‘够(어떤 정도가 높음) + 受的(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뜻의 결합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口語習用語의 기본적인 의미는 ‘難以忍受(감당하기 어려움)’이 된다. 그 부가의 의미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호소, 동정 또는 고소해 함’이라는 의미이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부가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② (원문) 看见了您, 我觉得好多了! 我这一天呀, 真是**够受的**!

——北大語料庫

(번역문) 당신을 만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습니다!**

92) 레이먼드 W. 깁스, 앞의 책, p.378

③ (원문) 我说, 你是怎么一回事? 人家女孩子出来作事就够受的了, 你还戏耍她?

— 北大語料庫

(번역문) 어이, 넌 어떻게 된 거냐? 여자애가 나와서 일하는 게 힘 든건데,
넌 개를 또 놀리려고?

④ (원문) 芳林嫂笑着说: “够他受的! 正打在头上, 现在松尾头上准起了一个大
疙瘩。”

— 北大語料庫

(번역문) 팡린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 놈도 괴로웠을거야! 마침
머리에 맞아서, 지금 분명히 송웨이 놈 머리에 혹이 커다랗게 났을 걸.”

위에 사용된 口語習用語 “够受的”의 부가의미는 각각 ‘자신의 괴로움에 대한 호소’, ‘타인의 괴로움에 대한 동정’, ‘타인의 괴로움에 대해 고소하게 여김’이다. 이러한 부가의미는 기본의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결코 단순히 “難以忍受(참기 어렵다)”라는 기본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앞의 두 예문에 있는 “够受的”는 그 기본의미인 “難以忍受”로 바꾸어 쓴다면 둘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을까? “難以忍受”로 사용한다면 기본의미는 바뀌지 않으나 “够受的”를 사용했을 때의 부가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難以忍受”라고 사용하지 않고 “够受的”라고 할 때의 부가의미는 보다 구어체적인 느낌과 보다 가벼운 느낌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够(충분하다)’에 들어있는 표면의미로 인해 ‘어려움을 충분히 겪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예문에서 “够受的”를 사용하는 것과 “難以忍受”를 사용하는 것을 동등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으로 기본의미와 부가의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가의미는 口語習用語의 의미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말을 할 때는 보통 완곡하게 표현하며 대부분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태도 또는 판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자의 각종 감정색채와 어기색채 등은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글자 속에 숨겨져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부가의미는 기본의미 속에 고정되어 함께 의사소통 중에 그 역할을 발휘한다. 漢語口語習用語는 중국인의 이러한 말하기 습관이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이 말할 때 표현하는 감정이 풍부하면서 복잡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포괄하기가 어려우며 진일보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어떤 口語習用語는 하나의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 표현하는 어기도 서로 교차한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 중 대표적인 예를 아래의 <표 6>으로 정리하였다.

<표 6>

口語習用語	기본의미		부가의의미
	중국어 의미	한국어 의미	
眞行	某人做某事很有能力	대단해, 잘났어	칭송, 칭찬 표시
沒說的	无可指責	두말 할 게 없다	
眞有兩下子	在某方面有能力的	대단해	
够朋友	對他人能盡朋友的情分	친구답다, 의리 있다	
好樣的	對有作爲人的稱贊	장하다	
够意思	有義氣	의리 있다	
看你/你看你	你做得不對	봐봐	책망, 불만 표시
亏你做得出來	居然能做出這樣的事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臉往哪儿擱	沒有面子，覺得丟臉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나	
現在可好	你沒听我的話，結果糟糕	인제 어떡할래?	
搞什么名堂	你做的事讓人不明白	무슨 꿩꿩이를 꾸미나	
都是你	不好的結果是你造成的	너 때문이야	
眞是的	你做的事令我不高興	참 내	
不像話	言行不合理	말도 안 돼	
給你添麻煩	因爲自己的事，增加了對方的負擔，感到歉疚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口語習用語	기본의미		부가의미
	중국어 의미	한국어 의미	
不好意思	表示歉意、不安	미안해요	인사말, 미안함 표시
讓你破費了	讓你花了錢, 我感到歉意	과용하시게 했네요	
過意不去	給別人帶來不便, 心里感到不安	송구스럽다	
哪里哪里	對對方的稱贊表示謙虛	무슨 말씀일요	
沒/有什么大不了的	事情不重要, 不必担心	별 거 아니다	충고, 위로 표시
別放在心上/別往心里去	別想不順心的事	마음에 두지 마세요	
看/想開点儿	勸人要胸懷寬廣, 不計較	좋게 생각해라	
想/看遠点	勸人要有長遠的目標	길게 바라	
等着瞧	暗示對方會遇到麻煩	두고 보자	위협 표시
有你好看的	威脅對方會遇到麻煩	좋지 못한 꼴을 보게 될 거야	
放..... (聰明) 点儿	你要採取正確的做法, 避免不良后果	좀 ~(똑똑) 해라	
跟你沒完	要徹底追究你的責任	아직 안 끝났어 끝장을 보겠다	
好說	接受對方的請求	걱정할 필요 없다	승낙, 응답 표시
看我的	我完全有能力做成某事	내가 (얼마나 잘 하는지) 하는걸 봐	
包在我身上	我會完成, 請你放心	제게 맡기세요	
沒說的	完成某事沒有問題	문제 없어요	
又來了	又說我不愛聽的話, 真討厭	또 시작이다	
			싫증, 制止 표시

口語習用語	기본의미		부가의미
	중국어 의미	한국어 의미	
有完沒完	別再說或做了	끝이 없다	
够了	我不愿再听或看了	됐다	
沒完沒了	令人厭煩的某种言行一直延續	끝이 없다	
那也是/那倒是	同意你和我不一樣的說法或做法	그도 그래	동의 표시
可也是	你說得也對	그건 그러네	
可不是/那可不	你說的對，我同意	왜 아니겠어	
那還用說	不用說	두말 하면 잔소리지	
想到哪儿去了	根本沒有這樣的事	잘 못 생각했어	否認, 반대 표시
不是一回事/兩碼事/哪儿跟哪儿啊	兩件事不一樣	별개의 일	
不是這個意思	你想得不對	이런 뜻이 아니야	
不見得	你想得不一定對	(혹시) 알 수 없다	
V/adj.+什么呀	不是你所認為的那樣	뭐가 ~(V/adj.)해	
說得比唱得還好听	說得很好，但言行不一致	말 하나는 잘도 해	풍자 표시
想得倒美	你說的不能實現	생각이야 좋지	
亏你還是个A	你所做的与身份不符	A라는 사람이 (겨우 이 정도야)	
看你美的	你高興得太過分	좋아하는 것 좀 봐	

3. 口語習用語의 의미 특징

口語習用語의 의미는 결코 각 구성 성분 의미를 기계적으로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되어 형성된, 사회적으로 약속된 특정 함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 성분의 의미로부터 단순하게 추측해 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口語習用語의 두드러진 특징인 의미의 융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孫維張은 《漢語熟語學》에서 熟語의 형성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熟語 형성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定義化이다. 주로 의미의 融合 過程으로 표현된다. 소위 定義化란 일반구의 의미를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구의 의미를 融合性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어떠한 일반구도 일반적으로는 모두 명확한 고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일반구의 의미는 분석적인 것으로, 구성성분의 의미에 결합 관계의 의미를 더해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고정어로서의 熟語는 그 의미가 융합적인 것으로, 구성성분 의미와 결합 관계 의미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하나로 융합된 것이다. 그러므로 熟語 형성의 定義化 과정은 주로 의미의 융합 과정을 표현한다.⁹³⁾

口語習用語는 熟語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형성과정도 주로 의미의 융합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口語習用語의 실제의미는 구성성분이 가지고 있는 표면의미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구성성분 전체가 하나의 의미로 융합되었다는 것이다.

口語習用語의 구성성분 또한 각 단어의 의미는 독립성을 완전히 잃거나 일부 잃어버렸다. 口語習用語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에 어법관계 의미를 단순히 더한 합이 아니다. 口語習用語를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는 더 이상 단독으로 의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성분 상호간에 서로 의지하고 제약하여 하나의 전체 의미로 융합되는 것이다. 그것은 종종 하나의 전체로서 어떤 완전한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口語習用語의 융합성은 기본의미에서만 아니라 부가의미에서도 나타난다. 口語習用語의 부가의미 또한 개별 구성성분의 표현이 아니라 口語習用語의 모든 구성 성분의 전체의 표현이다. 예를 통해 口語習用語 의미의 融合性을 살펴보자.

93) “熟語形成過程的重要方面是定義化。主要體現為語義的融合過程。所謂定義化，不僅是把自由詞組的意義固定下來，而且更主要的是使自由詞組的語義發生融合性的變化，因為，任何自由詞組，一般地說，都有明確的固定的意義。但是，自由詞組的意義是分析性的，是由成分的意義加上組合關係的意義構成的，而作為固定詞組的熟語，其語義是融合性的，不是成分意義和組合關係意義的簡單相加，而是融為一體的。所以，熟語形成的定義化過程，主要體現為語義的融合過程。”孫維張，《漢語熟語學》，吉林教育出版社，1989，p.365

① (원문) A : 这个项目的顺利完成, 多亏了您的支持。这是我们家乡的土产, 请您收下。

B : 别别别, 咱们工作归工作, 别来这一套。

—劉德聯、劉曉雨, 《漢語口語常用句式例解》

(번역문) A : 이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완성은 당신의 지지 덕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향의 특산물인데,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B :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업무는 업무고,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예문 ① 중의 口語習用語 “別來這一套”의 의미는 “나에게 이 세트의 물건을 가져오지 마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화자가 상대방을 거절하거나 제지함을 표시하며, 비평과 질책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現代漢語詞典》에서 “套”의 의미 항목은 18개가 있다. 그 중의 한 의미 항목은 ‘量詞, 묶음이 되는 사물에 쓰임. 一套設備, 一套家具, 一套課本’⁹⁴⁾는 있지만, 상술한 의미인 “这类事情”의 의미 항목은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別來這一套”가 단어의 의미에 단순히 다른 단어를 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각 단어는 이미 그 본래 의미의 독립성을 잃어버렸다. 개별 단어의 의미는 단독으로 의사 전달 작용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지하고 상호 제약하여 하나의 전체로 융합된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 중의 부가의미, 즉 비평과 책망의 의미도 내부의 어떤 단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 성분이 함께 고정되어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口語習用語 의미의 融合性이다.

常玉鐘은 《口語習用語略析》에서 口語習用語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口語習用語의 의미는 일반 의미와 특수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의미가 가리키는 것은 구성 성분의 의미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口語習用語 전체의 의미를 구성 성분의 의미로부터 추측할 수 없고, 그것이 각 항의 구성 성분 의미의 기계적인 총합이 아닌 것을 특수 의미라고 부른다.⁹⁵⁾

94) 量詞, 用于成组的事物: 一套设备、一套家具、一套课本 《现代汉语词典》, 商务印书局, 1997, p.1233

95) “口语习用语的语义可分为一般义和特殊义, 一般义指的是能从组成成分的意义推出来的; 而整个口语习用语的语义从组成成分的意义推断不出来, 它不是各项组成成分意义的机械总合, 此种语义称为特殊义。” 常玉钟, 《口语习用语略析》, 《语言教学与研究》, 1989, p.154

栗甜도 《對外漢語教學中的口語習用語理解研究》에서 口語習用語에서 사용된 단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口語習用語의 글자는 모두 간단한 漢字로 결합되었으며, 결합 방식도 특수하지 않다. 따라서 각각의 口語習用語는 모두 그 기본 의미가 있다. 즉, 구성 성분의 표면의미로부터 유도해 나온 의미이다. 예를 들어, “開什么玩笑?”는 그 기본 의미가 장난치는 내용과 성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⁹⁶⁾

이상 종합해 보면, 口語習用語의 의미는 결코 각 구성 성분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합친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고정된, 사회적으로 합의된 특정 함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 성분의 의미에 따라 간단하게 추측해 낼 수 없는 것이다.

口語習用語 의미의 융합성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⁹⁷⁾

첫째, 각 성분의 결합이 어법 규칙에 부합되며, 동일한 형태의 일반구도 존재하는 口語習用語다. 물론 口語習用語로 사용될 때는 표면의미의 합으로 이루어진 의미가 아니라 장기간 사용되면서 융합된 의미이다. 예를 들어,

① (원문) 赵书记摆手制止他说下去：“叫我说，还是那句老话，有不同意见可以保留。要允许有不同的意见和建议……”
--北大語料庫

(번역문) 짜오 서기가 손을 내저으며 그의 말을 막았다. “제 말은 전에도 항상 말했던 것처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의견과 건의를 허락해줘야 합니다……”

② (원문) 小李啊，你把事情弄成这样，让我说你什么好呢？

--2007.6.17 HSK기출문제듣기1

(번역문) 샤오리야,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다니 너한테 뭐라 할 말이 없다!

96) “口語習用語字面都是简单的汉字的组合，组合方式也不特殊，所以每个口語習用語都有其基本义，即从组成成分的字面意义推导出来的意义。如“开什么玩笑？”其基本义是询问玩笑的内容和性质。”栗甜，〈對外漢語教學中的口語習用語理解研究〉，《陝西師範大學碩士論文》，2007.4，p.10

97) 拙稿 〈试析口語習用語〉，《中國人文科學》第四十一輯，2009年，p.150

예문 ① 속의 口語習用語 “叫我說”는 표면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겸어문(兼語文)’ 문형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다”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의견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는 삽입어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는 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예문 ② 속의 口語習用語 “讓我說你什么好呢”는 표면적으로 보면 ‘겸어문’이지만, 무엇을 얘기하면 좋을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의 의미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며, 무슨 말로 비평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뜻이다. 즉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음을 나타내는 어기를 내포하고 있다.

또 다른 예문을 통해 일반구의 의미와 口語習用語의 의미로 각각 사용되는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弄不好”

③ (원문) 这种衣服我不太会做, 这个部位总**弄不好**。(일반 의미)

(번역문) 이러한 옷을 나는 잘 만들지 못한다. 이 부위는 아무리 해도 잘 할 수가 없다.

④ (원문) 他家离单位太远, 坐公共汽车上班, **弄不好**, 两个小时也到不了。

(특정 의미)

(번역문) 그의 집은 회사에서 너무 멀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자칫하면 두 시간에도 도착하지 못한다.

예문 ③과 예문 ④의 “弄不好”는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일치하지만, 예문 ③의 “弄不好”는 口語習用語가 아니라 일반구로서 단어의 임시 결합이며 그것이 전달하는 의미는 각 단어의 의미가 더해진 의미이다. 여기에서 “弄”은 동작동사(動作動詞)인데, 그 의미는 《現代漢語詞典》의 두 번째 의미 항목인 “搞, 做, 辦”⁹⁸⁾이다. “弄(동사)+不好(가능보어)”는 문장에서 분리되어 따로 흩어져도 여전히 문장 속의 원래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④의 “弄不好”는 일종의 추상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의 고정된 전체로서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즉,

98) 《現代漢語詞典》 第五版, 商务印书馆, 2005, P.1006

어떤 상황 아래서 발전 방향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을 나타내며, 발생하게 될 지도 모를 결과를 지적한다. 걱정 어린 語氣를 가진 “弄不好” 세 글자는 만약 문장에서 벗어나서 따로 흩어지면, 문장 속의 이러한 고정된 의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또한 口語習用語 의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다시 예문 “開什么玩笑?”에 대해 알아보자. 만약 이 말이 농담하는 내용이나 성질에 대한 질문으로서 ‘什么’가 “看什么書?”, “听什么音樂?”처럼 사용될 때는 일반적인 의문문이지 口語習用語가 아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開什么玩笑?”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절대 들어줄 수 없거나 실현 불가능함을 표현하는 데 이미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종종 거절에 사용되며, 어떤 때는 비꼬는 語氣가 있으며, 그것이 口語習用語로서 사용될 때 표현되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開什么玩笑”

⑤ (원문) A: 那个辅导学校说只要一年付十万块钱学费, 保证你想上哪个大学就上哪个大学。

B: 开什么玩笑! 要真这样, 给钱就行了, 还学什么!

--劉德聯·劉曉雨 《漢語口語常用句式例解》

(번역문) A: 그 학원에서 일 년에 학비로 십 만원만 지불하면, 어느 대학이든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대.

B: 장난 하나! 그럼 돈만 주면 되지 공부는 무슨 공부야!

⑥ (원문) 熟悉他的人说老曹乐观、好开玩笑, 但是有一条, 和他开什么玩笑都行, 就是不能碰帽子, 一碰就急眼。 --北大語料庫

(번역문) 그를 아는 사람 말로는 차오 형은 낙관적이고 농담을 좋아한대요. 근데 한 가지, 그 사람과 어떤 농담을 해도 되지만, 모자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화를 내요.

이상의 “弄不好”와 “開什么玩笑”에 관한 예문을 <北大語料庫>에서 찾아보면 “弄不好”를 모두 357건이 검색된다. 그 중 4건만이 일반구로 사용되었고, 353건은 口語習用語로 사용되었다. “開什么玩笑”를 찾아보면, 모두 53건이 검색되는데, 그 중 1건

만이 위의 예문 ⑤와 같은 일반구로 일반적인 진술문에 사용되었다. 나머지 52건은 모두 반문을 나타내는 口語習用語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弄不好”와 “開什么玩笑” 등 口語習用語의 의미의 융합성이 이미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즉 일반구로 문장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아주 적으며, 고정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상술한 것과 같은 口語習用語는 많이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아래의 표에 수록하였다.⁹⁹⁾ 이들이 口語習用語로 사용될 때는 기본의미와 부가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일반구로 사용될 때는 구성성분의 의미의 합인 표면의미만 나타내기 때문에 口語習用語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융합된 의미와는 다르다.

<표 7>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기본의미	부가의미	
不是[A]的材料	[A] 할 그릇이 아니다	실망 표시	[A]의 재료가 아니다
不是時候	적절한 때가 아니다	판단 표시	때가 아니다
不是說	~라고 하지 않았니	불만 표시	~라고 하지 않다
誰叫	누가 ~하랬나	원망 표시	누가 ~시키나
告訴你	잘 들어	경고 표시	너에게 알려주다
算老几	뭘데	불만 표시	몇 켤
沒關係	괜찮아	양해 표시	관계가 없다
那是	그러게	동의 표시	그것은 ~이다
你不知道	넌 모르겠지만	강조 표시	너는 모른다

99) 본 논문 부록에 《口語習用語功能词典》 한국어 의미 일람표를 실었다.

둘째, 표면적으로 구성 성분 결합이 어법 규칙에는 부합되지만 동일한 형태의 일반구는 존재하지 않는 口語習用語이다. 이는 일반구의 표면의미의 함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口語習用語로만 고정되어 융합된 의미만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⑦ (원문) 小王做什么事都不跟我打招呼, 真没把我放在眼里。

-- 2007.6.17 HSK기출문제듣기1

(번역문) 샤오왕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한테 말도 안 해, 정말 내가 안중에
도 없어.

⑧ (원문) 以前都是我做得不对, 看在多年邻居的份上, 你就别往心里去了。

(번역문) 전에 내가 다 잘 못했어, 몇 년 동안 이웃으로 지낸 걸 봐서라도 너
무 마음에 두지마라.

⑨ (원문) 星期天休息, 还要加班儿, 真不像话!

(번역문) 일요일은 쉬어야 하는데, 초과 근무까지 해야 하다니 정말 말도 안
돼!

예문 ⑦의 口語習用語 “沒把我放在眼里”는 구조면에서는 “把”字句이며 표면의미는 “나를 눈에 넣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표면의미는 어울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눈 안에 사람을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불만의 어기를 나타낸다.

예문 ⑧의 口語習用語 “别往心里去了”는 표면의미로 본다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마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표면의미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말이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타내는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이 좋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 기억하지 말고, 넓게 포용하고 따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예문 ⑨ 속의 口語習用語 “真不像话”는 구조면에서는 ‘술목구’이며, 표면의미는 “跟話不一樣” 즉 “말과 같지 않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여기거나 또는 어떤 일이 이치에 맞지 않아 용인할 수 없으며 불만스러움을 나타낸다.

상술한 것과 같이 일반구로 사용되지 않는 口語習用語의 일부를 아래의 표에 수록하였다.

<표 8>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¹⁰⁰⁾
	기본의미	부가의미	
不是滋味	별로다	실망 표시	△
看笑話	웃음거리가 되다	근심 표시	△
臉往哪儿擱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나	불만 표시	△
送上門來	제 발로 걸려들다	조롱 표시	△
不行	안 돼	제지 표시	△
變着法	온갖 계략을 동원하여	불만 표시	△
打招呼	인사하다 통지하다	인사치레 표시	△
不見得	알 수 없다	반대 표시	△
到頭來	결국은	실망 표시	△

위의 표에 나온 口語習用語는 표시된 기본의미와 부가의미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일반구로 만약 사용하려 해도 어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의미적으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不是滋味”은 “滋味(맛, 재미)”이 “有”나 “沒有”와만 의미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또, “看笑話”는 “笑話(농담)”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들을 수만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看”과는 의미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

100) 일반구로 사용되지 않지만 어법에는 부합되기 때문에 ‘△’표시를 하였음.

셋째, 구성 성분 간의 결합이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어법 규칙에 부합되지도 않아 동일한 형태의 일반구가 존재하지 않는 口語習用語이다. 표면적인 구조에서는 의미가 통하지 않고 口語習用語로 사용될 때만 의미가 통하는데, 이 또한 의미의 融合性으로 인한 것이다. 즉, 구성성분간의 결합이 어법에 어긋나지만 성분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⑩ (원문) 男：你觉得张晓梅这个人怎么样？

女：那沒的說。在我们单位里，没有一个人不夸她的。

--2007.6.17 HSK기출문제듣기2

(번역문) 남：네 생각에 장샤오메이 사람이 어때?

여：그건 말할 것도 없지, 우리 회사에서 그녀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⑪ (원문) 你能亲自去机场接他们，那真是再好不过了。

(번역문) 네가 직접 그들을 마중하러 공항에 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거야.

예문 ⑩ 중의 口語習用語 “那沒的說”의 의미는 트집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며, 칭찬과 만족의 어기를 나타낸다. 비록 그것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결합은 어울리지 않고 어법 규칙에 부합되지도 않지만, “那很好” 같은 문장처럼 사람들의 일상생활 회화에서는 자주 출현한다.

예문 ⑪ 속의 口語習用語 “再好不過了”를 보면, 그 의미는 이것과 비교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며, 찬성과 기쁨의 어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한국 학생들은 아마 어법 규범에 더욱 부합하는 “太好了”나 “好极了” 같은 문장을 사용하여 이런 의미를 나타낼 것이다.

상술한 것과 같은 口語習用語를 아래의 표에 수록하였다.

<표 9>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¹⁰¹⁾
	기본의미	부가의미	
愛[A]不[A]	[A]하든 말든	불만 표시	×
便宜[A]了	[A] 좋은 일이다	불만 표시	×
够朋友	의리 있다	칭찬 표시	×
够受的	견디기 힘들다	동정 표시	×
够意思	의리 있다	칭찬 표시	×
好你个	이놈의 ~ 자식	불만 표시	×
有完沒完	끝이 없다	싫증 표시	×
硬着頭皮	마지못해	불만 표시	×
意思意思	성의를 좀 보이다	겸손 표시	×

위의 표에 나온 口語習用語는 의미상 일반구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연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법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口語習用語 “便宜[A]了”에서 “[A]”에는 주로 사람이 오는데, 일반적으로 형용사 “便宜(싸다)” 뒤에는 사람이 올 수 없다. 따라서 일반구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 결합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够朋友”에서도 일반적으로 “够”는 명사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며, 부사로 “제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도 뒤에 명사 “朋友”가 오는 것은 어법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상으로 口語習用語 의미의 융합성에 대해 논하였다. 일반구로도 사용되든 사용하지 않든 口語習用語의 의미는 구성 성분의 합으로 이루어진 표면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 성분 전체가 하나의 의미로 구성되는 실제의미를 가진다. 이 실제의미에는 기본의미와 부가의미가 포함되는데 만약 口語習用語의 구성성분을 따로 떼어 놓으면 실제의미는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01) 일반구가 존재하지도 않고 어법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하였음.

V. 漢語口語習用語의 화용적 분석

1. 사용 조건

Jef Verschueren은 《화용론 이해》에서 다음과 같이 화용론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화용론(pragmatics)은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혹은 약간 복잡한 말로 하자면, '언어 사용의 특성과 과정에 중점을 두고 언어 현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¹⁰²⁾

何自然과 冉永平은 《語用學概論》에서 화용론의 연구 주제를 다음과 같이 개괄하고 있다.

화용론 연구의 양 대 주제는 바로 담화의 생성과 이해이다.¹⁰³⁾

화용론에 대한 위의 서술을 통해 우리는 화용론이 언어 사용과 관련된 연구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口語習用語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 언어환경

먼저 언어환경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黃伯榮과 廖旭東은 《現代漢語》에서 언어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언어환경이란 언어 단위가 출현할 때의 환경이다. 일반적으로 상하문 언어환경과 상황 언어환경으로 나눈다.¹⁰⁴⁾

102) Jef Verschueren, 《화용론 이해》, 김영순·지인영·이정화 옮김, 도서출판 동인, 2002, p.21

103) “语用学研究的两大主题就是话语的生成与理解。” 何自然冉永平, 《语用学概论》, 湖南教育出版社, 2006, p.209

104) “语境就是语言单位出现时的环境。一般分为上下文语境和情景语境。” 黄伯荣·廖旭东, 《现代汉语》, 高等教育

또 David Crystal은 《現代語言學詞典》에서 언어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 따라 이해하면 언어환경은 하나의 章 혹은 단락의 모든 非언어적인 배경을 포함한다. 그 속의 구체적인 장소에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화자와 청자가 이미 무엇인가를 말한 것에 대한 지식 및 모든 관계와 서로 관련된 외부 신념 또는 예상도 포함한다. 좁은 의미에서 이해하면, 언어환경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105)

위의 설명에 의하면 언어환경이란 언어와 비언어적인 배경을 모두 포함하며, 발화와 관련된 상황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口語習用語는 언어환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口語習用語의 형성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어떤 특정한 언어환경에서 특정한 의미를 口語習用語에 부여하고 있다. 즉 口語習用語는 처음부터 화자의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한 태도나 평가 등 화용상의 필요 때문에 언어환경 속에서 임시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또 구체적인 장소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화자와 청자가 이미 말한 어떤 지식과 임의의 관계로 관련된 외부 신념 또는 예상도 표현한다. 이렇게 구성된 구는 표현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점차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널리 사용되고 마지막에는 하나의 분리되지 않는 고정된 언어단위가 된다. 즉 자유로운 결합인 일반구에서 고정어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① (원문) 玉菡含泪道：“嫂子，你就不要阻拦二爷了，二爷要去江南贩茶，你就让他去吧。”曹氏大急：“妹妹，你……”

—朱秀梅《喬家大院》第八章

(번역문) 위한이 눈에 눈물이 그득한 채 말했다 “형님 둘째 도련님을 막지 마세요, 둘째 도련님이 강남에 차를 팔러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도록 하세요.” 차오씨가 급히 “동생……”

出版社, 2007 第四版, P.255

105) “按最广义的理解, 语境包括一个篇章或话段的全部非语言背景, 包括直接适用于其中的情景, 也包括说话人和听话人对已经说了些什么的知识和任何关系相关的外部信念或预设. 按狭义理解, 语境指直接可观察到的同时存在的情景.” 戴维·克里斯特尔, 沈家煊 译, 《现代语言学词典》, 商务印书局, 2007, p.83

② (원문) 潘月亭 :好, 让他去吧, 反正不过是个乡下孩子。

--曹禺《日出》

(번역문) 관위에팅 : 좋아, 그냥 내버려 뒀, 어차피 시골뜨기 아이에 불과하니까.

예문 ①에서 ‘위한’과 ‘둘째 도련님’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이며 ‘둘째 도련님’은 생계를 위해 남쪽으로 차를 팔러 가려고 한다. 차오씨는 ‘위한’의 가정이 걱정되어 시동생이 차 팔러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 ‘위한’이 오히려 형님에게 남편이 차를 팔러 남쪽으로 가도록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讓他去吧”의 의미가 나타내는 것은 표면의미인 “讓+他+去+吧”로 일반구이다.

그러나 예문 ②에서 천바이루(陳白露)는 관위에팅이 ‘꼬마(小東西)’를 돌봐주고 싶어하지만, 관위에팅은 ‘꼬마(小東西)’가 농촌 아이에 불과하므로 마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口語習用語 “讓他去吧”는 단독으로 명령문이 되어, 화자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일의 진행에 따라,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일에 대해 놔두고 그것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하는 것을 나타낸다.

위의 두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명령문이라도 前者는 언어형식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치하고 청자는 화자가 말하는 표면의미의 내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으며, 함축의 느낌이 없다. 後者는 언어형식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일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어느 정도 내재성이 있어 口語習用語가 특정한 언어환경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韩彩英은 〈语境的制约功能及其表现形式〉에서 언어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앞뒤 문장으로 구성된 언어환경은 특정 언어의 단일 항목의 의미를 제약하는 기본 요소이며, 의사소통의 주체가 언어의 단일 항목에 대해 의미를 선택하고, 의미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참조 요소이다.¹⁰⁶⁾

따라서 배울 때 반드시 상이한 언어환경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106) “由上下文所构成的语境, 是制约特定语言单项意义的基本因素, 是语言交际主体对多义语言单项进行语义选择、语义确认的基本参照系” 韩彩英, 〈语境的制约功能及其表现形式〉, 《语言文字应用》, 2000 第4期, P.39

常玉鐘은 〈口語習用語略析〉에서 口語習用語의 언어환경과 의미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어떤 형식의 口語習用語가 어떤 언어환경에서 사용되어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장기간 구어의 사소통을 통해 사회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다¹⁰⁷⁾

특히 “放在眼里(안중에 두다)”, “往心里去(마음에 두다)”, “不像話(말도 안 된다)”, “有的是(얼마든지 있다)”, “話說回來(처음 주제로 돌아가다)”, “把你美的(좋아하는 것 좀 봐)”, “弄不好(잘못하면)”, “開什么玩笑(농담하지마)” 등의 표현은 일반구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口語習用語로만 사용되어 형식, 의미, 언어환경이 고정된 채 특정한 언어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口語習用語가 사용되는 언어환경은 서로 의존적이며 이러한 관계는 어느 정도 고정성이 있다. 예를 들어, 화자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 비판하려고 하면 비판의 의미를 나타내는 “不像話(말도 안돼)”, “你看你(이거 봐봐)” 같은 口語習用語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够朋友(의리 있다)”, “不好意思(민망하다)” 등의 口語習用語는 사용할 수 없다.

漢語口語習用語 중에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미 항목을 가진 것이 많이 있다. 즉 하나의 말에 多義적인 것이 많다는 것이다.¹⁰⁸⁾ 이런 종류의 口語習用語는 그 몇 가지의 의미 항목이 사용되는 언어환경이나 강조하는 측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포함하고 있는 語氣 및 感情色彩가 모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것은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것도 있다. 이는 口語習用語의 의미가 多義적인 특징이 있음을 설명한다.¹⁰⁹⁾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③ (원문) 对不起, 我要找小李, **谁知道** 小李去哪儿了?

(번역문) 미안한데 샤오리를 찾아야 하는데, 샤오리가 어디 갔는지 **누가 알지?**

107) “某种形式的口语习用语在何种语言环境, 表达某种语义, 是经过长期口语交际的实践约定成俗的。”常玉钟, 〈口语习用语略析〉, 《语言教学与研究》, 1989 第2期, P.157

108) 常玉钟의 〈口语习用语略析〉에서 “多义的口语习用语, 其义项至少是两个, 甚至多达四五个, 多为一般义与特殊义并存, 其表达与理解的明确性, 与其所在的语言环境有着密切关系。”라고 지적했다. 《语言教学与研究》, 1998 第2期, p.154

109) 张梅、海友尔, 〈汉语口语习用语在维吾尔语中的理解与表达〉, 《喀什师范学院学报》, 1998 第4期, p.66

예문 ③ 속의 “誰知道”는 표면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문을 나타내는 이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어 口語習用語로 사용되면 “誰知道”는 “예상을 벗어나다”, “예상하지 못하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 않다”,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④ (원문) 我本来想帶孩子去公园玩儿, 谁知道下起雨来了。

(번역문) 난 본래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예문 ④의 口語習用語 “誰知道”는 반문의 語氣가 있는 것으로 어떤 일이 왜 발생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며, 語氣 속에 불만을 내포하고 있다. 즉, “누가 알겠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語氣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알겠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⑤ (원문) A : 她为什么生气?

B : 谁知道?

(번역문) A : 그녀는 왜 화가 났어?

B : 알게 뭐야?

예문 ⑤의 口語習用語 “誰知道”는 그녀가 왜 화가 났는지 “예측하지 못했음”의 정도를 넘어 “알고 싶지도 않음”을 나타낸다.

다음에는 口語習用語 “不是味儿”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¹¹⁰⁾

⑥ (원문) 这个菜炒得不是味儿。

(번역문) 이 요리는 볶은 게 별로 맛이 없다.

⑦ (원문) 他的民歌唱得不是味儿。

(번역문) 그는 민요 부르는 게 별로 맛이 안 난다.

110) 《现代汉语词典》，商务印书局，1997，p.108

⑧ (원문) 一听这话不是味儿, 就反过来追问。

(번역문) 이 말을 듣자마자 줄 아닌 것 같아서, 거꾸로 캐물었다.

⑨ (원문) 看到孩子们上不了学, 心里很不是味儿。

(번역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을 보자, 마음이 영 아니었다.

상술한 예문 중의 口語習用語 “不是味儿”은 모두 표면의미로 “맛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 예문 ⑥과 예문 ⑦의 口語習用語 “不是味儿”의 의미는 맛이 순수하지 않다는 뜻이다. 예문 ⑧의 口語習用語 “不是味儿”의 의미는 뭔가 잘못 되고, 비정상적이라는 뜻이다. 예문 ⑨의 口語習用語 “不是味儿”은 마음속의 느낌이 시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口語習用語는 언어환경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과생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의미에 대해 우리는 부단히 연구하여, 더 잘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어휘의 선택

사람들의 대화 중 口語習用語에서는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口語習用語는 상대방이나 제3자 또는 다른 사물에 대한 태도와 평가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칭대사 “你”, “我”, “他” 등의 출현 빈도가 아주 높다. 필자는 常玉鐘의 《口語習用語功能詞典》에 수록된 500여개의 口語習用語 중 ‘我’나 ‘你’가 포함된 것이 60여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不是我說你(너한테 뭐라는 게 아냐)”, “美得你(꿈도 야무져)”, “管他呢(상관할 거 없어)”, “不瞞你說(솔직히 말해서)” 등등이 이런 예이다.

둘째, 口語習用語는 말하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 비교적 많다. 따라서 “說”, “話”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 필자가 常玉鐘의 《口語習用語功能詞典》에 수록된 500여개의 口語習用語 중 ‘說’나 ‘話’가 포함된 것이 100여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這話說得(무슨 말씀)”, “說的也是(하긴 그래)”, “說來話長(말하자면 길어)”, “好說話(부탁을 잘 들어주다)”, “你還別說(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그래)”, “哪兒的話(무슨 말씀)”, “還說呢(말도 마)”, “說話算數(말에 책임을 지다)”

등등이 그런 예이다. 이것은 口語習用語가 직접 상대방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중에 자주 사용되며, 청자는 화자의 말에 대해 판단과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다.

셋째, 口語習用語는 대화에서 모호성과 불확정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데 지시대사와 의문대사가 常用된다. 필자는 常玉鐘의 《口語習用語功能詞典》에 수록된 500여 개의 口語習用語 중 ‘誰’, ‘什么’, ‘怎么’, ‘多少’, ‘几’, ‘哪儿’, ‘什么时候’ 등의 의문대사가 포함된 것이 60여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這有什么(뭐 어때서)”, “那還用問(물을 필요도 없이)”, “說到哪儿去了(무슨 말이야)”, “多少有点儿(다소)”, “什么錢不錢的(돈은 무슨 돈)”, “不怎麼樣(별로다)”, “誰跟誰啊(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哪里哪里(별 말씀을)” 등이 있다.

넷째, 口語習用語의 각 단어의 품사 면에서 보면, 實詞와 實詞의 결합은 드물며 대부분이 實詞와 虛詞가 결합한 형태가 많다. 즉, 實詞와 語氣助詞나 전치사, 副詞¹¹¹⁾, 접속사 등의 허사가 결합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又來了(또 시작이다)”, “誰跟誰(어떤 사이인데)”, “可不是嘛(왜 안 그렇겠어)”, “我說呢(어쩐지)”, “那倒也是(그도 그래)”, “去就去吧(가면 가는 거지)”, “巴不得呢(얼마나 원하는 바인데)” 등등이다.¹¹²⁾ 이것은 일반구 및 다른 熟語 등과 다른 점으로 口語習用語 특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口語習用語에 어기조사가 사용될 때에는 기본의미가 표현되는 경우와 기본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먼저 어기조사가 사용되어 어기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키지만, 그 기본의미는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巴不得”은 절박한 갈망을 나타내는데, 어떤 바람을 얼른 실현하고 싶은 것이다. “巴不得” 뒤에는 종종 구체적인 바람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즉, “巴不得+ (做) 什么”로 사용되는데, “巴不得+呢”중의 “呢”는 기본의미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語氣를 강화시킨다.

또한 “可不是”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제기한 관점에 대해 찬성을 표시하는데, 語氣조사 “嘛”를 부가하여 화자가 찬성하는 語氣를 더 강하게 한다.

“去就去+吧”는 “去就去”에 비해 語氣를 두드러지게 완곡하게 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화자나 청자 모두가 무엇을 바라는지

111) 房玉清은 《实用汉语语法》에서 부사를 허사에 포함시켰으나, 黄伯荣과 廖序东은 《现代汉语》에서 부사를 실사에 속한다고 하였다. 필자는 房玉清의 분류에 따라 부사를 허사에 포함시켰다.

112) 粟甜, 〈对外汉语教学中的口语习用语理解研究〉, 《陕西师范大学硕士论文》, 2007.4, p.5

그 바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① (원문) A：“您想当佐罗？”

B：“也不是——我想当将军。统帅大军，冲锋陷阵，驰骋疆场，直到把敌人全歼。”

A：“好啊，我也巴不得呢。” --北大語料庫

(번역문) A：당신은 조로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B：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장군이 되고 싶어요. 대군(大軍)을 통솔하고, 앞장서서 적진에 돌진하고, 전쟁터를 내달려 적을 전멸시키고 싶어요.

A：좋아요. 저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어떤 口語習用語는 語氣조사를 사용한 뒤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A조：

② (원문) “我说, 同志” 停了一会儿, 老板说：“我这里, 根本没有什么熊掌, 全是牛蹄筋...” --北大语料库

(번역문) “어이, 동지,” 잠시 멈추고, 사장이 말했다. “여기는 곰발바닥 같은 건 없어요, 전부 다 소 힘줄이에요……”

③ (원문) 我说呢, 你这么半天才回来。我就知道你这里头有文章。

--北大语料库

(번역문) 어쩐지, 네가 이제야 돌아오다니. 너한테 사정이 있을 줄 알았어.

B조：

④ (원문) 在雅典, 我本来想去看女篮的比赛, 但条件所限没去成。

--北大语料库

(번역문) 아테네에서, 나는 원래 여자 농구 경기를 보러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 못했다.

⑤ (원문) **本来嘛**, 那个年代的农村姑娘, 谁会受教育呢? --北大语料库

(번역문) **원래 그렇잖아**, 그 시대의 농촌 아가씨들이 누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어?

A조 예문 ②의 “我說”는 삽입어적 口語習用語¹¹³⁾로,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작용을 한다.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정서, 관점, 태도 등에 대해 강조한다. 하지만 예문 ③의 “我說”+語氣조사“呢”는 어떤 일이 발생한 원인을 갑자기 알게 되어 분명하게 깨닫게 됨을 나타낸다. B조 예문 ④의 “本來”는 부사로, 의미는 “원래”이다. 그러나 예문 ⑤의 “本來”+語氣조사“嘛”는 口語習用語로 변하여, 어떤 상황의 출현이 이상할 것 없으며 당연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어떤 口語習用語는 語氣조사 有無에 따라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3) 固定格式

口語習用語의 기본적인 형식은 제2장에서 논한 것처럼 블록형과 격자형 두 가지 고정된 격식이 있는데, 그 구조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口語習用語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고정격식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는 熟語 구조의 공통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崔希亮은 《中國人文世界与漢語熟語》에서 熟語의 고정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熟語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미 전체로 고정되어 다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언어 단위와 같다. 그것들의 구조를 한번 바꾸거나 분리하면 더 이상 熟語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남은 것은 단지 산산조각 난 언어 성분에 불과하다.¹¹⁴⁾

口語習用語의 상당 부분이 “有什么A頭”, “A不到哪儿去” 같은 격자형 구조인데, 고정적인 구조와 의미가 있다. 이런 고정된 격자 구조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성분의 일부를 변환할 수 있다. 마치 창문처럼 창틀은 고정되었지만 유리는 교체할 수 있는 것과 같다. 口語習用語에서 변하지 않는 성분을 창틀로 본다면, 변할 수 있는

113) 삽입어적 口語習用語에 대해서 제5장 제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114) “熟語由于人们的长期习用, 它们已经高为一个整体, 就像是一个不能再切分的语言单位; 一旦改变了它们的结构, 或者把它们切分开, 熟語就不存在了, 剩下的只是一些支离破碎的语言成分。” 崔希亮, 《中國人文世界与漢語熟語》,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1997, pp.3-4

성분은 유리라고 할 수 있다. 격자형 구조의 가변 성분은 언어환경에 근거하여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A不到哪儿去”의 “A”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바꿀 수 있는데, “好不到哪儿去”, “貴不到哪儿去”, “熱不到哪儿去” 등으로 말할 수 있다. 그 의미는 각각 “再好也不會好得太過分(아무리 좋다 해도 지나치게 좋은 것은 아니다)”, “不會貴得讓人接受不了(아무리 비싸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은 아니다)”, “再熱也不會熱得讓人忍受不了(아무리 더워도 참지 못할 정도로 더운 것은 아니다)” 등이다. 하지만 비록 “A”를 상술한 것처럼 바꾸어도 그것들은 여전히 하나의 공통의 의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즉, “再A也不會A到讓人忍受不了的程度(아무리 A 해도 참지 못할 정도로 A 하지는 않을 것이다)”가 모두 상대방의 “太好”, “太貴”, “太熱” 등의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口語習用語의 의미는 이런 고정격자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만약 격자가 소실된다면 口語習用語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¹¹⁵⁾

다시 아래의 예를 보자.

“有什么A的”

① (원문) 翠喜：这合适吗？

王福升：这有什么不合适的。

--曹禺《日出》第三幕

(번역문) 웨이시 : 이렇게 해도 되나요?

왕푸성 : 이게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② (원문) 小东西：我.....我实在过不去了。

翠喜：这叫什么话，有什么过不去的。太阳今儿格西边落了，明儿格东边还是出来。没出息的人才嚷嚷过不去呢。

--曹禺《日出》第三幕

(번역문) 꼬마 : 전..... 전 정말 못 살겠어요.

웨이시 :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살게 뭐 있어? 해가 오늘 서쪽으로 졌다가 내일 동쪽에서 또 뜰 건데. 못난 사람만 못 살겠다고 징징대는 거야.

115) 이 격식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제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위의 두 예문 속의 “有什么+不合适+的”와 “有什么+過不去+的”는 모두 口語習用語 “有什么A的”의 격식에서 나왔다. 비록 “A”의 내부구조는 다양하지만, 형용사의 부정형식 “不合适”나 동보구조 “過不去”로 바꿀 수 있다. 게다가 “A”도 언어환경에 근거하여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예문 ① 속의 췌이시와 왕푸성은 어떤 일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예문 ② 속의 꼬마와 췌이시는 계속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有什么A的”의 固定格式을 통해 공통의 의미를 전했다. 즉 상대방이 제기한 의문이나 생각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어떤 의문이나 생각을 야기한 원인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원래부터 제기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2. 표현 방식

1) 語氣

張斌과 胡裕樹는 《漢語語法研究》에서 여기에 따른 문장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장의 語氣에 따라 진술문(陳述句), 의문문(疑問句), 명령문(祈使句), 감탄문(感嘆句) 등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진술문은 일에 대해 말하고, 의문문은 질문을 제기하고, 명령문은 요구나 제지를 나타내고, 감탄문은 어떤 감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누는 분류를 문류(句類)라고 부른다. 문류(句類)와 문형은 서로 다른 語法 概念으로, 같은 문형이라도 서로 다른 문류(句類)에 속할 수 있고, 서로 같은 문류(句類)도 다른 문형에 속할 수 있다.¹¹⁶⁾

黃伯榮과 廖序東이 主編한 《現代漢語》에서는 문형과 문류(句類)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116) “按照句子的語氣，可以分成陳述句、疑問句、祈使句、感嘆句四類。陳述句述說一件事，疑問句提出一個問題，祈使句表示要求或制止，感嘆句表示某種感情。這樣分出來的類叫做句類。句類和句型是兩個不同的語法概念，相同的句型可以屬於不同的句類，相同的句類可以屬於不同的句型。” 張斌、胡裕樹，《漢語語法研究》，商務印書館，2003，p.63

문형과 문류(句類)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문형을 단문 전체의 구조나 품사 특징으로 정해지는 종류의 명칭이다. 문류(句類)는 語氣에 따라 분류되는데 예를 들면, “他是韓國人”과 “你身体好嗎?”는 모두 주술문이지만, 전자는 진술문이며, 후자는 의문문이다.¹¹⁷⁾

이 외에도 여러 어법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류(句類)는 여기에 따라 나누어진다. 口語習用語가 진술, 의문, 명령, 감탄 등 다양한 문류(句類)에서 나타나는 語氣 특징을 고찰해 보자.

첫째, 진술문에 사용될 때.

口語習用語가 진술문에서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때 화자의 어조는 뚜렷한 고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다음 예를 보자.

① (원문) “.....我出来卖画, 把她一个人扔在家里也不是回事儿, 时间长了, 就带出来了。.....”
 ——馬箭飛 等《新公略중국어》, 《走進京城的賣畫人》

(번역문) “..... 저는 나와서 그림을 팔고, 그녀를 혼자 집에 버려두는 것도 할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래 되어서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② (원문) 他找女朋友, 不在乎身高长相, 也不在乎是哪个学校毕业的, 就想找个脾气好的。
 --<2007.3.18 HSK기출문제듣기1>

(번역문) 그는 여자 친구를 찾는데, 키나 생김새는 신경 안 쓰고,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도 신경 안 써. 성격 좋은 사람만 찾고 싶다.

③ (원문) 没有什么要紧的事。刚才又来了一个电报。是给方先生的。

——曹禺, 《日出》

(번역문) 뭐 그리 중요한 일은 없어. 방금 전보가 하나 또 왔는데, 방 선생에게 온 거야.

117) “句型和句类是性质完全不同的, 句型是就单句整体的结构或词性特点定出的类名, 句类是凭語氣分的类。例如“他是韩国人”和“你身体好吗?”都是主谓句, 但前者是陈述句, 后者是疑问句。” 黄伯荣、廖序东, 《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社, 2007.6 第四版, p.101

예문 ①의 口語習用語 “不是回事儿”는 화자가 어떤 상황, 즉 아내를 집에 혼자 남겨두는 상황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으니 마땅히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여긴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문 ② 중의 口語習用語 “不在乎”가 가리키는 것은, 화자가 어떤 일이나 어떤 방면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되었든 개의치 않으며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문 ③ 중의 口語習用語 “没什么”는 일이 중대하지 않으며, 문제가 복잡하지 않아 상대방이 특별히 중시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며, 어떤 때는 상대방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口語習用語는 주로 진술문에 사용되어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청자에게 진술한다.

둘째, 의문문에 사용될 때.

대부분의 口語習用語가 의문문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정보에 대해 질문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화자는 마음속에서 이미 명확한 견해가 있으며, 상대방의 답변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의문문과 크게 다른 점이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분석해 보자.

④ (원문) 讲好什么时候的? 才早上九点钟, **搞什么名堂!** 给我马上滚回去!

--北大語料庫

(번역문) 언제라고 말했는데? 이제 겨우 아침 아홉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궁궁이야!** 썩 꺼져!

⑤ (원문) 齐怀远纳闷地看马林生, 扑哧一笑, “你可真有意思, **都想到哪儿去了?**”

--北大語料庫

(번역문) 치화이위엔은 답답해하며 마린성을 보다가, 킁 하며 웃었다 “너 정말 재미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⑥ (원문) 李石青: 我跟你**说过多少遍**, 这样的话你要说, 在家里说。不要在这儿讲。省得人家听见笑话你。 --曹禺《日出》第二幕

(번역문) 리스칭 :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 했니, 이런 말은 집에서 하라고.
여기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놀리지 않게.

예문 ④의 口語習用語 “搞什么名堂”은 의문문으로서 비록 화자가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 의혹이 있음을 나타내지만, 사실상 화자는 결코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상대방이 행한 일에 대한 불만과 질책을 표시한다.

예문 ⑤의 口語習用語 “想到哪儿去了”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실에 대해 오해할 것을 우려하여 화자가 완곡하게 바로 잡거나 권유를 표시하며, 꾸짖는 語氣가 있다.

예문 ⑥의 口語習用語 “說過多少遍”는 몇 번 말했는지의 횟수를 묻는 것이 아니다. 화자는 상대방이 몇 번이나 자신의 말에 따라 행하지 않음을 질책하는 것이다. 또한 다시 자신의 요구를 자세히 설명하여, 화자의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 상술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口語習用語는 의문문으로 질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상술한 예문 외에도 “不會吧(그럴 리가)”, “哪里哪里(별 말씀을)”, “讓我說你什么好(너한테 뭐라 말해야 할지)”, “說到哪去了(무슨 말을 하는 거야)” 등이 있다.

이 외에 어떤 漢語口語習用語는 反問을 표현할 경우 語氣를 강조하는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⑦ (원문) A : 你怎么能打孩子?

B : 我打我自己的孩子, 碍你什么事?

(번역문) A : 어떻게 애를 때릴 수가 있어요?

B :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당신이 뭘 상관이야?

예문 ⑦ 중의 口語習用語 “碍你什么事”는 反問句로, 화자는 反問의 語氣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상대방을 방해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침해와 간섭에 대해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 즉, 내가 내 자식을 때리는 것은 당신과는 관계없으니, 당신은 나를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이 표현을 그 부정형식인 “沒得你什么事(당신과 별로 상관없어)”로 사용한다면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지만 그 어기는 상당히 약화된다.

⑧ (원문) **这还了得!** 这样下去, 那不是穷的穷, 富的富, 资本主义那一套都来了吗?.....
 ——贾平凹《腊月·正月》

(번역문)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부자는 더 잘 살게 되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다 된 거 아냐?.....

예문 ⑧ 중의 口語習用語 “這還了得”도 反問句로 뒤에 어기조사 ‘嗎’가 생략되었다. 화자는 反問의 語氣로 일이 중대하고, 상황이 엄중하고, 결국 앞으로 수습할 방법이 없음을 나타낸다. 이는 놀라움과 분노의 語氣를 담고 있는데, 부정형식인 “了不得(큰일이야)”와 의미는 같지만 語氣는 더 강하다.

이와 같이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A조

B조

有什么了不起(뭐 대단하다고) ↔ 没有什么了不起(뭐 대단한 것 없어)

有什么好A的(뭐 ~할 게 있다고) ↔ 没有什么好A的(뭐 ~할 게 없어)

有什么大不了的(뭐 대단하다고) ↔ 没有什么大不了的(뭐 대단할 거 없어)

碍A什么事(~와 무슨 상관이야) ↔ 沒碍A什么事(~와 별 상관없어)

這/那還用說(말할 필요 있겠어) ↔ 這/那不用說(말할 필요 없어)

怎么好意思(무슨 염치로) ↔ 沒好意思(염치가 없다)

這有什么(이게 뭐 어때서) ↔ 這没有什么(이거 별거 없어)

何必呢(그럴 거까지야) ↔ 沒必要(그럴 필요 없어)

這還了得(큰일 났잖아) ↔ 了不得(큰일이야)

위의 口語習用語는 구성형식상 서로 상대적이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그러나 긍정형식인 A조와 부정형식인 B조의 어기는 다르다. 反問으로 표현되는 口語習用語는 어기상, 느낌상 어느 정도 다른 점이 있는데, 이를 표현하는 어기와 의미는 더욱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명령문에 사용될 때.

口語習用語가 명령문에 사용될 경우에는 주로 부탁, 명령, 상의 등의 어기를 나타내며, 청자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문미에는 어기조사 “吧”가 常用된다. 예를 들어,

⑨ (원문) 巡警：你有你的理由，我有我的命令，你瞧着办吧！

—老舍，《老舍文集（第十一卷）》

(번역문) 순경：당신은 당신의 이유가 있고, 나는 나의 명령이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⑩ (원문) 胡四：去你的，谁问你啦？ — —曹禺《日出》

(번역문) 후쓰：꺼져，누가 너한테 물었어？

⑪ (원문) 刘麻子：你忙你的，我在这儿等两个朋友。

—老舍，《老舍文集（第十一卷）》

(번역문) 류마즈：일 보세요，저는 여기서 친구 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문 ⑨의 口語習用語 “瞧着办”은 명령문에 사용되어, 표면적으로는 청자로 하여금 상황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자가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을 청자에게 암시하며, 심지어는 청자를 위협하는 어기를 가지고 있다. 예문 ⑩의 口語習用語 “去你的”는 단독으로 명령문이 되어, 화자는 ‘애정 섞인’ 꾸밈음의 어기로 상대방의 언행에 대해 반대와 제지를 표시한다. 예문 ⑪의 口語習用語 “你忙你的”는 단독으로 명령문이 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막 하고 있던 일이나 할 일을 가서 하라고 하며, 화자에게나 다른 일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을 표시한다.

넷째, 감탄문에 사용될 때

口語習用語가 감탄문에 사용될 때는 강렬한 감정을 표시하며, 종종 문두에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眞”이 오며, 문미에는 종종 어기조사 “呀”, “呢” 등이 온다. 예를 들어,

⑫ (원문) 王利发：你呀，叫我说什么才好呢！

--老舍《茶馆》

(번역문) 왕리파：넌 말야, 내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⑬ (원문) A: 昨天我不留神，把一个警察给撞了。

B: 真有你的！连警察都敢撞！

--劉德聯、劉曉雨，《漢語口語常用句式例解》

(번역문) A: 어제 내가 부주의해서, 경찰 한 명을 치었어.

B: 너 정말 대단하다! 감히 경찰도 칠 수 있다니!

예문 ⑫의 口語習用語 “你呀”와 “叫我说什么才好呢”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분개하는 것을 나타내어, 청자에 대해 어떤 말로 비평, 비난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표시한다. 즉, 어쩔 도리가 없거나 언급할 가치도 없음을 내포하고 있는 감탄의 어기이다.

예문 ⑬의 口語習用語 “真有你的”는 종종 어떤 사람이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담력이 있는 것을 칭찬하는데 사용된다. 본 예문에서는 반어로 사용되었는데 대담하게 감히 경찰을 칠 수 있는지를 풍자한다.

2) 語調

黃伯榮과 廖旭東은 《現代漢語》에서 “말하거나 낭독할 때 문장에는 휴지가 있으며, 소리에는 경중(輕重)과 빠르기(快慢) 및 고저(高低)와 장단(長短)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語調라고 한다.”¹¹⁸⁾고 하였다. 語調에는 휴지(停頓), 중음(重音) 및 억양(句調)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기능이 있다.

아래의 세 예문을 통해 語調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① (원문) “我说，你怎么没来上课？”

(번역문) “이 봐, 너 왜 수업 안 왔어?”

118) “说话或朗读时，句子有停顿，声音有轻重快慢和高低长短的变化，这些总称语调。” 黄伯荣、廖旭东，《现代汉语》，高等教育出版社，2006.9，pp.102-106

② (원문) 我说：“你怎么没来上课？”

(번역문) 내가 말했다. “너 왜 수업 안 왔어?”

③ (원문) “我说你怎么没来上课(呢)。”

(번역문) “어쩐지 내가 수업 안 왔더라니.”

예문 ①의 “我說”는 삼입어적 口語習用語로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작용을 하며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정서, 관점, 태도 등을 강조한다. 문장 중의 “說”는 가볍고, 끝소리를 비교적 모호하게 발음한다. “我說”는 하강조(降調)로 말의 속도가 빠른 편이다. 문장의 주요 부분과의 휴지가 길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예문 ②의 “我說”는 일반구에 속하는데 문중의 “我說”의 어조는 평탄하고 말은 균일하게 중간 속도를 유지한다. 강약음(輕重音)은 없으며 뒷부분과의 사이에는 휴지가 필요하다.

예문 ③의 “我說.....呢”는 口語習用語로 어떤 일이 발생한 원인을 갑자기 알게 되어 분명하게 인지했음을 나타낸다. 문장 중의 “我說”는 하강조(降調)이며, “說”는 강음(重音)으로 길게 끌어 발음하지만 뒷부분과의 사이에 음성의 휴지(停頓)는 둘 수 없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口語習用語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語調를 선택해야하는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語調는 口語習用語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口語習用語를 사용할 때 語調는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실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語調는 하나의 口語習用語를 특정한 의사소통의 場에서 운용할 때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부여한다. 또한 語調는 언어환경과 결합하여 청자로 하여금 대화 내용의 내재된 의미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口語習用語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語調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黃伯榮과 廖旭東의 語調를 분류에 따라, 口語習用語가 사용될 때 나타나는 휴지, 중음(重音) 및 억양(句調)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자.

첫째, 휴지는 문장에서 단어, 구, 節 중간에 나타나는 쉽이다. 이는 말하는 사람의 생리적인 필요에 의해 출현하는 것으로 쉬면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문장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방면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書面語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문장 부호로 구별하는데 반해, 口語에서는 휴지가 말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口語習用語도 주로 구어 의사소통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문장 구성성분의 의미에 따른 기계적이고 단순한 의미의 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口語習用語의 각 구성성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 사이에는 단어와 단어가 결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짧은 휴지가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④ (원문) 桌子上有很多书, 有的是英语书, 有的是汉语书。

(번역문) 책상 위에 책이 많이 있다. 어떤 것은 영어책이고, 어떤 것은 중국어 책이다.

⑤ (원문) 桌子上有的是汉语书。

(번역문) 책상 위에 중국어 책이 솔하게 있다.

“有的是”가 위의 두 예문에서 사용되지만 휴지는 서로 다르다. 예문 ④에서는 “有的”와 “是” 사이에 반드시 짧게 쉬어야 한다. 그러나 예문 ⑤의 口語習用語 “有的是”는 ‘아주 많다’는 의미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표시한다. 말할 때는 중간에 휴지를 둘 수 없는데, 만약 휴지를 두면 화자가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다고 여기게 되어 청자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즉 “有的是漢語書, 那么, 還有的是什麼書呢?(어떤 건 중국어책인데 그러면 또 다른 건 무슨 책이야?)”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휴지를 두느냐의 여부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음(重音)은 화자가 담화 중에 비교적 강하게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분명하게 들리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중음으로 하는 말은 모두 화자가 어떤 감정이나 태도의 語氣 전달의 필요에 따라 강조하려는 부분이다. 口語習用語를 사용할 때도 중음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사소통을 할 때 화자는 종종 그 대화의 의도에

따라 하나의 단어 혹은 하나의 글자를 드러나게 발음하여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誰知道(알게 뭐야)”의 “誰”, “碍你什么事(너랑 무슨 상관이야)”의 “你”, “放聰明点儿(똑똑하게 좀 굴어라)”의 “放”은 모두 강하게 말한다. 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표현형식인 경우 중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口語習用語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일반구의 의미로 표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誰知道”를 만약 “誰”에 重음을 두면 화자의 불만스럽고 귀찮은 정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重음을 “道”에 두면 화자가 매우 화가 났음을 설명한다. 하지만 균등하게 평평한 속도로 “道”의 뒷부분이 내려가는 어조면 이는 일반구로 표면적인 의미인 의문을 표시할 뿐이다.

셋째, 억양(句調)이란 말 전체에 대한 음의 상대적인 높낮이 변화를 가리킨다. 문장의 억양(句調)은 문장의 의미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억양이 다르면 말의 의미도 달라진다. 黃伯榮과 廖旭東은 《現代漢語》에서 억양을 아래의 네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¹¹⁹⁾

- (1) 상승조(升調) : 음이 평평하다가 높아짐. 주로 의문, 놀람, 호소(号召) 등의 語氣를 표시할 때 사용.
- (2) 하강조(降調) : 음이 처음에는 평평하다가 나중에 낮아짐. 주로 진술, 감탄, 요청 등의 語氣를 표시할 때 사용.
- (3) 平調 : 음이 줄곧 같은 고저를 유지함. 주로 엄숙, 냉담, 서술 등의 語氣를 표시할 때 사용.
- (4) 曲調 : 음이 높아지다가 다시 하락함, 또는 낮아지다가 다시 상승함. 주로 함축, 풍자, 내재된 뜻을 표시할 때 사용.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口語習用語는 상승조(升調)가 거의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口語習用語를 사용해서 의문, 놀람, 호소 등의 표현에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청, 찬탄, 판단 등의 의미를 표시하는 데는 하강조(降調)가 자주 사용되

119) 黃伯榮、廖旭東(2006), 같은 책

었다. 비록 반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건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이미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박하기 때문에 종종 하강조(降調)를 사용한다.

어떤 口語習用語는 平調로 화자의 견해와 심정을 서술함을 나타내고, 또 어떤 口語習用語는 曲調로 함축이나 내재된 뜻이나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풍자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口語習用語에서 사용되는 각 억양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關我什么事(나랑 무슨 상관이야), 開什么玩笑(웃기지마)→반문	하강조
你忙你的(일 보세요), 得了吧(됐어) → 명령	
不怎麼樣(별로야), 不是時候(때가 아니다)→판단	
好樣的(장하다), 真有兩下子(정말 대단해)→칭찬	

兩碼事(별개의 일) ↘	平調
說心里話(솔직하게 말하다)	
話又說回來(그런데 말이지)	
送上門來(제 발로 걸려들다) →서술	
当着A的面(A의 면전에 대고)	
不知如何是好(어쩔줄을 모르다)	
A跟B過不去(A가 B를 못살게 하다) ↗	

真有你的 ¹²⁰ (정말 대단하다), 說得輕巧(말은 쉽다)→풍자	曲調
怪不得(어쩐지)→함축	
愛A不A(A 하든 말든), 看着辦(알아서 해)→내재된 뜻	

하지만 동일한 口語習用語가 서로 다른 언어환경에서 출현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에 사용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에 사용될 수도 있다. 사용 시에는 반드시 어떤 語調가 사용되었는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⑥ (원문) 当他们登上山顶, 鸟瞰脚下的海湾, 都不约而同地发出赞叹之声: 好一个天然良港之地! -- 《人民日报》1996

(번역문) 그들이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발아래의 만(灣)을 굽어보고는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탄성을 질렀다. 대단한 천연 양항지네요!

⑦ (원문) 好个国民党政府的“友邦人士”! 是些什么东西! 即使所举的罪状是真的罢, 但这些事情, 是无论哪一个“友邦”也都有的, 他们维持他们的“秩序”的监狱, 就撕掉了他们的“文明”的面具。摆什么“惊诧”的臭脸孔呢? --鲁迅《友邦惊诧论》

(번역문) 대단한 국민당 정부의 ‘우방 인사’야! 뭐하는 놈들인지! 열거한 죄상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일들이 어느 ‘우방’에게든지 다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질서’의 감옥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문명’의 가면을 벗어 버렸다. 무슨 ‘놀랍고’ 역겨운 낯짝을 드러내려고?

위의 두 예문 속의 口語習用語 “好(一)个X”는 모두 감탄의 語氣를 나타낸다. 그러나 각각 긍정, 부정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서로 다른 어조 형식을 통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문 ⑥의 “好(一)个X”는 감탄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강조(降調)를 주로 사용한다. 예문 ⑦의 “好(一)个X”는 풍자를 나타내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며 曲調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만약 신랄하게 꾸짖는 곳은 하강조(降調)를 사용한다.¹²⁰⁾ 그 외에 이 口語習用語 “是些什么東西”는 비록 의문대사(疑問代詞) “什么”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매섭게 꾸짖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승조(升調)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강조(降調)를 사용하고 “什么東西”는 강하게 읽어야 한다.

120) “有”처럼 단어 위에 표시한 “~”는 曲調를 나타낸 것이다.

121) 王收奇, <“好一个X”感叹句之多角度考察>, 《暨南大学硕士论文》, 2007, p.19

3. 화용적 기능

1) 인간관계의 유지

Michael McCarthy는 《Spoken Language and Applied Linguistics》(1998)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화는 정보전달용 기능 (즉 주로 정보나 상품이나 서비스 [고객 응대] 를 전달해 주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그 기능이 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상호작용적인' (즉 사교적 관계를 수립하고 재강화해 주는) 어휘를 많이 담고 있다.¹²²⁾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대화를 통해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며, 인간은 대화를 매개로 정보 교환과 감정 전달을 한다.

중국어의 다른 언어 단위와 마찬가지로 口語習用語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이 많이 있다. 口語習用語는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전달용 기능' 외에 인간관계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인간관계와 관련된 口語習用語를 살펴보자.

- ① (원문) “哪里!” 小刘象是受了惊: “我决不会忘记您对我的恩情。要知道, 大哥, 人家说您的坏话, 我从来不信。您对我一片诚心, 我也对您忠心耿耿。您放心, 我不是个反复无常的小人。” “好, 我信得过你。” ——老舍 《鼓书艺人》

(번역문)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샤오리우는 놀란 것 같았다. “저는 절대로 형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형님이 아셔야 하는 건, 사람들이 형님에 대해 나쁜 말을 해도 저는 전혀 안 믿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저도 형님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소인배가 아니니까요.” “좋다. 내가 널 믿을 수 있겠구나.”

122) Michael McCarthy, 《입말, 그리고 담화 중심의 언어교육》, 김지홍 번역, 도서출판경진, 2010, pp.223-224

위의 예문에서 사용한 “信得過”는 화자가 청자를 신뢰한다는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화자와 청자 간에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口語習用語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 특히 중국인들이 만나거나 헤어지면서 인사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굳어진 고정적인 형태로, 한 단어씩 떼어내어 해석할 수 없는 口語習用語이다. 이에는 “你好!”, “你早!”, “你好嗎?”, “慢走”, “走好”, “再見!”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사말인 표현도 많다. 예를 들어, “你來了?”, “上班去?”, “下班了?”, “上哪去?”, “吃了嗎?” 등이 그것이다. 이런 표현들의 표면의미는 각기 다르지만 친한 사이의 중국인들끼리 만날 때 인사치레로 하는 말로 굳어진 것이다.

그 밖에도 “對不起”, “沒關係”, “不客气”, “哪里哪里” 등의 口語習用語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투적인 인사말로 인간관계 유지 기능을 수행한다. 張風格(2007)도 口語習用語 속의 인사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감사와 인사를 나타내는 말도 적지 않은데, 특히 인사말이 그러하다. 예를 들면 “恭敬不如從命(염치 불구하고 따르겠습니다)”, “真不知道說什麼好(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您太客气了(별말씀을 다하십시오)”, “別這麼/那麼說(이런/그런 말씀 마세요)”, “您說到哪儿去了(무슨 말씀이세요)”, “久仰您的大名(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打攪了(실례했습니다)”, “讓您費心了(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등등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직접 만나서 사의를 표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또 종종 순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감사의 말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본래 ‘사전 제작된 작업’을 거쳐 여러 가지의 감사의 마음과 인사를 특별히 표현하는 기성의 표현 구조인 口語習用語가 탄생되었다.¹²³⁾

즉 인사말과 같은 口語習用語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면서 그 표현방식이 점차 고정되어 생긴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⁴⁾

123) “表示感谢和客套的语条也有不少，特别是客套话。如“恭敬不如从命”、“真不知道说什么好”、“您太客气了”、“别说这么/那么说”、“您说到哪儿去了”、“久仰您的大名”、“打搅了”、“让您费心了”等等。”“我们知道，在别人给了帮助的时候，心存感激，很想面谢，但当着别人的面又往往一时找不到最能代表自己心意的感激之辞，于是，经过原初的“预制工作”，诸多专门表达各种感激之情和客套的现成的表征结构——口語習用語就诞生了。” 張風格，〈口語習用語的情态意义〉，《汉语研究与应用第5辑》，2007年7月，p.354

한편 徐桂梅(2005)는 口語習用語를 사용하는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중국어의 언어환경에서 청자에 대해 정중한 마음이 충만한 완곡한 표현과 비교하면, 비교적 직접적인 친근한 표현은 의사소통의 목적을 더욱 쉽게 달성한다. 화자는 신경 써서 청자에게 “我們之間并不是外人(우리 사이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라고 전하고, 이른바 의사소통의 장에서는 친한 체 하는 “咱們誰跟誰呀, 還用的着客气嗎(우리가 누구야? 사양할 것 까지 있니?)”를 자주 사용한다.¹²⁵⁾

중국인들이 口語習用語를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친한 사이일 경우가 많으며, 口語習用語를 사용함으로써 친근함을 확인하거나 강화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口語習用語를 사용하는 대상은 보통 친한 친구나 가족 등 비교적 가까운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口語習用語에 감정적 색채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완곡한 표현

완곡한 표현이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쓰는 표현법¹²⁶⁾’을 가리킨다. 중국인들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완곡한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즉 불쾌하고 가증스럽거나 공격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모호하고 보다 우회적인 용어로 완곡하게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청자에게는 확실히 좋다는 표현인지 싫다는 표현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완곡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체면 중시’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 자신이나 타인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것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는 대상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기 위해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완곡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아래의 예문에서 만약 밑줄 친 口語習用語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한다면 상대방 또는 자신의 체면을 과도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124) 본고 제4장 제1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口語習用語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감정색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대다수가 인간관계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125) “在汉语的语境中, 与对受话者充满敬意的委婉表达比起来, 比较直接的亲近表达更容易达到交际目的。说话者着意向受话者传达“我们之间并不是外人”, 所谓交际场合常用来套近乎的“咱们谁跟谁呀, 还用的着客气吗” 徐桂梅, 〈从汉日祈使表达方式的不同看礼貌的文化差异〉, 《汉语研究与应用》第3辑, 2007.6, p.160

126)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p.4549

① (원문) 陶副官欠了欠身, 站了起来。“我明天再来, 別給我找麻煩。公事公办。”
“我明白, 军人的天职就是服从。”

——老舍《鼓書藝人》

(번역문) 타오 부관은 몸을 한번 숙여 인사 하고는 일어섰다. “저는 내일 다시 올 테니,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공적인 일은 공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군인의 천직은 바로 복종이죠.”

위의 예문에 사용한 口語習用語 “別給我找麻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가 이루어지는 전체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예문에 등장한 타오 부관은 상사인 왕 사령관(王司令)의 명을 받고 바오칭(寶慶)을 찾아가 바오칭(寶慶)의 딸을 여섯 번째 부인으로 삼고 싶다는 말을 전한다. 이런 제안에 대해 바오칭(寶慶)은 수용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드러내놓고 거부할 수도 없는 처지라 난감해 한다. 타오 부관도 위협적으로 바오칭(寶慶)에게 말 하지 않고, 바오칭(寶慶)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통해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② (원문) “孝敬他什么好呢?” 陶副官拇指和食指成了个圆形。“一点小意思。”
“多少?” 宝庆要刨根问底。

——老舍《鼓書藝人》

(번역문) “그분을 무엇으로 공경해야 좋을까요?” 타오 부관은 엄지와 식지로 원을 만들었다. “성의를 좀 보이면 되요.” “얼마요?” 바오칭은 꼬치 꼬치 캐물으려 했다.

위의 예문에서 타오 부관은 바오칭에게 돈을 요구한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口語習用語 “一点小意思”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그 뜻을 전하는 것이다. 타오 부관은 이를 통해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완곡한 어법은 화자나 청자가 듣기 싫은 말을 완화하여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거나, 스스로 자화자찬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시기나 질투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존중하는(卑己尊人)’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¹²⁷⁾ 이는 예로부터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처세와

언어 행위가 개인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어에 口語習用語가 발달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표현했을 경우 생길지도 모르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든 예 이외에도 누군가의 부탁을 직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울 때 자주 사용하는 口語習用語로 “研究研究(연구해 보겠습니다)”, “考慮考慮(고려해 보겠습니다)” 등이 있다.

3) 유창성 강화

口語習用語 사용은 유창성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창성에 대해 살펴보자.

Michael McCarthy는 유창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화는 유의미한 수치의 미리 짜여 있는 어휘 표현들을 담고 있다. 이런 기존 표현들이 유창성을 촉진해 주며, 흔히 구조와 의미에서 관용구¹²⁸⁾로 되어 있다.¹²⁹⁾

홍경선은 유창성에 대해 언어적 요인을 적용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Wennerstrom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화자의 유창성이란 의미 일관성을 가지고 각 발화의 주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 차례 바꾸기 과정에서 서로 협조를 하면서 단어 단위 대신 구 단위로 발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다.¹³⁰⁾

또 홍경선(2005)은 또 유창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굳어진 표현은 덩어리로 저장되었다가 재생되어 궁극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단위로 발화되는 조립된 발화(prefabricated utterances)이다. 따라서 굳어진 표현을 사용하면 화자의 발화가 빨라지고 더 유창해진다.¹³¹⁾

127) 许世立, 《중국어 의사소통의 화용론적 연구》, 學古房, 2006, pp.128-130

128) 여기서 말하는 ‘관용구’는 영어의 ‘idiom’에 해당하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비교적 큰 어휘 단위로, 중국어의 ‘熟語’와 동등한 개념이다. ‘idiom’을 중국어로는 ‘习語’, ‘成語’, ‘慣用語’ 등으로 번역하지만 모두 고정적인 구조를 가리킨다. 张安德(2003)는 《英汉词语文化对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习語는 특수하고 정형적인 언어 구조다. 그 의미는 통상 표면의미로 추측할 수 없다.”, “광의의 의미로는 ‘英語习語’의 범주는 成語, 俗語, 諺語, 慣用語, 歇后語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吕贞男, 〈基于认知语义学对惯用語의解读〉, 《중국어학연구》 제50집, 2009, p.106, 본 논문에서 논하는 口語習用語는 ‘idiom’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29) Michael McCarthy(1998), 앞의 책, p.224

130) 홍경선, <영어 교육의 유창성 개념 분석>, 《언어학연구》 10권 1호, 2005

131) 홍경선, <영어 교육의 유창성 개념 분석>, 《언어학연구》 10권 1호, 2005

위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 단위나 관용구를 사용하면 더욱 유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굳어진 표현을 사용하면 발화의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口語習用語는 중국어 표현 형식 중 대표적인 ‘굳어진 표현’이므로 학습자 입장에서口語習用語를 사용하면 유창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창성이 떨어진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口語習用語 같은 ‘굳어진 표현’의 사용을 통해 유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창성 강화를 위해 口語習用語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口語習用語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口語習用語를 단순한 어휘적 결합으로 이해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수의 口語習用語가 포함된 다음의 간단한 대화를 보자.

- ① (원문) A : 对不起, 我来晚了。
B : 没关系。最近你很忙吧?
A : 不怎么忙。
B : 那你有时间陪我玩吗?
A : 没问题。我有的是时间。

위의 대화를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개설한 중-한 자동 번역기인 <중국어 자동 번역기(<http://cndic.nate.com/trans/index.html>)>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A : 미안하고, 내가 늦게 온다.
B : 괜찮다。최근 당신은 매우 바빴습니까?
A : 그다지 좋지 않게 바쁘다。
B : 그러면 당신은 나를 모셔 놀아 시간이 있습니까?
A : 문제가 없다。나의 일부는 시간이다。

위의 번역에서 부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몇 가지 중요한

口語習用語의 번역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인사와 관련된 口語習用語 “對不起”와 “沒關係”, “沒問題” 등의 번역은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不怎麼忙”은 “不怎麼+ [형용사]” 구조로 “그다지 [형용사] 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되었다.

또 대화 마지막 부분의 “有的是時間”은 口語習用語 “有的是”를 활용한 문장으로 “얼마든지 있다”, “많이 있다”의 의미이다. “有的+是”는 일반구로는 “어떤 것은 ~이다”라는 의미를 표시하므로 <중국어 자동 번역기>에서 바로 일반구로서의 “有的是”의 의미로 단정한 것이다. 口語習用語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도 이러한 이해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든 예가 초급 단계의 중국어 학습자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라면 중국어를 훨씬 많이 배운 학습자들도 흔히 범하는 오류도 쉽게 찾을 수 있다. 老舍의 《茶館》에 나온 다음 예문을 보자.

② (원문) 宋恩子：我出个不很高名的主意：干脆来个包月，每月一号，按洋历算，你把那点……

吴祥子：那点意思!

宋恩子：对，那点意思送到，你省事，我们也省事!

王利发：那点意思得多少呢?

吴祥子：多年的交情，你看着办! 你聪明，还能把那点意思闹成不好意思吗?
--老舍《茶館》第二幕

(번역문) 송언쯔：내가 그리 대단치 않은 제안을 하나 하지. 아예 월정액으로 해서 양력으로 매월 초하루에 주인장이 그걸 좀….

우상쯔：그런 뜻을 말아야!

송언쯔：맞아! 그런 뜻을 좀 보내면 주인장은 일이 줄어드는 거고 우리도 일손을 좀 더는 거지!

왕리파：그걸 얼마나 드러야 할까요?

우상쯔：오랫동안 사귄 정이 있는데, 그건 주인장이 알아서 하시오! 주인장은 똑똑하니까 그 성의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죠?¹³²⁾

132) 老舍, 《차집》, 윤희진 신진호, 지식출판사, 2009, pp.73-74

위의 예문은 송언쓰와 우상쓰는 찻집의 주인인 왕리파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장면이다. 번역문은 한국에서 출판된 번역본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번역자는 口語習用語 ‘意思’를 주로 ‘뜻’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왕리파의 대사에서는 아예 번역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 나온 ‘意思’는 ‘성의’라고 번역했다. 또한 또 다른 口語習用語인 ‘不好意思’는 ‘얼굴 붉히다’라고 번역했다. 우상쓰는 맨 마지막 대사에서 ‘意思’를 사용하여 일종의 ‘언어유희’, 즉 말장난을 한 셈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意思’를 표면의미인 ‘뜻’으로 번역한 것은 언어환경상 어울리지 않는다. 언어환경으로 보아 이 대화에서의 ‘意思’는 ‘성의’로 번역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茶館》의 또 다른 예문을 보자.

③ (원문) 小刘麻子：从此你算省心了！这儿全属我管啦，你搬出去！我先跟你说好了，省得以后你麻烦我！

王利发：那不能！凑巧，我正想搬家呢。

丁 宝：小刘，老掌柜在这儿多少年啦，你就不照顾他一点吗？

小刘麻子：看吧！我办事永远厚道！王掌柜，我接处长去，叫他看看着个地方。你把这儿好好收拾一下！小丁宝，你把小心眼找来，迎接处长！带点香水，好好喷一气，这里臭哄哄的！走！（同丁宝下）

--老舍《茶館》第二幕

(번역문) 류마쯔 아들：지금부터 영감님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는 전부 제 관할이 되었으니까, 영감님은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내가 골치 아프지 않도록 먼저 잘 말해두는 거예요!

왕리파：그런 일은 없을 거야! 공교롭게도 나도 막 이사하려던 참이었거든.

딩바오：류 씨, 주인어른이 여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는데, 조금도 봐주질 않는 거예요?

류마쯔 아들：보라고! 나는 일처리를 할 때 항상 후덕하게 하지! 주인장, 나는 처장님을 모시러 가겠소. 그분이 here를 보시도록 말이오. here를 잘 좀 정리해 놓으시오! 딩

바로, 너는 샤오신옌을 데리고 와서 처장님을 맞이하도록 해라! 향수도 잘 좀 뿌리고 말이야. 여긴 좀 칩칙하던 말이야! 가자고! (딩바오와 함께 퇴장한다)¹³³⁾

위의 예문에 나온 대화는 류마쯔 아들이 왕리파의 찾 집을 강탈하는 장면이다. 이때 류마쯔 아들과 같이 다니는 젊은 여자 덩바오는 왕리파가 불쌍해서 찾 집을 뺏어도 뭔가를 좀 해 줘야 하지 않겠냐고 류마쯔 아들에게 따져 묻듯 “你就不照顧他一点嗎?”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마쯔 아들은 口語習用語 “看吧”라고 했는데, 번역자는 ‘보라고!’라고 번역하여 마치 류마쯔 아들이 덩바오에게 자신의 후덕함을 지켜보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看吧”의 의미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해 볼 테니 두고 보자!’라는 뜻이다. 류마쯔 아들은 왕리파의 찾 집을 뺏아간 후 왕리파에게 뭔가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불분명하다. 즉, 口語習用語 “看吧”의 의미는 확정적이지 않은 대답으로 ‘考慮考慮吧(고려해 봅시다)’, ‘研究研究吧(연구해 봅시다)’, ‘再說吧(나중에 다시 생각해 봅시다)’라는 의미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 대화에서 口語習用語 “看吧”는 ‘나중에 보자’, ‘나중에 생각하자’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口語習用語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려면 우선 위와 같은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언어환경에서 어떠한 口語習用語를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4) 경제적 효과

Leech(1983)는 화용상의 ‘경제 원칙’을 제기하면서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아래 텍스트를 축소하며, 청자와 화자가 코드화하고 해독할 때 사용하는 시간과 정력을 감소하여, 의사소통을 빠르면서 가볍고 유창하게 만든다¹³⁴⁾고 하였다.

상술한 것처럼 화자가 전달하려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 빠르고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경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

133) 老舍, 《찾집》, 馮其庸 譯,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9, p.133

134) 占彬, 〈從語用學的角度看語言交際中的語言經濟性〉, 中南民族大學報, 2007.6, 재인용

원칙에 따라 언어생활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고 유창하게 말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복잡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그때마다 단어를 연결하는 것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말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口語習用語 같은 고정된 표현이 생성되고 자주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口語習用語는 짧은 표현 방식이지만 복잡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你愛信不信”이 “믿거나 말거나”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상대방이 믿든 말든 화자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화자의 말이 진실하니 청자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 口語習用語를 사용한다. 만약 “我說的沒錯，你一定要相信我的話。”라고 길게 서술하는 것을 口語習用語로 말한다면 발화의 길이는 짧아지고 그만큼 발화의 속도도 현격하게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陳淑美도 <語言的經濟性原則在漢語中的體現>에서 “你愛信不信” 같은 ‘緊縮句’는 표현의 경제성으로 볼 수 있다¹³⁵⁾고 논하였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口語習用語 사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① (원문) 宋恩子：逃兵的罪过，你们可也不是不知道！

老 林：咱们讲讲吧，**誰叫**咱们是弟兄呢！

吴祥子：这象句自己人的话！谈谈吧！ （選自《茶館》第二幕）

(번역문) 송언즈：탈영한 죄는 너희도 모르진 않겠지!

라오린：우리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형제가 **아닌가**!

우상즈：이 말은 같은 편의 말답군! 얘기를 좀 해 보자!

위의 예문에 사용된 口語習用語 “誰叫”는 반문의 語氣로, 화자는 죄 지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말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고 상대방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결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상대방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위의 극본에서 ‘라오린’은 군대에서 탈영을 했고, ‘송언즈’와 ‘우상즈’는 정보원인데, ‘라오린’은 두 정보원에게 자신이 탈영한 것이 발각되었다. ‘라오린’은 두 정보원에게 자신도 같은 군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한편으로

135) 陳淑美, <語言的經濟性原則在漢語中的體現>, 《韶矣學院學報》· 社會科學, 2008.10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라오린’은 ‘송언즈’에게 자신이 같은 편이므로 자신을 봐 달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라오린’이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誰叫”를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또 청자도 그 말을 통해서 화자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口語習用語를 사용한다면 보다 적은 노력으로 보다 풍부한 뜻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口語習用語의 경제적 효과를 더 높여주는 口語習用語 의미의 내재성과 관련하여 논하고자 한다.

口語習用語의 의미는 함축적이고 내재되어 있어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의미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표면의미 아래에 숨어 있다. 張風格도 《口語習用語的基本特征和教學》에서 口語習用語의 의미의 내재성이 대단히 강하다고¹³⁶⁾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看着辦(알아서 해)”, “說得輕巧(말이야 쉽지)”, “說得容易(말은 쉽지)”, “愛A不A(~하든 말든)”, “信不信由你(믿거나 말거나)”, “話是這麼說(말은 그렇지)” 등이 그러하다. 표면의미로 보면 화자는 마치 상대방의 언행에 맞추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자기의 의도에 따를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특정 언어환경과 화자의 語氣 태도에 근거하여 그 내재된 의미를 판단한다. 이렇게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口語習用語는 매우 경제적인 언어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② (원문) A : 我不去不行吗?

B : 哼, 你看着办!

(번역문) A : 내가 안 가면 안 될까요?

B : 흥, 알아서 하세요!

위 예문의 口語習用語 “看着辦”의 표면의미는 청자로 하여금 상황을 보면서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의도에 따라 일을 처리할 것을 암시하거나, 심지어는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면 직접적으로 경고하거나 위협하지 않아도 화자의 의도를 전할 수 있다. 만약 직접적으로 경고나

136) “从意义上看, 口语习用语与成语都具有意义的整体性和隐含性。” 张风格, 〈口语习用语的基本特征和教学〉, 《汉语研究与应用》第二辑,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p.110

위협한다면 口語習用語를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장황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③ (원문) A : 今天我想去看足球比赛, 我们明天再学习吧。

B : 爱学不学, 别忘了, 后天你有专业考试!

(번역문) A : 오늘 나 축구 경기 보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 내일 공부하자.

B : 공부하든 말든, 모레 전공시험이 있다는 건 잊지 마!

위 예문의 口語習用語 “愛A不A” 格式은 다른 사람이 “A” 하든지 아니면 “不 A”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A”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不A”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으며, 語氣 속에 불만이 포함되어 있다. 위의 예문에서 표면의미로는 마치 상대방이 공부하지 않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이 예문에서도 직접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표현한다면 “你學不學我不管, 可是現在你不學你以后肯定會后悔的。(네가 공부하든 안 하든 내가 알바 아니지만, 지금 공부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가 될 것이다.

口語習用語의 내재된 의미는 상술한 내용 외에도 “可倒好(잘 됐다)”, “眞行(잘 닳어)”, “好啊(잘 됐다)”, “現在可好(잘 됐구나)”, “說得比唱得還好听(말은 잘도 한다)” 등이 있는데, 이러한 口語習用語는 反語로 주로 사용된다. 즉, 긍정형식으로 부정적 함의를 표현하여, 표면의미로는 사람이나 언행에 대해 칭찬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불편한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이때도 장황하게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것 보다 훨씬 경제적면서도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④ (원문) 好一个王彦, 你居然一个人躲在这里玩电脑。

(번역문) 대단한 왕엔이야. 여기 혼자 숨어서 컴퓨터 하고 놀다니.

위 예문의 口語習用語 “好一个王彦”은 “好一个X” 格式에서 왔다. 종종 反語에서 사용하며, 이 예문에서는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 불만과 비난을 나타낸다. 왕엔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자의 어기를 잘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짧게 발화하여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等着瞧”

⑤ (원문) “成全!” 杜世全嘶吼着：“你还有脸跟我说成全? 我永远不会成全你们! 永远永远不会, 而且, 我会要梅若鸿为这件事付出代价, 你等着瞧吧!”

--琼瑤《水云間》

(번역문) “성사시켜 주라구?” 뚜쓰취엔은 울부짖으며 말했다. “네가 무슨 낱으로 나한테 성사시켜 주라고 말하는 거니? 난 절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절대, 절대 그럴 수 없어. 게다가 난 메이뤄홍에게 이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두고 봐!**”

⑥ (원문) 你的新娘礼服, 就包在我身上了! 我有件白纱的洋装, 正好改了给你做新娘装! 你会是一个最美丽的新娘, **等着瞧吧!** --琼瑤《水云間》

(번역문) 너의 신부 예복은 나한테 맡겨! 나한테 흰색 양장이 한 벌 있는데, 고쳐서 신부 옷으로 너한테 만들어 줄게! 넌 제일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야. **두고 봐!**

예문 ⑤와 예문 ⑥의 口語習用語 “等着瞧”는 모두 자신의 의도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이후의 결과를 기다려 보라는 말이다. 하지만 위의 두 예는 언어환경이 다르며 강조하는 의미도 상반된다. 전자에서 강조하는 것은 상대방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도가 있으며 위협,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후자가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의도로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짧은 말로 상반된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口語習用語가 매우 경제적인 언어 단위임을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口語習用語 의미의 내재성으로 인해 화자는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비판이나 불평과 같은 의사를 전달할 때 의미가 내재된 口語習用語를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5) 評價 기능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Michael McCarthy는 관용구의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용구들은 종종 사건들 그 자체에 대한 보고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이야기 주체와 청자들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서사이야기의 사건들을 ‘평가하는’ 마디들에서 실현된다. 레이콕의 모형에 있는 평가는, 이야기 주체가 자신이 말해 주고 있는 사건들이 ‘진정 들을 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능을 가리킨다.”¹³⁷⁾

즉, 대화에서 평가를 통해 상대방이 화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편 가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공감해주는 사람과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口語習用語를 사용하여 화자는 어떻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지 살펴보자.

- ① (원문) “好, 宝庆, 您这回总算是说了老实话。我也要跟您说点老实话。我们两家合伙儿成班子。我的闺女长相好, 又能叫座。这么说, 她唱的是头牌。要是她唱的是头牌, 她就该拿头牌的钱。话是这么说不是?”

--老舍《老舍文集》<鼓書藝人>

(번역문) “좋아요 바오칭, 당신이 이번에야 마침내 솔직한 말을 한 셈이군요. 저도 당신한테 솔직한 말을 좀 해야겠어요. 우리 두 집이 동업을 해서 극단을 이루었죠. 제 딸은 생긴 게 괜찮고 인기도 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녀가 부르는 게 주요 인물이고, 만약 그녀가 부르는 게 주요 인물이라면, 그녀는 주요 인물의 돈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죠. 말이 그렇잖아요?”

위의 예문은 화자가 자신의 딸이 공연에서 실력 있으니 돈을 더 많이 쥐야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앞부분에서 논리적으로 한참 말을 한 뒤, 마지막에 口語習用語 “話是這麼說”를 사용하여 청자의 동의를 구한다. 이러한 동의 이끌기는 화자의 의견

137) Michael McCarthy(1998), 앞의 책, pp.272-273

에 대해 청자가 귀 기울여 들어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숨어있다. 여기에서 口語習用語 “話是這麼說”는 화자 자신의 말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화자는 청자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口語習用語를 사용하여 화자가 또 다른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살펴보자.

② (원문) “为医学而教的解剖学之类，怕于生物学也没有什么大帮助。” 他叹息说。
--魯迅《魯迅精選集》<藤野先生>

(번역문) “의학을 위해 가르치는 해부학 같은 것은 생물학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그는 탄식했다.

위의 예문의 口語習用語 “没有什么大帮助”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나타낸다. 이 口語習用語의 격식은 “没有什么A”로 화자가 어떤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할 때 자주 사용된다. 중국의 대문호 노신이 사람의 신체를 치료하기 위해 의학을 배우다가 중국인의 정신을 치료하기 위해 문학 활동에 종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을 기록한 이 유명한 산문에서 등야 선생은 노신이 의학을 포기하고 생물학을 배우기로 했다는 말에 실망하게 된다. 여기서 口語習用語를 통해 수행되는 평가 기능은 개인의 주관성과 관련 있으며, 개인의 감정에 따라 그 평가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口語習用語 “没有什么大帮助”는 직접적인 평가가 아니라 간접적인 평가 방식이라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好’나 ‘不好’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 평가 방식이라는 점이다.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口語習用語 중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반어로 사용되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③ (원문) 你可真行，一个人完成了这么多的工作。

(번역문)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일을 다 하시다니.

위의 예문에 사용된 口語習用語 “真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정말로 능력이 있고, 수준이 높다는 것을 감탄하고 있다. 즉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더 살펴보자.

④ (원문) 你可**真行**, 九点上课, 十点才来。

(번역문) 너 **정말 대단하다**, 아홉시에 수업인데 열시에야 오다니.

위의 예문에 있는 口語習用語 “真行”은 반어로 사용되었다. 어떤 사람이 상식적인 도리를 위반하는 행위나 상황에 대해 풍자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는 부정적인 평가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자.

“真有你的”

⑤ (원문) 丁翼平：清波，**真有你的**，亏了你们还是亲戚呢！

管清波：哎——亲是亲，财是财！ --老舍《春華秋實》

(번역문) 평이평 : 칭보, **정말 대단하다**, 당신들이 친척이라면서 이래도 되는 거야?

관칭보 : 에이, 친척은 친척이고, 재물은 재물이지!

⑥ (원문) “**真有你的**，儿呀，”她简直羡慕起来了，“生了个好样儿的闺女……菩萨保佑你吧！” --老舍《鼓書藝人》

(번역문) “**정말 대단하다**, 애야” 그녀는 그야말로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괜찮은 딸을 낳다니... 부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예문 ⑤의 口語習用語 “真有你的”는 反語로 풍자하고 비꼬는 語氣를 담고 있다. 그러나 똑 같은 “真有你的”를 사용한 예문 ⑥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음을 칭찬하는 말이다. 위의 두 예문은 비록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로 상반되지만 짧은 말로 그러한 평가를 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口語習用語의 평가 기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편 가르기를 통한 평가 방식, 완곡어법을 사용한 평가 방식 또는 공감 끌어내기 평가 방식, 반어법을 사용한 평가 방식 등이 있다. 위의 예문 외에도 평가 기능을

가진 口語習用語에는 “好樣的(대단하다)”, “話不能這麼說(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就是嘛(역시 그래)”, “了不起(대단하다)”, “哪能呢(웬걸)” “說得好听(말하기는 쉽다)”, “說得容易(말은 쉽지)” 등등이 있다.

6) 文化 공감 기능

Gary Lupyan은 언어는 정보 소통 외에도 뇌의 정보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언어를 학습하면서 자동적으로 물체, 행위, 소리뿐만 아니라 감정 같은 추상적인 범주에도 이름을 붙이며, 이 이름 붙이기는 대상을 범주화하고, 그것을 그 범주의 다른 예와 연결시킨다.¹³⁸⁾ 즉, 언어는 인지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과제의 종류에 따라 사고를 돕거나 방해할 수 있다. 언어는 단순히 사물을 지칭하는 편리한 표지를 넘어 대단히 강력한 정신적 장치라는 말이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뇌의 정보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인들도 역시 중국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특정한 사유 방식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문화 공감 기능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Herbert H. Clark(1996)은 《Using Language》에서 “우리가 어떤 어휘를 쓸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대화 상대방들이 속하거나 속하지 않은 문화공동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¹³⁹⁾”라고 했다.

Michael McCarthy는 “관용구는 화자들로 하여금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유대감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공동체의 구체물(token 구현사례)이다. 이는 속담이나 인용 등과 같이 직접적인 문화적 인용인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¹⁴⁰⁾”라고 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口語習用語도 오랜 세월동안 말뭉치 형태로 형성되면서 직·간접적으로 문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들끼리 口語習用語를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생활하였지만 중국어에 능통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중국인은 口語習用語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표면적 의미로 통용되는 단어나 표현을 보다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의사소통이란 상대를 배려할 때 가능한 행위인데, 만약 대화 상대방이 문화적인 공통분모가 없다면 ‘소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138) 크리스틴 케닐리, 《언어의 진화》, 진소영 옮김, 알마, 2009, pp.167-171

139) 허어벗 클락, 《언어사용 밑바닥에 깔린 원리》, 경진문화, 2009, pp.170-171

140) Michael McCarthy(1998), 앞의 책, pp.293-294

Herbert H. Clark(1996)은 또 관용구의 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바에 대하여 재량껏 의미과약을 제시하기 위한 표현들을 열거할 수 있다. 많은 것들이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하여 진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¹⁴¹⁾

蘇新春은 《文化語言學教程》에서 어휘가 반영하는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어휘는 구체적인 단어(詞語)의 발생에서 시대적인 물질문화와 의식 형태 및 주관적 세계를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의 내포된 의미, 색채, 정서 및 사용에 있어서도 모두가 시대와 서로 관련되며, 혈통이 서로 통한다.¹⁴²⁾

상술한 바에 따르면, 口語習用語도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일반구로 사용되다가 사람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일반구의 의미와는 별개의 독특한 의미로 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口語習用語가 형태적으로는 단어보다 큰 단위이지만 단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口語習用語의 발생 또한 시대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口語習用語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생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口語習用語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기원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口語習用語의 생성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口語習用語의 생성과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0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口語習用語 “給力(최강이다)”는 “很好”, “牛(짱이다)”, “很帶勁(짜릿하다)”, “酷(쿨하다)”, “棒(대단하다)”, “很有意思(재미있다)” 등의 의미로 일본 만화 《西游記：旅程的終点》이 중국에서 방영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¹⁴³⁾ 특히 이 口語習用語는 인터넷에서 그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인터넷은 21세기 물질문화의 중요한

141) 허어벳 클락(1996), 앞의 책, p.327

142) “词汇不仅在具体词语的产生上体现着一个时代的物质文化、意识形态、主观世界，而且在词汇的内涵、色彩、气韵、使用上也都会与时代息息相关，血脉相通。” 苏新春, 《文化语言学教程》，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2006, p.79

143) 출처: <http://hanyu.iciba.com>

부분으로, 口語習用語의 이러한 일련의 진화 과정은 문화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 “豁出去”의 용례를 통해 口語習用語의 문화 공감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① (원문) 我一直认为跟别人借钱是最丢脸的事, 可现在实在是没有办法了, 我只能豁出去了, 什么脸面不脸面的, 先给父亲看病是最要紧的。

-- 《漢語口語習慣用語教程》)

(번역문) 나는 줄곧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게 제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어쩔 수 없게 되니, 죽기 살기로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어. 체면은 무슨 체면이야, 먼저 아버지가 진찰을 받도록 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위의 예문에서 口語習用語 “豁出去”를 사용하기 위해서 단지 “豁出去”의 의미만 알아서는 불가능하다. 어떠한 상황에서 口語習用語 “豁出去”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한다면 잘못 인식되거나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豁出去”를 《現代漢語詞典》에서 찾으면 “不惜付出任何代价”라고 해석되어있다. 그렇다면 “豁出去” 대신 “付出任何代价”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의미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다. 그러나 “豁出去”를 사용할 때의 구어체적 語氣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어색하게 된다.

口語習用語와 문화와의 연결 문제는 다른 어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른 어휘는 그 어휘 안에 문화적 요소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口語習用語는 간접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口語習用語가 단순한 일반구에서 고정된 후 그 의미가 투명한 것과 불투명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투명한 것은 처음 일반구에서 口語習用語의 의미로 굳어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지만, 불투명한 것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인이 아니라면 투명한 것조차도 그 의미의 연원을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口語習用語 개개의 사용 범위, 상황, 방법 까지도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口語習用語를 사용할 때의 언어환경도 문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삽입어로 사용될 때의 화용적 기능

房玉清은 《實用漢語語法》에서 독립성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장 속에는 이러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연결 작용을 하지 않고, 문장 성분으로 충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문장에서 독립된 성분을 일컬어 독립성분(獨立成分)이라 한다. 독립성분(獨立成分)은 삽입어(插說), 감탄사(嘆詞), 호칭어(呼告語) 및 응답어(應答語)를 포함한다.¹⁴⁴⁾

그가 예로 든 독립성분 중 삽입어(插說) 속에는 口語習用語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不瞞你說(솔직히 말해서)”, “就是說(요컨대)” 등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모든 삽입어(插說) 성분이 모두 口語習用語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삽입어(插說) 성분이 될 수 있는 문장 단위는 아주 많다. 예를 들어, “相反(반대로)”, “十分明顯(대단히 명확하게)”, “說句公道話(공정하게 말한다)”, “歸根結底(근본적으로)” 등으로, 이것들은 각각 단어, 일반구, 문장, 성어(成語) 등인데, 삽입어로 자주 사용된다.¹⁴⁵⁾

여기에서 말하는 삽입어로서의 口語習用語는 형식과 표의(表義) 기능이 이미 정형화 되어있는 고정어로, 발생과정을 보면 이러한 口語習用語는 출현 당시에는 단지 일반구로 형식도 고정되지 않고, 기능도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형식과 기능도 점차 확정되어 보편화되고, 정형화된 성분이 되었다. 이때 그것들은 고정어가 되어, 熟語의 성질을 가지게 되거나 속어화의 경향이 나타난다. 필자는 여기에서 이러한 통속적이고 고정화 정도가 높으며 구어성이 강한 삽입어로 사용되는 口語習用語를 삽입어적(插說性) 口語習用語라고 부르고자 한다.

어법 구조 기능에서 보면 삽입어적 口語習用語는 종종 문장 구조의 관련성분이 아니며, 기타 어법 성분과 구조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문장 구조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144) “在句子里有这样一些成分，它们不起连接作用，也不充任句子成分，我们把这种独立于句子之外的成分称为独立成分。独立成分包括插说、叹词、呼告语和应答语。” 房玉清，《实用汉语语法》，北京大学出版社，2001，p.177

145) 口語習用語와 단어, 일반구, 기타 속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第二章에서 분석한 바 여기서는 다시 덧붙이지 않는다.

施關淦은 《句子：三个平面的語法研究的對象》에서 독립성분의 화용적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독립 성분은 문장의 주어, 술어, 목적어, 한정어, 부사어, 보어 이 육대 성분과는 통사 구조 관계가 없으나 의사 전달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모두 화용적 성분이다.¹⁴⁶⁾

范曉는 《三个平面的語法觀》에서 “삽입어는 문장 속에서 어떤 화용적 의미를 첨가하는 성분이다. 그래서 이는 문장 내부의 화용적 성분이다.”¹⁴⁷⁾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어법적 각도에서 말하자면, 삽입어적 口語習用語는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한 후의 문장의 통사구조는 여전히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화용적 관점에서 보면 삽입어적 口語習用語는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화자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말의 흐름을 끊고, 삽입어적 口語習用語를 문장 중간에 삽입하여 의사소통의 보조적 기능을 하도록 한다.

독립성분으로서 삽입어적 口語習用語는 상황에 따라 문두, 문중, 문미에 각각 나타난다. 다음에서 그 각각의 예를 통해 화용적 기능을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앞부분의 말에 대해 해석하거나 보충 설명을 한다. 예를 들어,

① (원문) “.....话说回来, 一个人的健康, 要从生理、心理、适应能力这三方面来决定。.....”
——夏衍《无題》, 載《人生采訪》上海遠東出版社1996年12月第一版¹⁴⁸⁾

(번역문) “.....그런데, 한 사람의 건강은 생리, 심리, 적응 능력, 이 방면에서 결정된다.”

위의 예문에서 화자는 앞부분에 어떤 방면을 강조한 뒤 삽입어적 口語習用語 “話說回來”를 사용하여 뒷부분을 이끌어낸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종종 의미상 상반되며, 후자가 비로소 화자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¹⁴⁹⁾

146) “獨立成分跟句子的主、謂、賓、定、狀、補這六大成分是没有句法結構關係的, 但在表情達意上却是需要的, 都是語用成分。” 呂叔湘等 《語法研究入門》, 商務印書館, 2000, p.490

147) “插語在句中是添加某種語用意義的成分, 所以它是句子內部的語用成分” 范曉, 《三個平面的語法觀》,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6, p.341

148) 轉載馬、箭飛等, 《新公認標準國語》북경어언대학출판사, 2002, p.20

149) 劉德聯、劉曉雨, 《漢語口語常用句式例解》, 北京大學出版社出版, 2009.4, p.122

② (원문) 全球变暖将导致世界上四分之一的陆地动植物在未来50年内灭绝。也就是说, 100多万个物种将在半个世纪后从地球上消失。

(번역문)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 사분의 일의 육상 동식물을 미래의 50년 내에 멸종시킬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100여 만의 동식물종이 반세기 후에는 지구상에서 소멸 될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화자는 견해, 관점 또는 사실을 제기한 뒤, 청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삽입어적 口語習用語 “也就是说”를 사용하여 후반부를 이끌어내어 해석과 보충 설명을 한다.

두 번째, 화자가 보유하고 있는 확실하고도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이며, 청자는 화자가 전달한 정보를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③ (원문) 李石清：不瞞您说, 因为我在行里觉得很奇怪, 经理忽而又盖大楼, 又是买公债的, 我就有一天趁您见客的那一会儿工夫, 开了您的抽屉看看。 ——曹禺《日出》

(번역문) 리스칭: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회사 안의 움직임이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건물을 짓고, 또 공채를 사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당신이 손님을 만나는 그 틈을 빌어서, 당신의 서랍을 열어 봤어요.

위의 예문에 나온 삽입어적 口語習用語 “不瞞您说”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상황이나 생각이 솔직하며 감추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종종 상대방을 신임하고 상대방과 소원(疏遠)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극본 《日出》에서 리스칭은 사장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장과 彼我나 上下를 나눌 수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사장에게 말하는 어투도 비위를 맞추고 복종하는 어투에서 ‘친밀’한 어투로 바뀐다.

④ (원문) 信不信由你,就是这么娇嫩、纤弱的一种花,却曾给人们带来了极大的灾害。 --北大語料庫

(번역문)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연약하고 가냘픈 꽃인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크나큰 재해를 가져다주었다.

위의 예문에 사용된 삽입어적 口語習用語 “信不信由你”는 화자가 하나의 믿기 힘든 사실을 말하고서, 화자의 말을 믿든 말든 좋을 대로 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한 것이 확실히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청자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말한 내용의 신기함과 의외성에 대해 과장의 의미가 있다.

⑤ (원문) 对于一个成熟的作家来说,是否先锋并不重要,说良心话,作家只相信自己的内心,随着题材的不同会选取不同的表现手法。

--北大語料庫

(번역문) 한 성숙한 작가에 대해 말하자면, 선구자인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양심적으로 말해서, 작가는 자신의 내면만을 믿으며 소재가 달라지면 표현 수법도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다.

위의 예문에 사용된 삽입어적 口語習用語 “說良心話”는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내심에서 나온 것이며, 솔직한 것임을 나타낸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견해가 공정한 입장에서 출발했으며, 사적인 의도가 없으니 청자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상대방의 주의를 끌어낸다. 예를 들어,

⑥ (원문) “是这么回事,炸弹一往下掉,他就使劲跑。”唐四爷还往下说,“也不瞅脚底下,脚踩空了,一头栽到楼底下,磕了脑袋。头上肿起拳头大个包,真是蠢得要命。” --老舍《鼓書藝人》

(번역문) “이렇게 된 일이야,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는 바로 죽을힘을 다해서 뛰었어.” 탕 대감이 계속해서 말했다. “발밑도 쳐다보지 않고, 발을 헛디뎠서 머리를 나무 밑에 박고는 머리를 부딪쳤지. 머리에 주먹마한 혹이 났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어.”

위의 예문에 사용된 삽입어적 口語習用語 “是這么回事”는 먼저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아래의 문장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발생된 경위를 설명하여 상대방이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

⑦ (원문) 对了, 你可千万不要告诉我教练呀, 不然肯定要被骂的。

--北大語料庫

(번역문) 맞다! 너는 절대로 내 감독에게 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욕을 들을 거야.

위의 예문의 삽입어적 口語習用語 “對了”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주의를 이끌어내는데 사용되어, 갑자기 생각난 내용에 대해 보충하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원래 한 순간 잊어버린 것 또는 그리 확실치 않은 일일 수 있으며, 갑자기 생각난 일일 수도 있다.

넷째, 화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⑧ (원문) 说起来, 兰英带着几个人也真不容易, 屡次失败, 不知流下了多少汗水、泪水。

--北大語料庫

(번역문) 말하자면, 란잉이 몇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몇 번이나 실패해서 얼마나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

위 예문의 삽입어적 口語習用語 “說起來”는 화제를 제기한다. 그 뒤에는 종종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견해를 먼저 말하고, 이어서 어떤 일에 대해 서술하며 감탄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⑨ (원문) 起明: 当然啦, 我不是想在你们这儿拉大提琴。 怎么说呢。随便找一个, 就算是个过渡吧。 -- 電視劇《北京人在紐約》

(번역문) 치밍: 당연하지, 나는 너희들 있는 여기서 첼로를 연주하려는 게 아냐. 뭐랄까 아무거나 하나 대충 찾고 있는, 과도기라고 해 두죠.

위 예문의 삽입어적 口語習用語 “怎么说呢”는 화자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말머리를 제기하는 것이다. 화자는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표현해야 상대방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견해를 말하여, 語氣를 온화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다섯째, 어떤 표현 방식 또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⑩ (원문) 强台风每秒可达100米, 这样大的风, 不用说, 吹断稻秆, 就连大树也能连根拔起, 大块钢板都能轻而易举地抛向高空。

--北大語料庫

(번역문) 강한 태풍이 매 초 100미터에 달한다. 이렇게 큰 바람은, 말할 것도 없이, 벼를 쓰러뜨리고 큰 나무도 뿌리 채 뽑아 버릴 수 있어. 커다란 강판도 가볍게 공중으로 던져버릴 수 있지.

위의 예문에 사용한 삽입어적 口語習用語 “不用说”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 문장에서는 사실이나 경험에 근거해 어떤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어 그것이 반드시 그러할 것이라고 여긴다.

⑪ (원문) 对, 他倒是给我提了点儿意见. 你还别说, 歪打正着, 还正提到了点子上。

--北大語料庫

(번역문) 맞아, 그는 오히려 나한테 불만을 제기했어. 말도 마, 소 뒷발로 쥐잡는 격으로, 마침 급소를 찔렀다니까.

위의 예문에 사용된 삽입어적 口語習用語 “你还别说”는 화자가 어떤 표현 방식이나 사실을 확인함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어떤 때는 확인한 표현 방식이나 사실이 표면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예상을 뛰어넘는 결론이 있다.¹⁵⁰⁾

여섯 째, 개인의 견해와 의견을 완곡하게 제기한다. 예를 들어,

⑫ (원문) **我看**, 你早晚会把人得罪光的。

(번역문) 내가 보기에, 넌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다 싫어하게 만들
거야.

⑬ (원문) 我是个外人, 不过**依我看**这件事你做得有些不地道。

(번역문) 나는 무관한 사람이지만, 내가 보기에 이 일은 네가 제대로 처리하
지 못한 면이 있어.

위의 두 예문에서 화자의 추측이나 견해가 나타난다. 만약 삽입어 “我看”과 “依我看”을 빼 버린다면 문장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사실로, 너무 직접적이고 어색한 느낌을 주어 의사소통이 적절하지 않게 된다.

상술한 기능 외에, 삽입어적 口語習用語는 휴지와 발언권 유지의 기능이 있다. Yung-O Biq은 《중국어 ‘就是’, ‘就是說’의 어법화 현상》에서 “ ‘就是說’는 어떠한 실질적 의미를 갖지 않으면서 발언권 유지 장치, 또는 휴지어로서 사용된다.”¹⁵¹⁾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口語習用語 “就是說”가 常玉鐘이 말했던 “다음 문장을 이끌어내고, 앞부분의 대화에 대해 해석이나 판단을 나타냄” 외에, 휴지와 발언권 유지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또 다른 口語習用語도 삽입어로 사용될 때 유사한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對了(맞다)”, “依我來看(내가 보기에)”, “叫我說(말하자면)”, “說來也巧(공교롭게도)”, “說來話長(말하자면 길어)”, “不是我說你(너한테 뭐라는 게 아니야)” 등이 그러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법적인 각도에서 삽입어적 口語習用語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나 부차적 성분처럼 명확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게다가 어법서마다 이에 대한 해석과 분류도 각각 달라 두서없고 복잡하게 느껴져 다루기가 어렵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각도에서 보면, 이런 종류의 언어 현상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유희유’와 같은 작용을 하여, 대화 속에서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150) 刘德联、刘晓雨, 《汉语口语常用句式例解》, 北京大学出版社出版, 2009.4, p.195

151) Yung-O Biq, 《중국어 ‘就是’, ‘就是說’의 어법화 현상》, 朴赞旭 译, 1996, 中国语文论译业刊, p.644

화자는 정보를 보냄과 동시에 삽입어적 口語習用語를 통해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흥미와 주의력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상대방이 신속하게 화자의 의사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능을 하며, 원만하게 의도를 전하면서 의사소통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다.

VI. 結論

漢語口語習用語는 중국인의 일상 대화 속에서 빈번히 출현한다. 그러나 그 사용된 글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주목받지 못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 일정한 언어환경에서 이런 종류의 고정되고 특정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말을 들을 때,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으로 약속된 함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 학습자에게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어법, 의미, 화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漢語口語習用語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 먼저 口語習用語는 漢語 어휘 중 표면의 의미가 아닌 실제의 의미로 사용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점차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고정어를 가리키며, 종종 하나의 고정적인 전체 단위로 대화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특정한 언어환경에서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며, 그 의미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으로 口語習用語는 형식과 언어환경 및 의미가 정해져 있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口語習用語는 어휘 계통에서 成語, 歇后語, 諺語, 慣用語와 지위가 동등하며, 熟語의 하위에 분류될 수 있다.

또한 필자는 口語習用語와 단어, 일반구 및 다른 熟語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口語習用語의 범주와 특징을 확정하였다. 비록 口語習用語가 어휘 중 한 單位이지만, 語法적 기능, 의미적 특징 및 화용적 기능이 독특하고, 단어, 일반구 및 다른 熟語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첫째, 단어와 비교하면, 口語習用語는 어휘 계통 속에서 단어와 공통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完整한 언어의 구성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의 單位로 볼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문장 속에서 출현하거나 다른 언어 單位와 결합되어, 통사 분석상의 最小 單位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 외에 口語習用語는 구조상 단어보다는 크고 어떤 것들은 내부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여 일반적인 형태론적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둘째, 일반구와 비교하여 口語習用語는 임시적인 결합이 아니라 고정된 단위가

되었다. 따라서 사용자는 표현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가져와서 사용하면 된다. 口語習用語 속의 단어와 단어의 결합은 자유롭지 않으며, 그것들 사이에는 큰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口語習用語는 일반구의 구조와 유사하다. 구조상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단 熟語의 형태로 결합되면 그것들의 구조는 고정되고, 구조를 변형하거나 이동시킬 수가 없다. 마치 형태소(詞素)와 형태소(詞素)가 단어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각 언어단위는 긴밀하게 결합되어 표면의미의 단순한 합 이외의 뜻을 표현한다. 이것이 일반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

셋째, 다른 熟語와 비교할 때, 口語習用語의 글자 수는 일정하지 않다. 어떤 것은 두자, 세자 또는 그 이상이다. 口語習用語는 블록형(現成式)과 격자형(框架式)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블록형은 전체 구조와 구성 성분상 상대적으로 고정된 것이다. 격자형의 격자는 고정적인 것으로, 일부분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한 뒤 형식과 격자 의미(框架義)의 분리는 초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교체는 일정한 격식의 제약을 받는데, 만약 이 격식을 벗어나면 원래 있던 의미는 소실되어 버린다. 의미적으로 보면 典故로부터 유래되지 않았으며, 그 자체에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

口語習用語의 語法 특징을 살펴보면 통사 분석 상 最小單位라고 할 수 있다. 口語習用語가 문장에서의 어법적 지위 및 사용된 어법 작용의 분석을 통하여 필자는 口語習用語는 기본적으로 문장 속에 체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용언으로 많았는데, 動作, 行爲, 變化, 性質, 狀況, 方式 등을 나타낸다. 문장에서 사용되는 성분으로는 술어, 목적어, 한정어, 부사어, 보어 등으로 충당될 수 있다. 이 외에도 口語習用語는 복문에 사용될 때 節과 의미관계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어법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일부 口語習用語의 語法化 現象이 관찰되었다. 결합형태가 고정되어 점점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되는 경우이다. 口語習用語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구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고정되고, 내부 구조도 점점 긴밀해져 나눌 수 없는 점차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口語習用語 중 일부가 《現代漢語詞典》(第五版) 에도 수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품사도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好意思(태연하다)”, “說得來/說不來(말이 통하다/말이 안 통하다)”, “得了(됐어)”, “好樣儿的(대단한 사람)” 등이다. 그

그러나 품사 표시가 되어 있는 口語習用語도 여전히 구(短語)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中間狀態’라고 할 수 있다.

한편 《現代漢語詞典》(第五版)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품사를 명시하지 않은 口語習用語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好了(됐어)”, “算是(할 만하다)”, “沒把握(확신이 없다)” 등처럼 구에서 단어로의 語法化 과정 중에 놓여 있다. 이들은 문장 속에서 특정한 품사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일부 口語習用語 중에는 아직 사전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語法化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誰跟誰(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放在眼里(안중에 두다)”, “等着瞧(두고 보자)” 등이 그러하다.

口語習用語의 의미는 표면의미와 실제의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표면의미란 口語習用語의 각 구성성분이 직접 가리키는 의미이다. 실제의미란 표면의미 외에 口語習用語가 전달하는 전체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의미는 또 기본의미와 부가의미로 나눌 수 있다. 口語習用語의 기본의미는 口語習用語의 각각의 구성성분이 이미 융합된 뒤 전체가 표현하는 추상적인 의미로, 객관적인 사물에 대해 본질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부가의미란 단어의 기본의미에 부착된 색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감정, 태도, 평가, 이미지, 문체, 어기 등 여섯 가지가 있다.

口語習用語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표면의미는 은유, 환유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의미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면의미는 이미지색채를 보다 두드러지게 하며 실제의미를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구가 장기간에 걸쳐 표면의미로만 사용되다가 새로운 의미를 가진 口語習用語로 고정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常用되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일반구보다 口語習用語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반구로는 나타낼 수 없는 부가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口語習用語는 상이한 語氣와 感情이 담겨 있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체가 되었으며, 화자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태도와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口語習用語는 熟語의 한 종류로서, 가장 두드러진 의미특징은 바로 의미의 融合性이다. 그 의미는 각 성분이 표시하는 의미의 기계적 합이 아니라, 어떤 언어환경 속에서 장기간 사용되어 형성되고 아울러 사회적으로 약속된 특정 함의를 담고 있다. 따라서 구성된 각각의 성분에서 그 의미를 추측해 내기 어렵다.

口語習用語와 언어환경에 대해 살펴본 바로는 口語習用語는 그 발생과정에서 특정한 언어환경에서 특정한 의미와 형식으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언어환경 속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또 口語習用語에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는데, 인칭대사, 지시대사, 의문대사, 어기조사 등이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어기조사를 사용할 때는 특유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口語習用語에는 격자형 구조가 많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틀은 고정되어 있지만 내부의 일부 구성성분은 언어환경에 근거하여 바꿀 수 있다.

口語習用語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본 바로는 진술문, 의문문, 반문, 감탄문 및 명령문 등에 사용될 때 표현되는 특징은 각기 다르다. 특히 의문문으로서 질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주로 반문으로 사용된다. 또한 口語習用語에는 특정한 어조가 사용되기도 하며, 휴지와 중음(重音), 억양(句調)으로 의미를 달리할 수도 있다.

口語習用語는 화용적 기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발화는 문장이 구체적인 언어환경 속에서 실현되는데, 口語習用語가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口語習用語는 언어의 기능 중 ‘정보전달 기능’ 보다 ‘인간관계’와 관련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口語習用語에 감정색채를 지닌 표현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하므로 口語習用語로 완곡하게 표현하여 화자 자신이나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해 준다. 口語習用語의 의미가 함축적이기 때문에 체면 유지를 위해 모호하게 말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어 학습자들은 기본적인 어휘와 어법에 익숙해지면서 보다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려는 욕구를 느낀다. 중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口語習用語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보다 더 ‘중국어다운’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口語習用語는 언어의 기본적 성격인 경제성이 강한 특징을 가진다. 복잡한 의미를 짧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의 내재성 때문에 口語習用語를 사용하면 보다 경제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판단하는데, 중국인들은 口語習用語를 사용하여 ‘평가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口語習用語 발생 연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사회 문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口語習用語를 사용할 때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口語習用語는 삽입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문장 구조로부터

독립적으로 사용되면서 유창하게 이어나가는 역할을 하며, 의사소통의 보조적 기능을 한다. 삽입어로 사용되는 예로는 “不瞞你說(솔직히 말해서)”, “就是說(요컨대)”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의사소통 중 우리는 특히 그 의미와 화용상의 특징에 주의를 기울여 체득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은 의사소통 중 언어 표현의 복잡성, 간접성 및 완곡적 표현 등에 특히 주의한다. 漢語口語習用語에는 이런 중국 문화의 특징이 구체화되어 있다. 비록 그것은 몇 개의 간단한 단어만으로 구성된 고정어이지만, 각각의 단어가 표시하는 개별적인 의미로부터는 실제 나타내는 의미를 알아내기 어렵다.

口語習用語의 어법 특징, 의미, 語氣, 感情 및 언어환경을 이해하고 장소와 대상에 따라 口語習用語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문장의 표면의미 뿐만 아니라, 口語習用語의 실제의미를 알아야 한다. 본고에서 얻어진 결론을 참고하여 중국어 학습자들이 더욱 유창하게 중국어를 구사하고 잘못된 이해나 사용상의 실수를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書籍類》

- 葛本儀, 《語言學概論》, 山東大學出版社, 2006
- 戴維 克里斯特爾編, 沈家煊譯, 《現代語言學詞典》, 商務印書局, 2007
- 레이먼드 W. 김스, 나익주 옮김, 《마음의 시학:비유적 사고 · 언어 · 이해》, 한국문화사, 2003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2000
- 劉德聯·劉曉雨編著, 《漢語口語常用句式例解》, 北京大學出版社出版, 2009
- 劉叔新, 《漢語描寫詞匯學》, 商務印書館, 2005
- 劉月華, 《使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2005
- 馬國凡·高歌東《慣用語》, 內蒙古人民出版社, 2000
- Michael McCarthy, 김지홍 옮김, 《옥스포드 언어교육 지침서》, 범문사, 2003
- Michael McCarthy, 김지홍 옮김, 《입말, 그리고 담화 중심의 언어교육》, 도서출판 경진, 2010
- 馬 眞, 《現代漢語虛詞研究方法論》, 商務印書館, 2004
- 武占坤, 《漢語熟語通論》, 河北大學出版社, 2003
- 房玉清, 《實用漢語語法》, 北京大學出版社, 2001
- 范 曉, 《三个平面的語法觀》,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8
- 范 曉·張豫峰, 《語法理論綱要》, 上海譯文出版社, 2003
- 符淮青, 《現代漢語詞匯》, 北京大學出版社, 2004
- 常玉鐘, 《口語習用語功能詞典》,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3
- 徐晶凝, 《現代漢語話語情態研究》, 昆侖出版社, 2008
- 蘇新春, 《文化語言學教程》, 外語教學与研究出版社, 2006
- 孫維張, 《漢語熟語學》, 吉林教育出版社, 1989

- 宋均芬, 《漢語詞匯學》, 知識出版社, 2002
- 엘리 힝켈 편저, 김덕영 옮김, 《문화와 제2언어 교수학습》, 한국문화사, 2009
- 오예옥, 《형식의미론과 인지의미론에서 본 어휘의미론》, 도서출판 역락, 2004
- 溫端政, 《新華慣用語詞典》, 商務印書館, 2009
- 溫端政, 《漢語語匯學教程》, 商務印書館, 2006
- 王 力, 《中國現代語法》, 商務印書館, 1985
- 王 立, 《漢語詞的社會語言學研究》, 商務印書館, 2006
- 熊文華, 《短語別裁》, 民族出版社, 2004
- 殷樹林, 《現代漢語反問句研究》, 黑龍江大學出版社, 2009
- 이동혁, 《한국어 관용 표현의 정보화와 전산 처리》, 도서출판 역락, 2007
- 李福印, 《語義學概論》, 北京大學出版社, 2007
- 張 斌·胡裕樹, 《漢語語法研究》, 商務印書館, 2003
- 狄化夷, 《現代漢語鑒別語法》, 云南教育出版社, 1996
- 趙金銘, 《對外漢語教學概論》, 商務印書館, 2009
- 趙元任, 《漢語口語語法》, 商務印書館, 1979. 第一版
- 周 荐, 《漢語詞匯研究史綱》, 語文出版社, 1998
- 최지훈, 《한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 연구》, 도서출판 혜안, 2010
- 崔希亮, 《中國人文世界与漢語熟語》,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7
- 콩 전, 최선임 옮김, 《한권으로 읽는 중국인의 실제》, 지식여행, 2008
- 크리스틴 케닐리, 진소영 옮김, 《언어의 진화》, 알마, 2009
- 彭慶華, 《英語習語研究》, 社會文獻出版社, 2007
- 何兆熊, 《新編語用學概要》,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0. 第3版
- 許世立, 《중국어 의사소통의 화용론적 연구》, 學古房, 2006
- 허어벗 클락, 김지홍 옮김, 《언어사용 밑바닥에 깔린 원리》, 경진문화, 2009
- 胡明揚, 《語言學論文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1
- 黃伯榮·廖序東,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2007. 第四版
- G. 레이코프, 이기우 옮김, 《인지 의미론》, 한국문화사, 1993
- G. 레이코프·M. 존슨, 노양진·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도서출판 박이정, 2006

Jef Verschueren, 김영순 · 지인영 · 이정화 옮김, 《화용론 이해》, 도서출판 동인,
1999

Murray Knowles · Rosamund Moon, 김동환 · 김주식 옮김, 《은유소개》, 한국문화사,
2008

Victoria Fromkin · Robert Rodman · Nina Hyams, 성낙일 · 박의재 옮김, 《현대영
어학개론》, CENGAGE Learning, 2011

Muriel Saville-Troike, 임병빈 · 송해성 · 이은표 · 강문구 옮김, 《제2언어 습득론》,
세진무역, 2008

Susan M. Braidi, 최숙희 · 김양순 옮김, 《제2언어 통사론 습득》, 도서출판 동인,
2001

《學位論文》

金鎮宇, 《現代漢語短語研究》, 上海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99

栗 甜, 《對外漢語教學中的口語習用語理解研究》, 陝西師範大學碩士論文, 2007.4

王 健, 《漢語固定語理論与英語相關范疇研究》, 天津師範大學碩士論文, 2002

丁 洁, 《留學生漢語口語習用語語塊習得研究》, 暨南大學碩士論文, 2006.5

王收奇, 《“好(一)个X”感嘆句之多角度考察》, 暨南大學碩士論文, 2007.6

賀俊嵐, 《對外漢語口語詞典的收詞、釋義、示例研究——以現代漢語常用口詞語詞典
和口語習用語功能詞典爲例》, 暨南大學碩士論文, 2008.5

胡 琳, 《試論現代漢語中非固定短語的熟語化過程及其成因》, 四川大學碩士論文,
2005

《一般論文》

甘瑞瑗, <試論什么是對外漢語教學中的“詞”>, 《漢語研究與應用》第五輯, 中國社會
科學出版社, 2007.7

姜炳圭, <말뭉치에 기초한 중국어 연어(搭配)연구 방법 고찰>, 《중국어 문학논집》
제41호


- 羅慶, <漢語口語常用語塊的特点及其對第二語言教學的啓示>, 《湖北大學成人教育學院學報》, 2008.12
- 나순경, <제2언어로서 중국어 습득과정중의 전이(遷移) 현상연구>, 《언어학연구》 14권 1호, 2009.4
- 羅榮華, <“万一”的語法化>, 《宜春學院學報》, 第29卷 第1期, 2007.2
- 呂貞男, <基于認知語義學對慣用語的解讀>, 《중국어학연구》 제50집, 2009
- 雷冬平, <极度构式“最/再+x+不過”的构成及語法化研究>, 《湘潭大學學報》, 哲學社會學科版, 2011. 01期
- 劉德聯·劉曉雨, 《漢語口語常用句式例解》, 北京大學出版社出版, 2009.4
- 馬箭飛等, 《신공략중국어》, 북경어언대학출판사, 2002
- 武建明·盛愛萍, <“甬說”的語法化与主觀化>, 《語文學刊》, 2009 第6期
- 文紅, <試析“口語習用語”>, 《中國人文科學》第四十一輯, 中國人文學會, 2009
- 文紅, <關於漢語口語習用語的教學>, 《中國語教育和研究》第12號,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0.11
- 常玉鐘, <口語習用語略析>, 《語言教學与研究》第二期, 1989
- 尚平, <對語氣的再認識>, 《語言學与應用語言學研究第一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5
- 徐晶凝, <“這麼說”試析>, 《漢語學習》第4期, 1998
- 孫汝健, <句末語氣詞的四種語用功能>, 《南通大學學報》, 2005.6
- 심지연, <국어 관용어의 의미는 합성적인가? 비합성적인가? -인지의미론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 고찰->,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고려대학교, 2009
- 楊書俊, <“V+不+X”動補式結構的語法化過程和机制>, 《漢語研究与应用》第五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7
- 楊偉萍, <說習用語“誰知道”>, 《高等函授學報第16卷第4期》, 2003.8
- 王凱之·聶建芝, <“有的是”的語法化條件>, 《渤海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 第2期
- 王峰, <談插入語在語篇中的語用修辭功能>,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1999.3
- 尤業鳳, <助動詞“好意思”及其否定形式初探>, 《社會科學研究》第18卷第3期, 2006

- 李 濤,〈漢英插入語對比研究〉,北京科技大學外國語學院,2006
- 李文浩,〈“愛v不v”的構式分析〉,《現代外語》第32卷 第3期,2009.8
- 李敏淑·林昇圭,〈自然語境中漢語的外語式話語個案研究〉,《中國言語研究》第30集,2009
- 李勝梅,〈“話說回來”的語用分析〉,《修辭學習》第3期,2004
- 張 梅·海友爾,〈漢語口語習用語在維語中的理解與表達〉,《喀什師範學院學報》第4期,1998
- 張成福·余光武,〈論漢語的傳言表達——以插入語研究為例〉,《語言科學》,2003.5
- 張小雯,〈“(你)還別說”語義語法語用考察〉,《高等教育與學術研究》NO.5,2008
- 張天雪,〈“不像話”的語法化〉,《語文學習》,2011 第2期
- 張風格,〈口語習用語的基本特征及其教學〉,《漢語研究與應用》第二輯,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4.7
- 張風格,〈口語習用語研究的兩個問題〉,《語言文字應用》第二期,2005
- 張風格,〈口語習用語的結構類型及其特點〉,《漢語研究與應用》第三輯,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5.6
- 張風格,〈口語習用語的對稱和不對稱現象〉,《漢語研究與應用》第四輯,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6.6
- 張風格,〈口語習用語的情態意義〉,《漢語研究與應用》第五輯,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7.7
- 張風格,〈口語習用語情態意義的隱喻實現方式〉,《漢語研究與應用》第六輯,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8.11
- 占 彬,〈從語用學的角度看言語交際中的語言經濟性〉,《中南民族大學報》,2007
- 丁 洁,〈口語習用語作為預制語塊的教學〉,《語文學刊》第6期,2005
- 鄭綺/蒲霏,〈“怎麼說”的語法化歷程〉,《語言應用研究》,2009.10
- 鄭志進,〈英漢交際中語調的語用功能對比研究〉,《貴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6期,2004
- 趙金銘,〈對外漢語教學概論〉,商務印書館,2009
- 趙春利,〈談對外漢語語氣教學〉,《暨南大學華文學院學報》第1期,2003
- 周上之,〈离合詞是不是詞〉,《暨南大學華文學院學報》,2001. 第四期

- 周翠蘭, 〈關於動賓式“离合詞”的句法功能〉, 《중국어언어연구》, 한국중국어언어학회, 1999
- 陳淑美, 〈語言的經濟性原則在漢語中的體現〉, 《韶關學院學報》, 社會科學, 2008
- 崔建新, 〈五百个基础漢字造出的句子可以覆盖多少个語法点〉, 《漢語研究与应用》第四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6
- 최명원, 〈언어와 언어사용에 있어서 맥락의 의미〉, 《한국독일어문학회》, 독일어문학, 2002
- 彭 琴, 〈“眞是的”的語法化及相關問題探析〉, 《語言應用研究》, 2011.5
- 何文彬, 〈現代漢語語氣助詞基本功能研究綜述〉, 《樂山師範學院學報》第8期, 2010
- 郝 琳, 〈對外漢語教師非自然語感語言調查研究〉, 《漢語口語与書面語教學》, 北京大學出版社, 2004
- 韓彩英, 〈語境的制約功能及其表現形式〉, 《語言文字應用》第4期, 2000
- 홍경선, 〈영어 교육의 유창성 개념 분석〉, 《언어학연구》 10권 1호, 2005

《文學作品類》

- 賈平凹, 《賈平凹精選集》, 北京燕山出版社, 2005.12
- 老 舍, 《老舍精選集》, 北京燕山出版社, 2006.7
- 老 舍, 《老舍文集》, 人民文學出版社, 1993
- 老 舍, 신진호 옮김, 《찾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 曹雪芹·高鶚, 《紅樓猛》, 人民文學出版社, 1978
- 曹 禺, 《日出》, 人民出版社, 1994
- 조 우, 한상덕 譯, 《日出》, 한국문화사, 1996
- 曹 禺, 《曹禺精選集》, 北京燕山出版社, 2006.7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circular emblem. It features a stylized flame or torch in the center, with the university's name in English, "JEJU NATIONAL UNIVERSITY", around the top and in Korean, "제주대학교", around the bottom. The year "1952" is also present. The logo is semi-transparent and serves as a background for the title page.

A Study on Chinese Oral Idioms

— Focused on the Grammar, Semantics, and Pragmatics —

Hong Wen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eong-ho Lee)

【 ABSTRACT 】

The study analyzes Chinese oral idioms in the aspects of grammar, semantics, and pragmatics. The research used examples cited in “A functional dictionary of colloquial expressions in Chinese,” edited by Chang Yuzhong, and “Exemplification of Common Sentence Patterns in Spoken Chinese,” co-authored by Liu Delian and Liu Xiaoyu, as the main and supplementary sources, respectively. The study also cited and summarized expressions from renowned writers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such as, Lu Xun, Cao Yu, Lao She, Jia Ping-ao, as well as, a number of linguistic data from [Chinese Corpora](#) developed Peking University.

The study suggests a definition of Chinese oral idioms as follows: they belong to an independent part of Chinese vocabulary and form fixed-language vocabulary taxonomy as everyday vocabularies used universally by native Chinese speakers. They are also characterized as a composition of simple Chinese characters while having a fixed and complete unit of expression. They signify a particular meaning under a specific context, which have been understood for a long period of time as a socially accepted promise with a defined form, context, and meaning.

Chinese oral idioms can be placed at the same hierarchical status as chengyu; xiehouyu; proverbs and guanyongyu, which is usually comprised of or, under the higher linguistic classification of idiomatic phrases.

In the aspect of syntactic analysis, a Chinese oral idiom can be identified as a lexeme. Chinese oral idioms are seldom used as a substantive in a sentence. However, basically, when they are used as a declinable word in a sentence, they have a comparatively strong grammar function, which can serve as supplementary elements, such as, a predicate, objective, attributive, adverbial, and complementary modifier. Besides, they can be supplementary in a complex sentence as part of a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clauses. Furthermore, grammaticalization is also a phenomena found in certain Chinese oral idioms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both as a phrase and a word.

Chinese oral idioms carry more than the simple aggregation of the superficial meanings of each comprising word. They have a substantive meaning comprised of an extra meaning added to the basic meaning. The study found that the superficial meaning of an oral idiom actually influenced in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the stages of metaphor and metonymy, before it is finally accepted for its own substantive meaning. The most semantic distinctiveness of Chinese oral idioms, is the very property of semantic amalgamability. The final semantic outcome is not the mechanical summation of the meanings of each component word or character, but an oral idiom that rather carries an inferred meaning to which a consensual agreement is reached through a long use of the specific expression under a certain linguistic environment.

Chinese oral idioms are used under a certain linguistic environment with frequent use of particular vocabularies, such as, pronouns, interrogatives, and

mood particles. The oral idioms are expressed in the two fixed forms of structure, i.e., block and lattice, which is not allowed to alter by discretion. Oral idioms expressed in an interrogative sentence usually imply a rhetorical question. A particular tone is often used in Chinese oral idioms of which meanings can vary upon the ways of using pause, stress, and intonation.

Chinese oral idioms have various pragmatic functions that can serve in a variety of aspects to include, human relationship, euphemistic expression, fluency enhancement, economic effect, evaluation, cultural empathy. Some oral idioms are used as interpolation. They are used independently in a sentence while polishing the meaning and providing a supplementary function for better communication.

Understanding the aspects of grammar, semantics, and pragmatics of Chinese oral idioms, will help have a comfortable command of Chinese with enhanced accuracy and fluency.

Key Words: Chinese oral idioms, Grammaticalization, Superficial meaning, Substantive meaning, semantic amalgamability, linguistic environment for use of oral idioms, methods of idiomatic expression, mood particles, tone, pragmatic function



【 부 록 】

《口語習用語功能詞典》 152)

-한국어 의미 일람표-

* 영어 알파벳순으로 정리함

1. 실제의미 : 口語習用語 구성성분 전체가 하나의 의미로 융합된 의미를 말한다. 실제의미에는 기본의미와 부가의미가 있다.
2. 기본의미 : 口語習用語 각각의 구성 성분이 이미 융합된 뒤 전체가 표현하는 추상적인 의미로, 객관적인 사물에 대해 본질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3. 부가의미 : 단어의 기본의미에 부착된 색채를 나타내는 의미이다. 부가의미는 여섯 가지로 나누어 각각 숫자로 표기하였다. 1: 감정색채, 2: 태도색채, 3:평가색채, 4: 이미지색채, 5: 문체색채, 6: 어기색채
4. 표면의미 : 口語習用語와 같은 형태의 일반구가 존재할 때 가지는 의미로, 구성성분의 합으로 이루어진 의미를 말한다. 표면의미가 있을 경우는 표면의미를 표기했으며, 어법규칙에는 부합하지만 일반구로 사용되지 않아 표면의미가 없을 때는 ‘△’표를 하였고, 어법규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일반구로도 사용되지 않을 때는 ‘×’표 하였다.
5. 어법화 강도 : 구(短語)에서 단어로 변하는 것을 어법화라고 한다. 그 중 《現代漢語詞典》(第五版)에 단어로 수록되어 품사 표시가 있는 것은 어법화가 강한 것으로 ‘강’이라 표시하고, 단어로 수록되었으나 품사 표시가 없는 것은 어법화가 중간 단계인 것으로 ‘중’, 단어로 수록되지 않은 것은 어법화가 약한 것으로 ‘약’이라고 표시하였다.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A				
爱A不A	~하든 말든	1 2 5 6	×	약
爱理不理	본체만체 하다	2	×	약
按理说	원칙대로 말하자면	5	△	약
按你说	네 말에 따르면	5 6	△	약
B				
巴不得	몹시 바라다	5 6	△	강
包在我身上	제게 맡기세요	2 5 6	△	약
本来嘛	원래 그렇잖아	3 5 6	×	약
甭管怎么说	뭐라고 말하든	2 5 6	뭐라고 말하든 상관마라	약
甭看	~라 보지마라	3 5 6	보지 마라	약

152) 常玉钟, 《口语习用语功能词典》,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3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甬说	말할 것도 없다	3 5 6	말하지 마라	약
甬提了	말도 마라	1 3 5 6	△	약
甬想	~할 생각 마라	2 5 6	생각하지 마라	약
彼此彼此	피차 마찬가지로입니다	2 5	×	약
变着法儿	갖가지 계략을 동원하다	3 5 6	△	약
别逗了	놀리지 마	5 6	△	약
别看	~라 보지마라	5 6	보지 마라	약
别说	말할 것도 없다	3 5 6	말하지 마라	약
别提 (了)	말도 마라	3 5 6	△	약
别忘了	잊지 마	5 6	△	약
别想	~할 생각 마라	5 6	생각하지 마라	약
别这么说	그렇게 말하지 마	5 6	이렇게 말하지 마라	약
不碍事	괜찮다	5 6	△	약
不A白不A	~ 안 하면 괜히 ~안 하는 거지	1 5 6	△	약
不成话	말도 안 된다	3 5 6	△	약
不得不	어쩔 수 없이	2 5 6	△	강
不得了	대단하다	3 5 6	△	약
不得已	어쩔 수 없다	2 5 6	△	약
A不A的 (吧)	~(하)든지 말든지	2 5 6	×	약
不等于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5 6	△	약
不对劲儿	뭔가 아니다	3 5 6	△	약
不对味儿	이상하다	3 5 6	△	약
不敢当	감당할 수 없다	2 5 6	△	약
不敢说	말도 못 꺼내	2 5 6	감히 말하지 못하다	약
不关/干你的事	너와 상관없다	2 5 6	△	약
不关/干我的事	내가 알 바 아니다	2 5 6	△	약
不管不顾	신경 쓰지 않다	2 5 6	△	약
不管三七二十一	다짜고짜	2 5 6	△	약
不管怎么说	좌우간	5 6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A不过	~할 수 없다	3 5 6	△	약
不好意思	무안하다	2 5 6	△	중
不见得	알 수 없다	3 5 6	△	약
不就得	~하면 그만이지	5 6	△	약
不就是	~하지 않겠나	5 6	△	약
不就行了	~하면 그만이지	5 6	△	약
不客气	괜찮아	2 5 6	△	약
不冷不热	미적지근하다	2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약
不瞒A说	솔직히 말하면	5 6	△	약
不能这么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5 6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약
不是办法	좋지 않다	5 6	방법이 아니다	약
不是吹牛	허풍이 아니다	5 6	허풍이 아니다	약
不是A的材料	~할 그릇이 아니다	5 6	~의 재료가 아니다	약
不是地方	장소가 적절치 않다	5	장소가 아니다	약
不是(好)东西	돼먹지 않은 놈	3 5 6	(좋은) 물건이 아니다	약
不是(吗)	아니야?	5 6	~가 아니다	약
不是闹着玩的	장난이 아니야	5 6	△	약
不是时候	적절한 때가 아니다	3 5 6	때가 아니다	약
不是说	~라고 말하지 않았어	5 6	~라고 하지 않다	약
不是说好	~라고 말하지 않았어	5 6	×	약
不是味儿	좀 아니다	3 5 6	△	약
不是一回事	별개의 일	5 6	△	약
不是这个意思	이런 의미가 아니다	5 6	△	약
不是滋味	좀 아니다	4 5 6	△	약
不说	~는 말하지 않아도	5 6	말하지 않다	약
不算	~라 할 수 없다	5 6	△	약
不算什么	별 거 아니다	2 5 6	△	약
不听使唤	말을 안 듣다	2 5 6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不相干	상관없다	3 5 6	△	약
不像(个)样子	말이 안 된다	2 3 5 6	△	약
不象话	말이 안 된다	3 5 6	△	중
不像样儿	말이 안 된다	3 5 6	△	약
不行	안 된다	3 5 6	△	약
不要紧	괜찮다	3 5 6	△	약
不要命	목숨을 아끼지 않다	2 3 5 6	△	약
不要忘了	잊지 마	5 6	△	약
不用说	~는 말할 것도 없고	5 6	말할 필요 없다	약
不由得	저도 모르게	5 6	△	약
不在乎	개의치 않다	2 5 6	△	강
不怎么样	별로다	3 5 6	×	약
不知(道)	모르겠다	5 6	모르다	약
不知如何是好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4 5 6	△	약
不知是怎么了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5 6	△	약
不知怎么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5 6	△	약
不知怎么搞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2 5 6	△	약
不知怎么回事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5	△	약
不至于	~에 미치지 않다	5 6	△	약
C				
才怪(呢)	~한 게 이상하지	5 6	△	약
沉得/不住气	마음을 진정시키다/ 진정시키지 못하다	2 4 5	△	약
吃不消	참을 수 없다	4 5	△	강
吃得/不开	환영 받다/받지 않다	3 5	△	강
错得/不了	틀릴 수 있다/없다	3 5	△	약
D				
打不定主意	결정하지 못하다	2 5	△	약
打A的主意	~로부터 얻어낼 궁리를 하다	5	△	약
打定主意	결정하다	5 6	△	약
打招呼	인사하다	5	△	약
打主意	궁리를 하다	5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大不了	대단할 거 없다	5 6	△	강
大A特A	크게 ~하다	3 5 6	×	약
待理不理	본체만체 하다	2	×	약
但愿如此	그랬으면 좋겠다	5 6	△	약
当(一)回事	대단하게 여기다	5	△	약
当着A的面	~의 면전에 대고	5	△	약
到头来	마침내	5	△	약
A到B头上来	B에게 ~가 미치다	2 4 5	△	약
倒要看看	두고 보겠다	2 5 6	오히려 한번 봐야 한다	약
倒也是	그도 그래	3 5	△	약
得(了)	됐어	5 6	얻었다	강
得了吧	됐어	2 5 6	×	약
A得/不过来	~할 수 있다/없다	5	△	약
A得/不起	~할 여력이 있다/없다	5	△	약
等于	같다	3	~에 해당되다	강
等着吧	두고 봐	5 6	기다려 보아라	약
等着瞧	두고 봐	5 6	기다려 보아라	약
顶多	기껏해야	5 6	아주 많다	약
顶好	상책이다	3 5 6	아주 좋다	약
动不动	결핏하면	5 6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강
都什么年月了	때가 어느 떼데	2 5 6	△	약
都什么时候了	때가 어느 떼데	2 5 6	△	약
都是你	다 너 때문이야	2 5 6	모두가 너이다	약
对了	맞다	5 6	맞았다	약
对(于) A来说	~ 입장에서는	5 6	△	약
多的是	얼마든지 있다	5 6	많은 것은 ~이다	약
多管闲事	쓸데없이 참견하다	2 4 5 6	△	약
E				
二话不说	두 말 않고	2 5	△	약
二话没说	두 말 않고	2 5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二一添作五	이등분하다	5	일 나누기 이는 영 점 오	약
F				
犯得/不上	~할 만 하다/하지 않다	3 5	△	약
犯得/不着	~할 만 하다/하지 않다	3 5	△	약
放在心上	염두에 두다	2 5	△	약
放在眼里	안중에 두다	2 5	△	약
G				
干吗	왜	5 6	했니	약
干什么	왜	5 6	무엇을 했니	약
高抬贵手	관대히 봐 주세요	2 5 6	△	약
搞名堂	궁궁이를 꾸미다	2 5 6	△	약
搞什么名堂	궁궁이를 꾸미다	2 5 6	△	약
告诉你	잘 들어	2 5 6	너에게 알려 주다	약
A个够	실컷 ~하다	5 6	×	약
给A面子	~의 체면을 봐서	5 6	△	약
给你添麻烦	귀찮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5 6	△	약
A跟B过不去	A가 B를 못살게 하다	5 6	△	약
跟你说实话	사실을 말하자면	5 6	△	약
跟A一般见识	~처럼 굴다	5 6	×	약
恭敬不如从命	염치 불구하고 따르겠습니다	2 5 6	△	약
公事公办	사무적이다	2 5	×	약
够朋友	의리 있다	3 5 6	×	약
够受的	견디기 힘들다	3 5 6	×	강
够意思	의리 있다	3 5 6	×	중
顾不得	생각조차 못하다	5	△	약
顾得了	주의할 수 있다	5	△	약
顾得/不上	주의할 수 있다/없다	5	△	중
怪不得	어쩐지	5	△	강
关/干你什么事	네가 상관할 게 아냐	2 5 6	△	약
关/干我什么事	내가 알 바 아냐	2 5 6	△	약
管得/不着	관여할 수 있다/없다	5 6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管A叫B	A를 B라 부른다	5	△	약
管你	상관 마라	2 5	너를 관리하다	약
管他	상관 마라	2 5	그를 관리하다	약
管它三七二十一	다짜고짜	2 5	×	약
管闲事	쓸데없이 참견하다	3 5	△	약
A归A, B归B	A와 B는 별개의 문제다	5	△	약
过得/不去	지낼 만하다/하지 못하다	2 5 6	△	강
过的(是)什么日子	어떻게 사는지	2 5 6	△	약
过奖了	과찬이십니다	2 5 6	△	강
过日子	지내다	5	날을 보내다	약
过意得/不去	마음에 걸리다	5 6	△	중
H				
还不是	~가 아니냐	5	아직 ~가 아니다	약
还不是那么回事	별거 아니다	5 6	△	약
还不行吗	~하면 안 되냐	5 6	△	약
还了得	굉장하다	3 5 6	△	약
还A呢	더욱이 ~라고	5 6	아직 ~도 하고 있다	약
还是那句话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5 6	아직도 그 말이다	약
还是A为好	~하는 게 좋다	5 6	△	약
还说呢	우기려고 하다니	5 6	아직 말하고 있다	약
好啊	좋다	5 6	△	약
好家伙	대단하다	3 5 6	좋은 친구들	약
好了	됐다	5 6	△	중
好你个	이놈의 ~ 자식	2 5 6	×	약
好日子	경사스러운 날	3 5	△	약
好说	문제없다	5	△	강
好说话儿	부탁을 잘 들어주다	3 5	△	중
好样的	장하다	3 5 6	×	강
好一个	대단한	5 6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好意思	태연하다	5 6	좋은 의미	약
合得/不来	마음이 통하다/통하지 않다	5	△	약
何必呢	그럴 것 까지 있나	5	△	약
何苦呢	그럴 필요가 있나	5	△	약
何以见得	또 알아	5 6	△	약
何至于	그렇게 까지야	5 6	△	약
恨不得	간절히 바라다	4 5 6	△	약
恨不能	간절히 바라다	4 5 6	△	강
话不能这么说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5	△	약
话是这么说	말이 그렇잖아	5 6	△	약
话说到前头	먼저 말해둘게 있는데	5 6	△	약
话又说回来	그런데 말이지	5 6	△	약
会说话	듣기 좋은 말을 잘 한다	3 5	말을 할 줄 알다	약
豁出去	죽기 살기로	2 5	△	중
活该	고소하다	3 5 6	×	강
J				
见不得人	뒤통치 못하다	5	△	약
叫什么	(이게) 뭐냐	5	무엇이라 부를까	약
叫我看	내가 보기에	5	나에게 보라고 시키다	약
叫我说	내가 보기에	5	내가 말하도록 시키다	약
就得了	됐다	5	곧 얻었다	약
就那么回事	별 거 아니다	5	△	약
就是了	됐다	5	△	강
就是嘛	그렇고 말고	5	곧 ~이잖아	약
就是说	바꿔 말하면	5	△	약
就行了	됐다	5	△	약
就这么着	이렇게 하자	5	△	약
就这样	이렇게	5	곧 이렇게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据我所知	내가 알기로는	5	△	약
K				
看把AB的	A가 B한 것 좀 봐	5 6	△	약
看不惯	눈에 거슬리다	4 5	△	중
看下去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5	△	약
看出来	간파하다	5	△	약
看AB的	A가 B한 것 좀 봐	5 6	A가 B하는 것을 보다	약
看得/不出来	알아차릴 수 있다/없다	5	△	약
看得/不上眼	마음에 들다/안 들다	4 5	△	약
看你	봐봐	5 6	너를 보다	약
看你的(了)	너한테 맡길게	5 6	너의 것을 보(았)다	약
看你说的	말하는 것 좀 봐	2 5 6	△	약
看上(眼)	마음에 들다	5	△	중
看我		5	나를 보다	약
看我的	내가 하는 걸 잘 봐	5 6	나의 것을 보다	약
看笑话	웃음거리가 되다	5	△	약
看样子	보아하니	5	모양을 보다	약
看在A的情分上	~의 체면을 봐서	5 6	△	약
看着办	알아서 하다	5 6	△	약
靠得/不住	믿을 만하다/하지 않다	3 5	△	약
可不是	왜 아니겠어	5 6	하지만 아니다	약
可倒好	잘 됐다	5 6	△	약
可也是	그도 그래	5 6	정말 ~이기도 하다	약
亏你说的出口	네 입 밖으로 나오다니	5 6	△	약
亏你想得出来	생각하는 거 하곤	5 6	△	약
L				
来这一手	수작 부리다	2 5 6	△	약
来这一套	수작 부리다	2 5 6	△	약
老实告诉你	잘 들어	5 6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老实说	솔직히 말해서	5 6	솔직하게 말해라	약
脸往哪儿搁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나	5 6	△	약
两回事	별개의 일	5	△	약
两码事	별개의 일	5	△	약
了不得	대단하다	3 5 6	△	강
了不起	대단하다	3 5 6	△	강
了得	대단하다	3 5	△	약
另请高明	더 뛰어난 사람을 찾으십시오	5	△	약
M				
满不在乎	전혀 개의치 않다	2 5	△	중
没错儿	맞다	3 5	△	약
没关系	상관없다	5	관계가 없다	약
没看出来	알아보지 못했다	5	△	약
没看见	못 봤어	5 6	보지 못하다	약
没来得及	미처 ~할 시간이 없다	5	△	약
没那么容易	그리 만만하지 않다	5 6	△	약
没你的事	너와 상관없다	5 6	너의 일이 없다	약
没事儿	괜찮다	5 6	일이 없다	약
没头没脑	밑도 끝도 없다	3 4 5	×	중
没完没了	끝날 줄을 모르다	2 5 6	×	약
没影儿	종적을 감추다	5	그림자가 없다	약
美得你	꿈도 야무져	5	△	약
面子往哪儿放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나	5 6	△	약
明摆着	뻔하다	5	△	약
摸不着头脑	종잡을 수가 없다	4 5	△	약
N				
拿不定主意	결정하지 못하다	5	△	약
拿得/不出手	내놓을 수가 있다/없다	5	△	약
拿得/不准	확정할 수 있다/없다	5	△	약
拿得起放得下	감당할 수 있다	5	△	약
拿定主意	결정하다	5	△	약
拿A开心	~를 놀리다	5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拿A来说	~를 두고 말하자면	5	△	약
拿A没办法	~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5 6	△	약
拿主意	결정하다	5	△	약
哪儿啊	아니야	5	어디야	약
哪里的话	무슨 말씀을	5	어느 지방의 말	약
哪里哪里	별 말씀을	2 5	△	약
哪有那么容易	어디 그렇게 쉽겠어	5 6	△	약
哪能呢	웬 길	5 6	△	약
哪有A这么B的	A처럼 B하는 게 어디 있어	2 5 6	△	약
哪至于	~에 미치지 않다	5 6	△	약
那倒是	그도 그래	5 6	그건 오히려 ~이다	약
那是	그러게	5 6	그건 ~이다	약
你不知道	넌 모르겠지만	5 6	너는 모른다	약
A你的吧	~ 하세요	5 6	×	약
你的意思是说	네 말은	5 6	△	약
你看	이 보세요	5 6	네가 보다	약
你看你	이 보세요	5 6	당신의 ~를 보세요	약
你A你的吧	~ 하세요	5 6	×	약
你是说	네 말은	5 6	네가 ~라 말한	약
你说	네 생각은	5 6	네가 말하다	약
你说呢	네 생각은	5 6	△	약
你说是不是	네 생각은	5 6	△	약
你呀(你)	너도 참	5 6	△	약
你一言我一语	저마다 한 마디씩	5 6	×	약
你知道	네가 알다시피	5 6	너는 안다	약
弄不好	자칫하면	5 6	잘 할 수가 없다	약
P				
便宜A了	~에게 좋게 하다	5 6	×	약
凭良心说	양심적으로 말하다	5 6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凭什么	뭘 믿고	5 6	무엇을 근거로	약
Q				
气不打一处来	분통이 터지다	4 5 6	△	약
气不过	화가 치밀어 오르다	5 6	△	약
千不该万不该	천부당만부당하다	5 6	×	약
瞧你那A样儿	~한 것 좀 봐	5 6	△	약
请便	편한 대로 하세요	5	△	약
请多包涵	널리 양해 바랍니다	2 5 6	△	약
去你的	저리 꺼져	5 6	너의 ~로 가라	약
R				
让我说你什么好	너한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5 6	△	약
让我怎么说呢	뭐랄까	5 6	△	약
日子不好过	살기 힘들다	3 5 6	△	약
日子好过	살기 좋다	3 5 6	△	약
S				
伤了和气	감정 상하다	3 5 6	△	약
少不得	불가피하다	5	△	약
少得/不了	없을 수 있다/없다	5	△	약
少管闲事	쓸데없이 참견하다	5 6	△	약
少见	드물다	3 5 6	△	약
少说	적어도	3 5	△	약
少说两句	그만 해라	5	△	약
什么A不A的	~는 무슨 ~냐	5 6	×	약
什么大不了的	뭐 대단하다고	5 6	△	약
什么AB的	A, B가 다 뭐냐	5 6	×	약
什么A的B的	A, B가 다 뭐냐	5 6	×	약
什么呀	뭐냐	5 6	무엇이나	약
实话告诉你	솔직히 얘기하자면	5 6	△	약
实话跟你说	솔직히 얘기하자면	5 6	△	약
实话说	솔직히 말해서	5	△	약
是A的材料	~할 그릇이다	5	~의 재료이다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是什么东西	뭐하는 놈이야	3 5 6	무슨 물건이나	약
是时候	때가 됐다	5 6	△	약
A是A, B是B	A는 A고, B는 B지	5	△	약
是怎么着	그래서 어쩔래	2 5 6	△	약
是这么回事	이렇게 된 거예요	5	△	약
手头紧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	5	△	약
属A的	~따	5	~따의	약
数得/不上	손꼽히다/손꼽히지 못하다	3 5	△	약
数得/不着	손꼽히다/손꼽히지 못하다	3 5	△	약
恕我直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주세요	5 6	△	약
谁跟谁	어떤 사이인데	2 5 6	누가 누구와	약
谁叫	누가 ~하랬나	5 6	누가 ~시키나	약
谁说不是呢	누가 아니래	5 6	△	약
谁说 (的)	누가 그래	5 6	누가 말하나	약
谁知 (道)	누가 알겠어	5 6	누가 알지	약
说不出口来	입에 담지 못하다	5 6	△	약
说不出来	할 말을 잃다	5 6	△	약
说不定	아마	5	△	강
说不上	~라고 말 할 정도는 아니다	3 5 6	△	강
说到哪儿去了	무슨 말이야	5 6	△	약
说得/不过去	경우에 맞다/어긋나다	5	△	약
说得/不上话	말이 통하다/통하지 않다	5	△	약
说得好听	말은 잘해	5 6	△	약
说得轻巧	말은 쉽	5 6	△	약
说得容易	말은 쉽	5 6	△	약
说的是	말이 맞다	5 6	말하는 것은 ~이다	약
说过多少遍	몇 번이나 말했어	5 6	몇 번 말했어	약
说话算话	한 말은 지킨다	3 5 6	×	약
说话算数	한 말은 지킨다	3 5 6	×	약
说话不算数	말한 대로 지키지 않는다	3 5 6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说开了	해명하다	5 6	△	약
说来	말하자면	5 6	△	약
说来话长	말하자면 길다	5	△	약
说老实话	솔직하게 말하다	5 6	△	약
说了算	결정권이 있다	3 5 6	×	약
说良心话	양심적으로 말해서	5 6	△	약
说起来	말하자면	5	△	약
说什么	뭐라 말하는	5 6	무엇이라 말하나	약
说实话	솔직히 말해서	5 6	진실을 말하다	약
说是说	말 따로 행동 따로	5	×	약
说是这么说	말은 이렇게 하지만	5	△	약
说是	말은 ~인데	5 6	△	약
说心里话	솔직히 말하자면	5 6	△	약
说真的	정말이지	5 6	△	약
送上门来	제 발로 걸려들다	5	△	약
算得/不了什么	대단하다/대단치 않다	3 5	△	약
算得/不上	대단하다/대단치 않다	3 5	△	약
算得什么/算不得什么	대단하다/대단치 않다	3 5	△	약
算得/算不得	대단하다/대단치 않다	3 5 6	△	약
算老几	뭔데	2 3 5 6	몇 켜	약
算了吧	됐어	5 6	계산 해	약
算什么	뭐 대단하냐	5 6	뭘 계산하니	약
算是	~라고 할 수 있다	5	△	중
算数	유효하다	5	셈하다	약
随A的便	~ 마음대로 하세요	5	△	약
随A去	~ 마음대로 하세요	5	~를 따라 가다	약
T				
抬抬手	관대히 봐 주세요	2 5	손을 좀 들다	약
太那个了	좀 거시기하다	3 5	△	약
谈不到	~라고 말 할 정도는 아니다	3 5	△	약
替/为A说话	~를 대변하다	5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替/为A着想	~를 위해 생각하다	5	△	약
天哪	세상에	5 6	△	약
天晓得	누가 알겠어	5 6	△	약
听不下去	듣고 있을 수가 없다	2 5	△	약
听得/不进去	귀에 들어오다 / 들어오지 않다	2 5	△	약
W				
完了	끝났다	5 6	~가 끝났다	약
万不得已	부득이하다	5	△	약
往心里去	마음에 두다	5	△	약
我的天	세상에	5 6	△	약
我的姓倒着写	성을 간다	5 6	△	약
我的意思是说	내 말은	5 6	△	약
我等着	두고 봐	5 6	나는 기다리고 있다	약
我敢说	틀림없이	5 6	△	약
(我) 叫你A	~하기만 해봐	5 6	너에게 ~하게 하다	약
我就不信	절대 못 믿어	5 6	△	약
我看	내가 보기에	5	나는 본다	약
(我) 看你	두고 보자	5 6	너를 본다	약
我是说	내 말은	5	△	약
我说	그러니까	5	나는 말한다	약
我说呢	어쩐지	5	△	약
我知道	내가 알지	5 6	나는 안다	약
无所谓	상관없다	2 5 6	△	약
X				
想到哪儿去了	무슨 생각을 한 거야	5 6	△	약
想得/不开	마음을 넓게 먹다/먹지 않다	5	△	약
想得倒好	생각이야 좋지	5 6	△	약
想得倒美	생각이야 좋지	5 6	△	약
想开点	좋게 생각해라	5 6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像个样子	그럴듯하다	3 5	△	약
像样儿	그럴듯하다	3 5	△	약
像话	말이 되다	3 5	△	약
小意思	성의	3 5 6	△	약
心里有/没底	자신 있다/없다	2 5	△	약
信不信由你	믿거나 말거나	5 6	△	약
信得/不过	믿을만하다/하지 못하다	3 5	△	약
行	대단하다	3 5	△	약
行了	됐어	3 5	△	약
Y				
要不怎么说	그렇지 않으면 ~라 할 수 있겠어	5	△	약
要我说	내가 보기에	5	나에게 말하라고 하면	약
要知道	~를 알아야한다	5 6	알아야 한다	약
A也罢, B也罢	A도 괜찮고 B도 괜찮다	5	×	약
A也好, B也好	A도 괜찮고 B도 괜찮다	5	A도 좋고, B도 좋다	약
A也不是, B也不是	A도 못하고, B도 못한다	5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약
也是	~도 그래	5	~도 그러하다	약
一般来说	일반적으로	5	△	약
一而再, 再而三	재삼재사	5	△	약
一个劲儿	시종일관	5	△	약
一句话	한마디로	5	한 마디 말	약
一口气	단숨에	5	한 숨	약
一来二去	이러저러 하는 가운데	5	×	약
一A了事	~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다	5	△	약
一A了之	~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다	5	△	약
一码事儿	같은 일	3 5	△	약
一天到晚	하루 종일	5	△	중
一言为定	한 마디로 정하다	3 5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一眼	한 눈에	5	한 번	약
依你之见	당신이 보기에	5	△	약
依我看	내가 보기에	5	△	약
依我之见	내가 보기에	5	△	약
依我说	내 생각에는	5	△	약
意思意思	성의를 좀 보이다	5	×	약
硬着头皮	마지못해	4 5	×	약
用得/不着	쓸모 있다	3 5	△	약
由不得	저도 모르게	5	△	약
有本事	능력 있다	3 5	△	약
有的是	얼마든지 있다	3 5 6	어떤 것은 ~이다	중
有点那个	좀 그렇다	3 5 6	×	약
有何贵干	무슨 용무이십니까?	5	△	약
有话好说	할 말이 있으면 좋게 말해라	5 6	△	약
有讲究	분명한 규칙이 있다	3 5	△	약
有看法	이견이 있다	3 5	견해가 있다	약
有了	생각났다	5	생겼다	약
有两下子	대단하다	2 3 5 6	△	약
有/没把握	자신 있다/없다	3 5	△	중
有/没的说	두 말이 필요 있나/없다	3 5 6	△	약
有/没话说	할 말이 있다/없다	3 5	△	약
有/没几个	몇 개 있나/없다	3 5	△	약
有/没劲	흥이 있다/없다	3 5	△	강
有/没什么	별거 있겠어/없다	3 5 6	△	약
有/没什么大不了的	뭐 대단한 거 있겠어/없다	3 5 6	△	약
有/没什么(好)A的	뭐 ~할 거 있어/없다	3 5 6	△	약
有/没什么(好)说的	뭐 두말 할 거 있어/없다	3 5 6	△	약
有/没什么了不起	뭐 대단한 거 있겠어/없다	3 5 6	△	약
有/没什么A头	뭐 ~할 만한 게 있겠어/없다	3 5 6	△	약
有/没说的	두 말이 필요 있나/없다	3 5 6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有/没意思	흥이 있다/없다	3 5 6	의미 있다/없다	약
有能耐	능력 있다/없다	3 5 6	△	약
有你的	대단하다	3 5 7	너의 것이 있다	약
有什么关系	무슨 상관이야	3 5 6	어떤 관계가 있나	약
有什么话说	무슨 할 말이 있어	3 5 6	△	약
有什么了不得	뭐 대단한 거 있어	3 5 6	△	약
有什么相干	무슨 상관이야	3 5 6	△	약
有什么要紧	신경 쓸 거 뭐 있어	3 5 6	△	약
有什么意思	무슨 재미있어	3 5 6	어떤 의미가 있나	약
有完没完	끝이 없다	2 5 6	×	약
有我哪	내가 있잖아	5 6	내가 있어요	약
有言在先	먼저 말해둘게 있는데	5 6	△	약
有一天	언젠가	5 6	하루가 있다	약
有A这么B的吗	A처럼 그런 게 어딴어	2 5 6	△	약
有A这样的吗	A처럼 그렇게 B하는 게 어딴어	2 5 6	△	약
又来了	또 시작이다	2 5 6	또 왔다	약
又是一回事	다른 일이다	3 5	또 한 가지 일이다	약
与A分不开	~와 떼려야 뗄 수 없다	3 5	△	약
Z				
在乎	신경 쓰다	5	△	강
再说	다음에 다시 생각하다	5	다시 말하다	약
怎么见得	어떻게 알아	5 6	△	약
怎么得了	어떻게 하나	2 5	△	약
怎么敢当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2 5 6	△	약
怎么搞的	어떻게 된 거냐	5 6	△	약
怎么回事	어떻게 된 일이나	5	×	약
怎么说	어떻게 말해도	5	어떻게 말하나	약
怎么说呢	뭐라 말해야 할 지	5	△	약

口語習用語	실제의미		표면의미	어법화 강도
	기본의미	부가의미		
找麻烦	골칫거리를 만들다	5	△	약
找上门来	제 발로 굴러오다	5	찾아오다	약
照理说	원칙대로 말하자면	5	△	약
这不 (是)	아니야?	5 6	이것은 ~가 아니다	약
这还差不多	이러면 그런대로 괜찮다	3 5	△	약
这么说	이렇게 말한다면	5	이렇게 말하다	약
这么说来	이렇게 말한다면	5	△	약
这么着 (吧)	이렇게 하자	5	△	약
这/那还用说	이것/그것도 말할 필요 있나	5 6	이것/저것도 말할 필요있다	약
这/那还用问	이것/그것도 말할 필요 있나	5 6	이것/저것도 물을 필요있다	약
这是从何说起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5 6	△	약
这是什么话	이게 무슨 말이야	5 6	이것은 무슨 말인가	약
这样吧	이렇게 하자	5	△	약
真成	정말 대단하다	3 5 6	정말로 되다	약
真行	정말 대단하다	3 5 6	△	약
真的	정말로	5 6	진짜의	약
真是的	정말	2 5 6	△	약
至于吗	~에 미치지 않다	5 6	△	약
总有一天	언젠가는	5 6	△	약
走着瞧	두고 봐	5 6	가면서 보다	약
最好	상책이다	5 6	제일 좋다	약
坐得/不住	앉아 있을 수 있다/없다	4 5	△	약